

최종보고

2022 수원시 문화예술교육 현황조사 연구

제 출 문

수원문화재단 대표이사 귀하

본 보고서를 「2022 수원시 문화예술교육 현황조사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바라컬처스랩
소장 김 태 희

연구책임자

김태희 바라컬처스랩 소장

공동연구자

고정민 홍익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연구원

유하영 바라컬처스랩 연구원

민지혜 바라컬처스랩 연구원

고 옹 바라컬처스랩 연구원

정다겸 바라컬처스랩 보조연구원

목 차

I.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
1. 연구 배경	3
2. 연구 목적	4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5
1. 연구 대상 및 범위	5
2. 연구 방법	6
제3절 선행연구 분석	7
1. 문화예술교육	7
2. 지역 문화예술교육	8
3. 지역 문화예술교육 현황조사 선행연구	13
II. 수원시 문화예술교육 자원 현황	19
제1절 수원시 인구 및 교육자원	21
1. 수원시 인구현황	21
2. 수원시 학교 및 학교예술교육 현황	25
제2절 수원시 문화예술 자원	29
1. 수원시 문화기반시설	29
2. 문화도시 수원의 문화재 및 축제 현황	31
3. 수원시민 문화향수 현황	34
제3절 수원시 문화예술교육 정책 자원	42
1. 수원시 문화예술교육 조례 현황	42
2. 수원시 문화예술교육 시정 현황	50

III. 수원시 문화예술교육 운영 현황	53
제1절 수원시 문화기반시설 문화예술교육 현황	55
1. 수원시 박물관	55
2. 수원시 미술관	58
3. 수원문화원	62
4. 수원시 문화기반시설 문화예술교육 분석	64
제2절 수원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운영 현황	69
1. 문화예술교육 업무 현황	69
2. 문화예술교육 인력 현황	75
3. 문화예술교육 예산 현황	77
제3절 수원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현황	82
1. 문화예술교육 학습연구 및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82
2. 문화소외계층(브릿지) 예술교육 프로그램	87
3. 시민문화 예술교육 프로그램	92
IV. 수원시 문화예술교육 발전방안	99
제1절 수원시 문화예술교육 연구 인터뷰	101
1. 수원시 문화예술교육 관련 인터뷰	101
2. 수원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FGI	111
제2절 수원시 문화예술교육 발전을 위한 컨퍼런스	117
1. 문화예술교육 정책 사례	118
2. 수원시 문화예술교육 토론	131
제3절 수원시 문화예술교육 발전방안 제언	135
참고문헌	145

표 차례

<표1-1> 연구 범위	5
<표1-2> 연구 방법	6
<표1-3> 개인의 문화권리 실현을 위한 추진 과제	11
<표1-4> 문화다양성 침해 금지와 인식 제고를 위한 추진 과제	12
<표1-5> 창의성과 상상력을 갖춘 시민·인재를 위한 추진과제	13
<표1-6> 지역 문화예술교육 선행연구	14
<표1-7>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문화예술교육 선행연구	16
<표2-1> 2030 수원 도시기본계획 수도권 광역전철망 구상	24
<표2-2> 수원시 교육인구 수	25
<표2-3> 수원시 초중고 다문화 학생 수 비교	25
<표2-4> 학급 및 학생수 비교	26
<표2-5> 학급당 학생수 상위 10개 지역(2020)	26
<표2-6> 학생 수 변동 추이	27
<표2-7> 2021 수원시 학교문화예술교육 운영 현황	27
<표2-8> 수원시 문화기반시설 총괄표	29
<표2-9> 수원시 문예회관 목록	29
<표2-10> 수원시 생활문화센터 목록	30
<표2-11> 수원시 문화유산 현황	31
<표2-12> 수원시 축제 목록	32
<표2-13> 분야별 문화예술행사 참여율 및 관람 의향	40
<표2-14> 문화예술교육 및 활동 참여율	41
<표2-15> 수원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구성	43
<표2-16> 광역단위 문화예술교육 조례 제정 현황	45
<표2-17> 기초단위 문화예술교육 조례 제정 현황	46
<표2-18> 주요 문화예술교육 조례와의 조항 비교	49
<표2-19> 수원시 문화예술교육 비전	51
<표2-20> 문화예술 관련 주요 시정계획	51
<표3-1> 수원시 박물관 목록	55
<표3-2> 수원시 박물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현황	57
<표3-3> 수원시 미술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현황	59
<표3-4> 수원문화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현황	62
<표3-5> 수원시 문화기반시설 문화예술교육 사업수 및 프로그램 수	64
<표3-6> 수원시 문화기반시설 문화예술교육 교육 유형	65
<표3-7> 수원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주요 MOU 현황	70

<표3-8> 문화예술교육 사업 현황(2022)	70
<표3-9> 2018~2022 예술교육팀 전담업무 및 변동 현황	72
<표3-10> 경기도 내 문화의 집 예산 현황	74
<표3-11> 수원문화재단 예술교육팀 주요 업무 비율	74
<표3-12> 2018~2022 수원문화재단 전체 직원 및 예술교육팀원 수	75
<표3-13> 수원문화재단 예술교육팀원 수	75
<표3-14> 수원문화재단 예술교육팀원 수	76
<표3-15> 수원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연도별 예산 추이	77
<표3-16> 경기도 공공미술관 시설 현황	78
<표3-17> 수원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예산 증감 현황	78
<표3-18> 수원문화재단 예술교육팀 사업예산 비율 현황	79
<표3-19> 경기도 내 기초문화재단 예술교육예산 비교	80
<표3-20> 경기도 내 기초문화재단 예술교육예산 연도별 추이	80
<표3-21> 학습개발연구모임 연도별 지원 현황	83
<표3-22> 전문예술인교육사업 연도별 현황	85
<표3-23> 전문예술인 교육사업 연도별 교육내용	86
<표3-24> 브릿지 예술교육 프로젝트(찾아가는 문화예술교육) 현황	87
<표3-25> 브릿지 예술교육프로그램(찾아가는 문화예술교육) 현황	88
<표3-26> 브릿지 예술교육 프로젝트(기획사업) 현황	89
<표3-27> 브릿지 예술교육 프로그램 연도별 운영 현황	90
<표3-28> 열린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선정 현황(2017)	92
<표3-29> 시민참여형 예술교육 프로젝트 운영결과(2017)	93
<표3-30> 시민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선정 현황(2018)	94
<표3-31> 시민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선정 현황(2019)	95
<표3-32> 시민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선정 현황(2021)	96
<표3-33> 비대면 예술교육프로그램<학교에 서커스!>(2021)	96
<표3-34> 경기시민예술학교 기초협력사업 ‘상상하는 수원캠퍼스’ 프로그램	97
<표4-1> 수원시 문화예술교육 발전을 위한 컨퍼런스 세부 운영일정	117

그림 차례

[그림 2-1] 경기도 시군별 인구현황	21
[그림 2-2] 수원시 남녀 연령별 인구	22
[그림 2-3] 2017년 및 2037년 수원시 인구 피라미드	22
[그림 2-4] 수원시 다문화가구 및 가구원 연도별 추이	23
[그림 2-5] 수원시 행정구역별 인구수	23
[그림 2-6] 경기도 시군별 콘텐츠산업 사업체 현황 및 콘텐츠산업 장르 현황	24
[그림 2-7]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추이	34
[그림 2-8] 분야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35
[그림 2-9] 분야별 문화예술행사 관람의향	35
[그림 2-10] 문화예술교육 참여율 추이	36
[그림 2-11] 분야별 문화예술교육 참여율	36
[그림 2-12] 분야별 문화예술교육 참여 의향	36
[그림 2-13] 분야별 문화예술활동(동호회) 참여율	37
[그림 2-14] 분야별 문화예술활동(동호회) 관심 분야	37
[그림 2-15] 유형별 문화예술시설 이용률	38
[그림 2-16] 유형별 문화예술시설 이용 의향	38
[그림 2-17] 역사문화유적지 유형별 방문율	39
[그림 2-18] 수원시 축제 참여율	39
[그림 3-1] 문화기반시설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장르	66
[그림 3-2] 문화기반시설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대상 연령	67
[그림 3-3] 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전담 직원 비율	76
[그림 3-4] 인구 10만명 당 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전담 직원 수	76
[그림 3-5] 수원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순사업예산 연도별 추이	77
[그림 3-6] 수원문화재단 예술교육팀 사업예산 비율 현황	78
[그림 4-1] 정부 2단계 재정분권에 따른 단계적 지역 이관	118
[그림 4-2] 경기도 문화예술교육계획('23~'27) 비전 및 전략	120
[그림 4-3]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 추진을 위한 핵심과제	125
[그림 4-4]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 사업추진 근거 및 전담인력	126
[그림 4-5] 춘천문화예술교육 사업 체계도	129
[그림 4-6] 춘천문화예술교육 세부사업	130
[그림 4-7] 제2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3-'27) 비전과 전략	136
[그림 4-8] 수원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3대 당면 과제	137
[그림 4-9] 수원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3대 당면 과제와 6개 세부과제	139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배경

- 문화예술교육은 2004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종합계획」과 2005년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정 및 2014년 「문화기본법」, 「지역문화진흥법」 시행으로 법적·정책적으로 중요한 근거와 위상을 갖게 되었고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의무에 따라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정책사업이 국가적, 지역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수원시는 2002년 인구 100만 명을 넘어 현재 대한민국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인구를 갖고 있으며, 2020년 12월 특례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2022년 1월 특례시로 승격됨에 따라 행정 및 정책 전반에서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관심을 받고 있음
- 특히 2022년은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면 개정·시행되어 특례시로서 수원시의 자치분권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고, 문화예술진흥과 문화예술교육 또한 수원시 지역적 성격과 필요를 반영한 정책 방향 설정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름
-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6조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 ‘문화예술교육 5개년 종합계획(2023~2027)’을 마련 중이며, 경기문화재단도 경기도 차원에서 「경기문화예술교육 발전계획 (2023~27)」을 수립, 발표할 예정으로, 국가적 차원과 경기도 차원의 문화예술교육 미래 정책을 수원시 차원으로 발전시켜 이행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지역 문화예술교육 관련 지표들을 조사, 분석하고 현황을 파악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함
- 수원시는 2021년 12월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됨에 따라 시민이 문화예술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마련되었고, 성남시, 구리시, 고양시에 이어 2021년 9월 경기도에서 네 번째로 시 차원의 「수원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법정 문화도시와 제정조례의 위상 및 의무에 맞는 수원시 첫 문화예술교육 현황조사를 통해 정책적 방향을 모색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함

2. 연구목적

- 수원시 문화예술교육 관련 현황조사가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던바, 수원문화재단 설립 10주년을 맞이하여 지역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자원과 프로그램 현황을 조사하고 분석함으로써 시민 중심의 문화 향유를 위한 인식증대와 함께 실효성 높은 시민 문화예술 정책을 마련하는 객관적 기초 지표를 확보함
- 수원시 문화기반시설의 문화예술교육 현황과 수원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현황을 살펴보고 문화예술교육의 정책 방향을 모색하여 2021년 9월 제정된 「수원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조례」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발전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는 시초로 삼음
- 2018년~2022년까지 지난 5년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현황을 살펴보고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이후 수원시 문화예술교육의 환경변화를 함께 파악함으로써 위기 대응과 관련한 시민 문화예술 정책 및 단,중기 문화예술교육 방향 마련에 이바지하고자 함
- 2023년 수립, 발표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 5개년 종합계획 (2023~2027)’과 경기도 「경기문화예술교육 발전계획 (2023~27)」의 이행을 위한 수원시 문화예술교육 토대 마련 및 발전계획을 지방분권 확대에 맞추어 수원형 문화예술교육으로 확장하는 정책구상 지원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1. 연구 대상 및 범위

■ 연구 대상

- 본 연구는 수원문화재단의 역할인 문화예술교육 공공서비스 현황조사에 충실하기 위해 공간적, 역할적, 정책적 ‘지원 주체’로서 수원문화재단 및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하는 수원시 내 문화기반시설 가운데 문화예술교육 진흥과 관련된 기관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함¹⁾
- 수원문화재단, 문화기반시설, 수원시교육지원청 문화예술교육 담당자들과의 FGI 인터뷰, 1:1 면담 등을 진행, 수원시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한 당면 현안, 요구, 현황에 대한 다면적 정보를 확보함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은 2018~2022년까지 최근 5년간의 내용을 수집, 조사하여 수원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동향과 특성, 강점과 보완점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함

■ 시간적 범위와 대상적 범위

<표 1-1> 연구 범위

시간적 범위	내용
대상기간	문화예술교육 실태 및 동향 : 변화 흐름에 따라 최신순으로 동향 조사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 2022년 포함 최근 5년 (2018~2022)
대상적 범위	내용
자원 및 프로그램	- 수원시, 수원시교육지원청, 수원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조례 및 정책 - 문화기반시설 문화예술 자원 및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현황조사 - 수원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환경 및 프로그램 현황조사

1) 문화기반시설은 <도서관법>상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상 박물관 및 미술관, 문예회관(중견 <문화예술진흥법>상 문화예술회관) 및 <지방문화원진흥법>상 지방문화원, 문화의 집으로 2020년부터 문화기반시설총람에서는 생활문화센터를 문화기반시설에 추가하고 있음. 이 가운데 문화예술 및 문화예술교육 진흥이 아닌 독서 진흥을 주된 목표로 하는 도서관과 생활예술 동아리 및 문화적 교류를 중심에 둔 생활문화센터는 본 연구 범위에서 제외, 수원시 내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문화의 집은 없음), 문화재단을 수원시 문화예술교육 현황 조사를 위한 문화기반시설 대상 범위로 설정하였음.

2. 연구 방법

<표 1-2> 연구 방법

문헌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문화예술교육 관련 선행연구 검토 및 분석 · 수원시 문화예술교육 관련 정책 및 유관 정책 분석 · 지역 문화예술교육의 의미와 효과성, 성과 분석
현황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원시 문화예술교육 관련 운영 현황조사 및 분석 · 수원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운영 및 프로그램 현황 · 수원시 문화기반시설 프로그램 현황
심층 인터뷰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원시 문화예술교육 주요 관계자 FGI 진행 · 수원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담당 부서 및 담당자 · 수원시 예술교육가, 학교 예술교육 관계자 등
자문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원시 문화예술교육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한 주요 현안 발굴 · 수원시 문화예술교육 방향성 및 의제 개발

■ 현황조사 자료 수집 과정 및 신뢰도 확보

- 수원문화재단 2018~2022 문화예술교육 운영자료 및 프로그램 자료 전수조사를 통해 신뢰성 높은 자료를 기반으로 한 분석 진행
- 수원시 문화기반시설 자료 : 문화기반시설 홈페이지 및 공공 개방 데이터를 근거로 2018~2022 문화예술교육 자료 수집 및 분석 진행
- 수원시 학교 문화예술교육 현황자료 : 경기도교육청 및 수원시 교육지원청 문화예술교육 관련 공공 개방 데이터를 근거로 현황자료 분석

제3절 선행연구 분석

1. 문화예술교육

■ 문화예술교육 법적 정의

- 문화예술이란 용어는 정책에서 주로 사용되며 그 근거는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함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르면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의미한다고 규정함
 - 그러나 문화예술을 「문화예술진흥법」의 의미에만 따르면 문화예술교육에서 문화유산·전통문화·민족문화교육, 음식·주거·복식 등 생활문화에 대한 교육, 영화·애니메이션·게임·음악·멀티미디어콘텐츠 등 문화산업에 대한 교육, 방송영상·광고 등 문화미디어에 대한 교육 등을 포괄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제기됨²⁾
- 이에 따라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 정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법령 조항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을 정의하고 있음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예술을 교육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교육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산업을 교육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교육
 -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재를 교육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교육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 정의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을 다음과 같이 학교 문화예술교육과 사회문화예술교육으로 세분화하고 있음
 - 학교 문화예술교육 : 「영유아보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행하여지는 문화예술교육

2) 양현미 (2006).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의 제정취지와 구성. 법학논문집 vol.30, no.1, pp. 56-73

- 사회문화예술교육 : 제2조 제3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하는 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문화예술교육단체와 제24조의 각종 시설 및 단체 등에서 행하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외의 모든 형태의 문화예술교육

■ 문화예술교육 개념 정의

- 문화예술교육은 문화, 예술, 교육의 합성어로 문화교육과 예술교육을 상호 연계적, 보완적 관계의 개념으로 보거나 문화교육, 예술교육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사용됨
 - 문화예술교육은 문화교육과 예술교육이 만나는 지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으로 여기에는 미적인 교육, 문화 다양성 교육 매체교육과 문화적 이해 교육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정의³⁾
 - 문화예술교육 개념이 적극적인 의미부여 속에 사용된 것은 2004년 문화예술교육정책 수립 이후부터로, 기존 예술교육이 예술적 기술이나 지식 습득에 치중하여 온 것에 대한 강력한 비판과 변화의 의지를 담은 정책적 용어로 선택됨⁴⁾
 - 문화적 환경이 탈근대 문화 패러다임으로 변화함에 따라 문화를 발현된 결과물이 아닌 인간의 자기 이해와 자기 창조의 터전이자 과정으로서의 역동성을 가지는 것으로, 문화예술교육은 예술교육에 이러한 문화적 실천을 지향해야 할 새로운 방향으로 강조하는 개념으로 정의함⁵⁾
 - 즉 문화예술교육이란 개별 예술 장르들의 고유 이론이나 기능을 가르치는 방식의 교육이 아니라 지식 및 경험, 장르 간 통합과 함께 다른 학문과의 융복합을 통해 예술과 문화의 경계 초월을 추구하는 통합교육으로, 시민의 예술적 감수성과 자율적인 표현, 상상력을 극대화하는 교육이라 할 수 있음⁶⁾

2. 지역 문화예술교육

■ 문화예술교육의 법적 지위

- 문화예술교육은 2005년 제정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을 통해 보호받고 있는 특수한 위치에 있음

3)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5),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현황조사 및 정책방향 연구

4)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0). 문화예술교육 개념정립을 위한 기초연구

5) 정연희 (2008). 한국과 오스트리아의 문화예술교육정책 비교연구. 미술과 교육 제9집 제2호 pp. 141-165

6) 유영재 (2020). 지역문화예술교육 현황 및 정책 연구 : 창원시 문화예술교육을 중심으로. 사회융합연구 vol.4, no.3, 통권 15호 pp. 37-50

- 양현미(2006) 연구에서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의 재정취지와 의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석함⁷⁾

“문화예술교육은 시민적 차원에서는 문화적 창의성과 문화적 해득력을 길러줌으로써 삶의 질을 재고하는 데 기여하고, 국가적 차원에서는 다양한 문화의 발전을 촉진하고 지식기반사회가 필요로 하는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가 전체의 역량을 높이는데 기여한다. 문화관광부와 교육인적자원부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을 제정하게 된 것은 국민의 창의성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되는 지식기반사회에서 문화예술교육이 현재의 상태대로 지속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위기의식을 공유하였기 때문이다.”

- 문화예술교육은 문화예술 접근에 대한 국민적 보편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3조 (문화예술교육의 기본 원칙)에서는 다음과 같이 문화예술 향유와 창조력 함양을 위한 목적과 함께 생애주기 속 균등한 기회의 보장을 명시하고 있음

- ① 문화예술교육은 모든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창조력 함양을 위한 교육을 지향해야 한다.
- ② 모든 국민은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관심과 적성에 따라 평생에 걸쳐 문화예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아야 한다.

- 문화예술교육은 법령에 의해 보호받고 지원되는 공적 기능과 가치를 가지므로 공공 정책 및 공공서비스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함. 이에 따라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5조의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서는 다음과 같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교육을 위해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교육청 상호 간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균등한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보장하여 문화 예술적 소질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지역 문화예술의 법적 지위

7) 양현미 (2006).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의 재정취지와 구성. 법학논문집 vol.30, no.1, pp. 56-73

- 2014년 시행된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중앙정부에서 하달하던 방식의 정책을 벗어나 지역이 중심이 되는 지방 문화 시대가 열리게 됨. 「지역문화진흥법」은 특히 지역 문화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 지역 특색을 반영한 고유의 문화를 진흥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데 큰 의의가 있음
-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 제3조(지역 문화진흥의 기본 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기본 원칙에 따라 지역 문화진흥 정책을 추진할 것을 명시함
 1. 지역 간의 문화 격차 해소와 지역문화 다양성의 균형 있는 조화
 2.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추구
 3. 생활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 조성
 4. 지역문화의 고유한 원형의 우선적 보존
- 「지역문화진흥법」으로 지역문화 발전 및 진흥을 위한 권한이 지역으로 이전되었고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핵심 패러다임으로서 문화예술교육이 강조됨에 따라 비영리법인으로서 공익성과 공공성을 표방, 실현하는 역할로서 지역 문화재단의 기능 내 문화예술교육 사업이 중요시되고 있음⁸⁾

■ 지역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지방정부의 책무

- 세계지방정부연합(UCLG)는 193개 UN 회원국 중 140개국 1,000개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기구에 의해 설립, 2015년 제1차 문화 정상회의에서 <문화 21(Culture 21: Agende 21 for Culture)>를 채택하고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가치를 설정함
 1. 문화, 권리 그리고 시민권
 2. 지속가능한 발전의 문화적 요인
 3. 지방정부의 특별한 책무

이 가운데 지방정부가 가져야 할 지속가능한 문화정책 책무로서 ①문화권, ②문화유산·다양성·창의성, ③문화와 교육, ④문화와 환경, ⑤문화와 경제, ⑥문화적 평등과 사회적 포용, ⑦문화적 기획과 공공공간, ⑧문화적 정보와 지식 ⑨문화 거버넌스 등 총 아홉 가지를 제안하고 있음

8) 김신애, 송미숙 (2015). 지역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조사연구. 우리춤과 과학기술. vol.11, no.3, 통권 30호 pp. 49-66

- 우리나라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에 따라 지역문화 분권 정책과제로서 2018년 「문화비전 2030」⁹⁾을 설정함. 「문화비전 2030」은 문화기본법 제2조 기본이념¹⁰⁾ 구현을 위하여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을 기본 3대 가치로 지정, 9가지 의제와 47개 대표과제를 제시하였는데 그 가운데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한 주요 의제는 다음과 같이 의제(1) 개인의 문화권리 확대, 의제(4) 문화 다양성의 보호와 확산, 의제(7) 문화자원의 융합역량 강화가 있음

- **의제(1) 개인의 문화권리 확대** : 의제(1)의 대표과제로서 ‘개인의 문화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문화예술교육’이 도출됨. 대표과제 구현을 위해 ‘문화예술교육 지역 분권화 추진과 지역문화예술교육 생태계 구축’, ‘예술강사 권리 강화를 통한 문화예술교육 안정화’, ‘수요자 맞춤형 콘텐츠 개발 및 교육 다변화’, ‘예술수요 기반 접근성 강화’, ‘문화적 권리를 위한 미디어 교육 활성화’, ‘치유와 통합의 문화예술교육’, ‘생활 속 인문학적 가치 확산’ 등 총 7가지 추진 과제가 제안됨

<표1-3> 개인의 문화권리 실현을 위한 추진 과제

추진 과제	세부 내용
문화예술교육 지역 분권화 추진과 지역문화예술교육 생태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중심 문화예술교육 행정체계 구축, 지역별 특성 반영 : 지역별 종합계획 수립, 문화예술교육지원조례 제정, 광역센터 역할 강화 및 기초센터 지정 방안 마련 등 • 광역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 강화 • 기초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정 기반 마련 • 지역 단위로 이관할 사업의 단계적 권한의 이관·이양·중앙단위에서 정책 전반의 방향을 수립, 파일럿 사업, 문화예술교육 정책환경(제도 등) 조성하는 일 등을 담당, 구체적인 사업실행은 지역에서 담당 • 학교/사회로 이원화된 문화예술교육정책을 지역에서 통합적 재편
학교 예술강사 등 문화예술교육가의 지위와 권리를 강화해 문화예술교육 안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교육전문가의 안정적 활동을 위한 기반 조성 • 문화예술교육가(예술강사)의 지위와 권리증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 필요 • 학교 예술강사의 처우 개선, 고용 안정화를 위한 지속 노력 필요
수요자 맞춤형 교육 콘텐츠 개발 및 교육영역의 다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층·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고 인문교육, 문화다양성교육, 미디어교육, 문화유산교육, 통합/융합교육 등 프로그램 다양화 • 문화예술교육의 본질인 다원주의적 가치 구현 • 청소년이 다양한 분야에서 창의적 예술교육 받도록 지역과 연계해 '청소년 창의스쿨(Youth Creative School) 개설

9) 문화체육관광부 (2018). 「문화비전 2030」

10) 문화기본법 제2조(기본이념) : 이 법은 문화가 민주국가의 발전과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영역 중의 하나임을 인식하고, 문화의 가치가 교육, 환경, 인권, 복지, 정치, 경제, 여가 등 우리 사회 영역 전반에 확산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역할을 다하며, 개인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문화의 다양성, 자율성과 창조성의 원리가 조화롭게 실현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p>예술 수요 기반 접근성 확대를 위한 문화예술교육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교육 접근성 강화를 위해 생활권 단위 문화예술교육 관련 정보 담은 '문화예술교육 자원지도' 제작 : 문화예술교육단체, 프로그램, 시설현황, 타 부처 문화예술교육 관련 내용 · 예술 감상과 표현행위 등을 문화예술교육과 결합 • 문화예술 동아리 활성화·교육지원 등 생활문화와 연계한 자발적 문화 예술 활동 활성화 : '18년 700개, 8개 지역 지원~ '30년 1,500개, 17개 지역으로 지원 확대 • 지역별 문화예술교육 전문공간(문화예술교육센터)과 지역 문화기반시설을 연계해 문화예술교육 기능과 역할 강화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상설화, 문화예술교육 매개인력 상주 등
<p>문화적 권리 증진을 위한 미디어교육의 활성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권리 증진' 관점에서 새로운 미디어 교육 추진 • 수동적 수용환경에 놓인 게임, 1인미디어, SNS, 웹툰 등에 미디어 수용의 문화적 매개 활동(인문적 비평) 체계적 지원 • 대중문화예술과 뉴미디어로 문화예술교육 영역 확장 • 중고등학생의 대중문화 미디어뉴스 수용 능력 교육 · 성인 대상 미디어교육 평생교실 확대
<p>치유와 사회통합을 위한 문화예술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 부적응병사, 성폭력, 학교폭력 피해자 등 심리적 회복에 맞춤형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 • 세대갈등, 가족해체, 1인가구 증가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통합형 문화예술교육 지원 추진
<p>생활 속 자생적 인문학적 가치 확산 기반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외계층·지역에 찾아가는 맞춤형 인문 프로그램 실시 : 찾아가는 인문세대공감(독거노인, 양로원 등), 찾아가는 직장인 인문 콘서트(직장, 공단), 찾아가는 인문교실(군부대, 교정시설, 복지시설) 등 특화 • 인문·철학 교류·소통·확산 거점공간으로 세계인문학교 운영

- **의제(4)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확산** : 의제(4)에서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타인의 문화정체성을 존중하는 문화다양성 토대 마련을 위해 '문화다양성 침해(혐오표현 등) 금지와 인식 제고'를 대표과제 중 하나로 도출하고 있으며, 세부 추진 과제로 '민주시민교육의 핵심 요소로서 문화다양성 교육 확대'를 제시하고 있음

<표 1-4> 문화다양성 침해 금지와 인식 제고를 위한 추진 과제

추진과제	세부내용
<p>민주시민교육의 핵심요소로서 문화다양성 교육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다양성 교육과정 개발·보급, 전문인력 양성 • 교원·공무원·공공기관 등에 대한 교육이수 의무화 추진 • 문화예술교육 영역에 문화다양성 보호·확산도 포함 : 문화다양성 관점에서 문화예술교육 교과과정 개발 및 교사 프로그램 지원, 다양한 문화정체성에서 기인하는 예술들이 학교 교과 과정에 포함될 수 있는 다문화주의적 프로그램 개발 지원

- 의제(7) 문화자원의 융합역량 강화 : 의제(7)에서는 사회적 창의성 확산을 위한 문화자원 간의 융합과 연결 등 역동적 환경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창의성과 상상력을 갖춘 시민·인재' 교육을 대표과제로 제시함. 이를 위해 '아동부터 노년층까지 창의교육 접근 기회 확대', '협력과 협업에 기반한 문화기반시설의 창의공간화', '융합 연구·교육·시범 프로젝트의 협업 기반 마련',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책 읽는 문화 조성' 등 4개의 세부추진 과제를 선정함

<표 1-5> 창의성과 상상력을 갖춘 시민·인재를 위한 추진과제

추진과제	세부내용
아동부터 노년층까지 창의교육 접근 기회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교육, 스포츠교육 등을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확대 추진 • 아동·청소년 등이 창의적 예술을 경험하고 창작하는 문화예술교육 전용공간 '꿈꾸는 예술터' 조성·운영 : 유휴공간 등을 활용하여 학교 밖 문화예술교육 공간 조성, 창의적 문화예술교육 공간 운영으로 지속가능한 학교·사회 연계 모델 구축('30년까지 시도별 5개 조성) : 프로그램 개발·운영·연수, 학교·지역을 연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공간거점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자원의 협력망 활성화 • 미래형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연구개발·적용·확산하는 '창의예술교육 랩' 도입
협력과 협업에 기반한 문화기반시설의 창의공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공간(도서관, 미술관, 공예관, 공연장 등)을 문화적 학습, 자유로운 협업이 가능한 '창의적 문화공간'으로 업그레이드 • 거점별·주제별 문화공간의 창의적 협력 기획 강화
융합 연구·교육·시범 프로젝트의 협업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기관과 대학, 기업이 지식·창의 기반의 교육자원을 공유하는 협력적 인재 양성 체계로 '콘텐츠원캠퍼스' 확대 개편 • 예술과 과학, 문화와 기술을 융합하는 교육·창작 연구기반, (가칭)융합 예술 R&D센터 설립 추진

3. 지역 문화예술교육 현황조사 선행연구

■ 주요 지역 문화예술교육 현황조사 선행연구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과 「지방문화진흥법」에 근거하여 전국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연구를 기반으로 지역 현황과 특성에 맞는 지역 문화예술교육 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음
- 그 가운데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현황조사는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자원과 환경,

프로그램 등을 분석함으로써 객관적 기초 지표를 확보한다는 데 의의를 가지며, 지역 문화예술교육 현황조사와 관련한 주요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음¹¹⁾

<표 1-6> 지역 문화예술교육 선행연구

연구명	발행 연도	발행 기관	연구내용
인천문화예술교육 자원 조사 및 분석 연구 보고서	2011	인천문화재단 인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본 연구는 조사를 통해 인천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단체 및 공간의 특성과 인적자원에 대한 인식을 도출하였고, 이를 통해 사회적 자본 형성에 기여하는 자원관리, 자원관리 시스템 구축, 인적자원의 역량 강화, 학교와 사회 문화예술교육 지원방안, 공간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에 대한 방향성을 제안함
제주지역 문화예술교육 현황	2012	제주문화예술재단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해 문화예술교육 활동 현황, 문화예술교육 인력 현황,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 문화예술교육 환경 및 문제점 등을 분석하였으며 제주시 중심의 지역적 불균형 해소, 문화예술교육 인력의 전문성 확대, 특화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기관과 단체의 인식 차이 등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함
2015 충북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문화예술교육 자원조사 및 활성화 방안연구	2015	충북문화재단 충북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본 연구는 충북 문화예술교육 사각 지역 내 사업 참여 저조 및 지역 간 문화예술교육 균형성을 재고하기 위하여 “문화예술교육 기초 자원조사” 및 “사각 지역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필요성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주로 보은, 단양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인프라의 특징을 조사하고 설문조사를 시행, 충북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안도출을 목적으로 함
충남 문화예술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2018	충남연구원	본 연구는 중앙정부 및 충청남도에서 추진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지원 사업을 살펴보고,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지역별 수요 조사분석을 통해 충청남도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기본방향과 과제 제시의 목적을 갖고 있음. 충남 문화예술교육 수요조사는 설문조사와 운영자 인터뷰를 통해 조사 분석하였으며 충청남도 문화예술교육 정책 과제에 대해서는 과제를 실천성을 고려하여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주체들의 제안과 의견을 수렴하여 제안함

11) [표 1-4]는 지역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한 현황이나 실태조사 중심의 주요 선행연구 목록으로, 단순 결과자료집 및 17개 광역시도 5개년 문화예술교육계획안, 문화예술교육 내 개별 사업 연구 등은 제외함

<p>2018 부평구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현황 연구 보고서</p>	<p>2018</p>	<p>부평구문화재단</p>	<p>본 연구는 부평구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의 정책, 전달체계, 사업현황을 분석하고 현황에 따른 개선사항과 전략 및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진행됨. 대상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부평구문화재단의 6개 시설이고, 부평구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정책 및 전달체계 분석, 부평구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사업현황 분석, 부평구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사업 관련자 의견수렴을 통한 분석이 진행됨</p>
<p>2019 충북문화예술교육 현황조사 및 정책제언 최종보고서</p>	<p>2019</p>	<p>충북문화재단 충북문화예술 교육지원센터</p>	<p>본 연구는 충청북도 문화예술단체, 기관, 학교, 사회시설 등 충북도 내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예술교육의 현황 및 특성을 조사·분석하여 충북의 문화예술교육을 이해하고 흐름을 파악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가짐. 예술강사 현황조사와 충북도민 현황조사 등이 연구조사 방법으로 활용되었으며 연구목적 명확화, 조사 대상 선정, 조사 설계 및 실행, 결과분석 및 정책제언의 순으로 연구가 도출됨</p>
<p>2020 서울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현황분석을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p>	<p>2020</p>	<p>서울문화재단</p>	<p>본 연구는 서울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단체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 통해 각 지원사업의 고유 목적 강화 및 개선점 도출 및 향후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체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시사점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함. 연구보고서는 지원사업 현황 분석, 참여단체 현황, 온라인 설문조사, 심층면접 결과분석, 결론 및 제언으로 구성되었으며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현황분석은 지역 문화예술교육의 균등 발전을 도모하고자 문화예술교육의 '일상화, 지역화, 내실화'를 목표로 다양한 정책사업을 추진해 관련 예산과 사업 규모에서 양적 확대를 이고자 함</p>

■ 경기도 주요 기초자치단체 문화예술교육 현황조사 선행연구

-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2022년 현재 기초문화재단이 설립된 곳은 22곳이며, 그 가운데 지역 문화예술교육 관련 기초조사를 진행한 곳은 고양시, 부천시, 성남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꿈꾸는 예술터’ 운영) 등이 있음
- 각 연구는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로서 각 지역의 특성과 차별성을 도출하여 이를

반영한 지역형 문화예술교육 정책 수립을 목표로 삼고 있음.

- 부천문화재단 : 10개 행정복지센터, 3개 권역 지역 분석, 문화예술교육 현황분석, 프로그램 제안 등을 통해 지역 특성이 반영된 ‘부천다운’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특성화 전략 수립
- 성남문화재단 : 성남 문화예술교육 환경 분석과 정책 방향 제시를 통해 학교 연계와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고안, 예술강사를 위한 성남형 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네트워크 구축 등의 성남형 특화 문화예술교육 모델 도출
- 고양문화재단 : 국내외 문화예술교육 관련 정책 및 연구 동향을 검토하고, 고양시 문화예술교육 추진체계와 프로그램 현황, 수요를 분석해 기초생활권 단위 문화예술교육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고양시 지역형 문화예술교육 방안을 도출함

<표 1-7>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문화예술교육 선행연구

연구명	발행 연도	발행 기관	연구내용
부천시 지역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설계방안 연구보고서	2016	부천문화재단	본 연구는 부천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현황을 파악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 및 지역 문화자원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사후 10개 권역별 차별화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지역특성을 반영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전략 제시를 목적으로 함. 연구는 10개 행정복지센터 조사, 3개 권역 지역 분석, 문화예술교육 현황분석, 프로그램 제안,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구를 통해 천편일률적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이 아닌 ‘부천다운’ 지역 특성이 반영된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특성화 전략에 의한 ‘문화교육도시’실현을 제안함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 운영 기본계획 수립 연구	2018	성남문화재단	본 연구는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 운영방안, 비전 및 중장기 계획, 성남형 특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전략 및 고안을 통해 성남의 지역 문화예술교육 콘텐츠를 모델링하고 공유 확산하는 데 목적을 가지며, 주된 내용으로는 성남시 문화예술교육 환경 분석 및 성남시 문화예술교육 정책 방향 제시를 위해 성남시 문화예술교육센터 운영방안을 수립하고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 조성 방향 제시 및 학교 연계와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고안, 예술강사를 위한 성남형 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네트워크 구축 등이 도출됨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 공간조성 방안연구	2018	성남문화재단	본 연구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서 지원하는 '2018년 유휴공간 활용 문화예술교육센터(꿈꾸는 예술터)' 사업에서 공모신청, 총 11개 지역 중 최종적으로 경기 성남시와 전북 전주시 총 2곳이 사업지로 선정, 성남시 문화예술교육센터와 성남몽실학교의 상호보완적 기능배치와 합리적 운영을 위한 공간 실현방안을 제안하였음
고양시 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 보고서	2020	고양시정 연구원	본 연구는 기초생활권 단위 문화예술교육 추진체계 구축이 중요한 과제로 제시됨에 따라, 고양시에서도 지역형 문화예술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함에 따라 진행되어진 연구임. 본 연구를 통해 국내외 문화예술교육 관련 정책 및 연구 동향을 검토하고, 고양시 문화예술교육 추진체계와 프로그램 현황, 수요를 분석해 고양시 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제언을 제시하고 있음

- 이에 본 「2022 수원시 문화예술교육 현황조사」 연구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과 「지역문화진흥법」에서 강조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수행을 위한 수원시의 시급한 과제였으며, 특례시 지정 및 수원문화재단 10주년을 맞이하여 수원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흐름을 살펴보고 타 자치단체들의 선행연구 및 지표들과의 비교를 통해 수원시 특색을 반영한 고유의 문화예술교육을 구축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도시 실현을 도모함

제2장
수원시 문화예술교육
자원 현황

제1절 수원시 인구 및 교육자원

제2절 수원시 문화예술 자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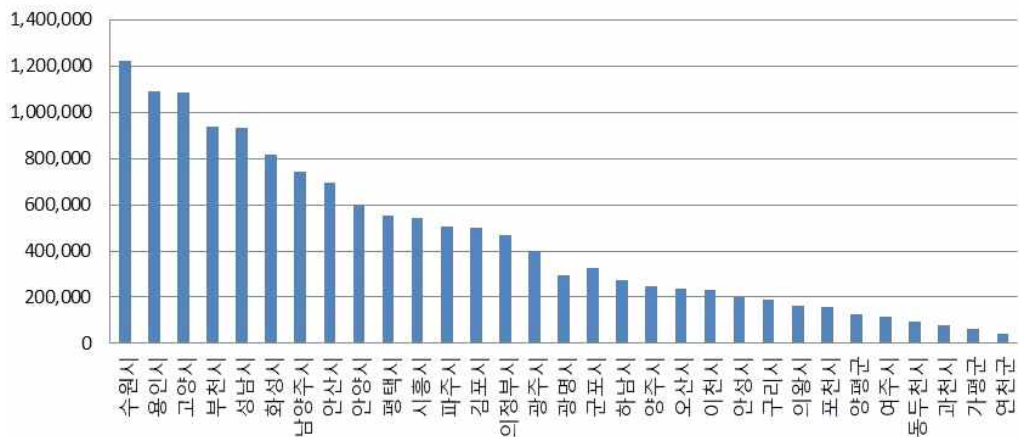
제3절 수원시 문화예술교육 정책 자원

제1절

수원시 인구 및 교육자원

1. 수원시 인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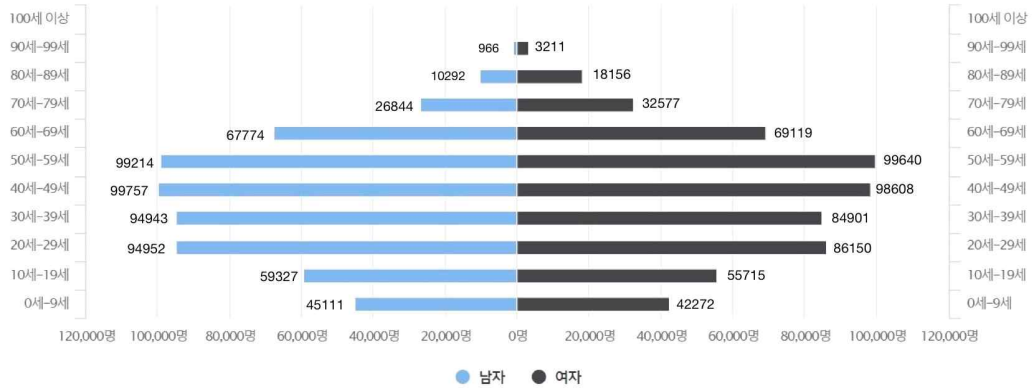
- 수원시 주민등록 인구는 2022년 10월 기준 1,222,892으로 내국인 1,189,654명, 외국인 33,238명, 세대수는 527,950개임
- 경기도 전체 인구는 13,943,381명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수원시 인구가 120만 명을 넘어 가장 많으며, 이어서 용인시 1,093,496명, 고양시 1,086,022명, 부천시 936,510명, 성남시 934,788명 순임



자료원 : 경기통계 (2022.10), 시군별 세대 및 인구

[그림 2-1] 경기도 시군별 인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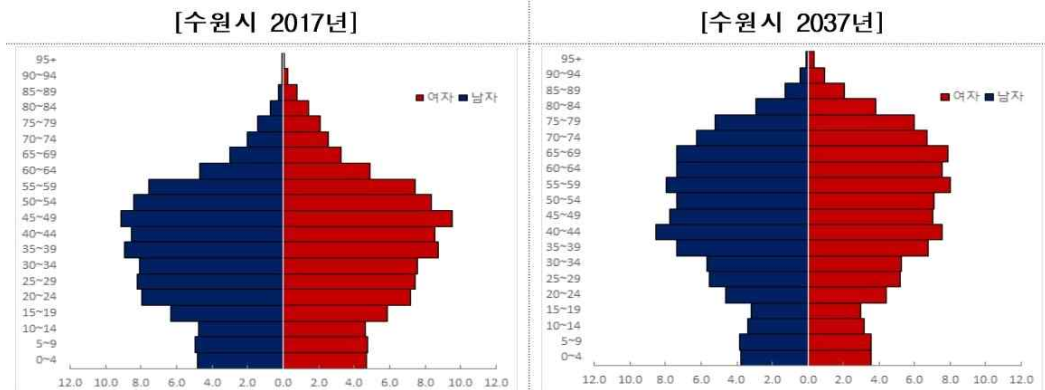
- 경기도 평균연령은 2022년 10월 기준 42.3세로 행정구역 17개 가운데 세종특별자치시 다음으로 가장 평균연령이 낮으며, 수원시 평균연령은 2022년 10월 기준 41.1세로 경기도 평균연령 42.3세보다 낮은 편에 속함
- 수원시 연령별 남녀 인구 현황은 2022년 10월 기준 90~99세에 남성 966명, 여성 3,211명으로 가장 적은 인구수를 보이고 있으며, 가장 많은 인구수는 남성 40~49세 99,757명, 여성 50~59세 99,640명으로 나타남
- 수원시 연령별 남녀 인구 현황을 보면 남녀 모두 중간 연령층인 20~59세에 가장 많은 항아리형 구조를 보이고 있음



자료원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그림 2-2] 수원시 남녀 연령별 인구

- 경기도 시군별 장래인구 특별추계(2017~2037)에 따르면 수원시 인구는 2017년 1,212,605명에서 2037년 1,297,378명으로 경기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
- 인구 피라미드 2017년 중간 연령층이 넓게 분포한 항아리형에서 2037년 역삼각형의 소산소사형(小産小死形) 구조로 변화



자료원 : 경기도 (2020), 경기도 시군별 장래인구 특별추계(2017~2037)

[그림 2-3] 2017년 및 2037년 수원시 인구 피라미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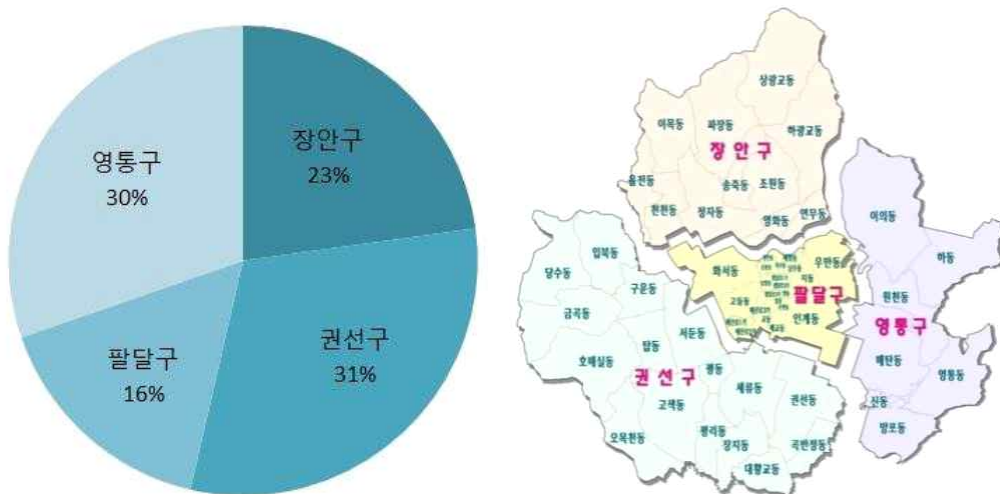
- 수원시 다문화가구 및 가구원 수는 2021년 기준 26,474명으로 세대 수는 9,934개 임. 수원시 다문화 가구 세대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자료원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그림 2-4] 수원시 다문화가구 및 가구원 연도별 추이

- 수원시 행정구역(시군구)별 인구수는 2022년 10월 기준 장안구 271,305명, 권선구 366,453명, 팔달구 191,423명, 영통구 360,473명으로 권선구, 영통구, 장안구, 팔달구 순으로 인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자료원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그림 2-5] 수원시 행정구역별 인구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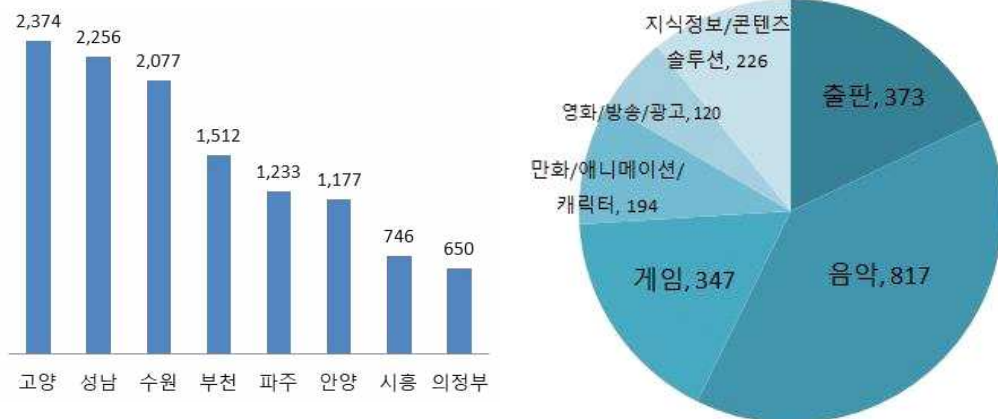
- 수원시는 인구수에 비해 면적이 121.01km²로 특례시 중 가장 작으며 고양시 268km², 용인시 591km²와 비교해도 면적이 매우 작은 편임. 1번 국도를 기준으로 동수원, 서수원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동수원은 대규모 택지지구 영통, 광고 등이 위치해 있으나 서수원은 반 이상이 농지로 개발이 어려움
- 「2030 수원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수원시를 기능과 생활권에 따라 다섯 개의 권역으로 구분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를 계획함.¹²⁾ 계획에 따르면 수도권 광역전철망

에 따라 수원시 지역 특성과 기능에 따른 개발을 계획함. 수원·화성지역은 수원의 중심 지역으로 역사·문화·관광 기능을 부여하고 광교산 지역은 생태와 친환경 기능, 서수원지역의 경우 향후 수원 비행장 이전에 대비하여 첨단환경산업 및 신성장동력산업 기능으로 구분함

<표 2-1> 2030 수원 도시기본계획 수도권 광역전철망 구상

구분	주요 기능	개발구상도
역사문화 관광산업	수원의 중심 지역으로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이 입지하고 있어 역사·문화·관광 산업기능 부여	
지식기반 융복합사업	수원 삼성디지털연구소 등을 기반으로 한 지식기반 융·복합산업 기능 부여	
첨단 환경산업	R&D중심의 첨단환경산업육성, 서호·여기산·공공기관 종전부지 등을 활용한 도시농업 육성	
신성장 동력산업	수원산업단지, 수인선 복원 및 역세권 개발, 수원 비행장 이전 등에 대비한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생태·친환경	환경보전 및 이용현황을 고려하여 생태환경기능 부여	

- 경기도 내 콘텐츠 산업 사업체 수는 2019년 기준 21,513개로 고양시, 성남시에 이어 수원시에 가장 많은 콘텐츠 산업 사업체가 있음. 수원시에서 운영 중인 콘텐츠 산업 사업체 장르는 음악이 817개로 가장 많고 출판 373개, 게임 347개, 그 외 지식정보/콘텐츠 솔루션, 만화/애니메이션/캐릭터, 영화/방송/광고 순임



자료원 : 경기통계 (2019). 콘텐츠산업 사업체수

[그림 2-6] 경기도 시군별 콘텐츠산업 사업체 현황(좌) 및 수원시 콘텐츠산업 장르 현황(우)

12) 수원시 (2019), 203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2. 수원시 학교 및 학교문화예술교육 현황

가. 교육인구 현황

- 2022년 기준 수원시 소재 388개 학교 재학생은 총 147,350명이며 교원은 11,625명임

<표 2-2> 수원시 교육인구 수¹³⁾

구분	학교 수	학급 수	학생 수	교원 수
유치원	184	845	14,097	1,310
초등학교	99	2,709	65,040	4,084
중학교	57	1,179	33,483	2,576
고등학교	44	1,441	34,100	3,448
특수학교	3	85	456	193
평생교육시설	1	8	174	14
합계	388	6,267	147,350	11,625

- 다문화 가정 학생 수는 초등학교에서 16%라는 높은 수치를 보임
 - 수원시가 속한 경기도는 전국에서 다문화가정 학생의 수가 가장 많은 광역자치체이며 일부 지역에서 '다문화 특별학급'을 운영 중임

<표 2-3> 수원시 초중고 다문화 학생 수 비교

구분	다문화 학생	일반 학생	비율
초등학교	2,292	14,097	16.3%
중학교	608	65,040	0.9%
고등학교	277	33,483	0.8%
합계	3,177	146,720	2.2%(평균)

나. 여건별 교육 지표 현황

13) 수원시 교육지원청 학교 개황

■ 수원시 학교당 평균 학급수와 평균 학생 수는 높은 편에 속함

- 2016년 개교한 망포초등학교의 경우 60개가 넘는 학급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경기도교육청의 적정학급 기준(초등 36개 학급 및 중고교 24개 학급)을 크게 웃도는 수준임
- 신도시 조성 과 택지개발로 인한 인구 유입이 학교 과밀화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전국적인 학령인구 감소 추세로 인해 교육부의 학교 설립 인가가 쉽게 나지 않는 것 또한 원인이며, 이에 인구유입이 활발한 수도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표 2-4> 학급 및 학생수 비교

구분	학교 당 평균 학급수	학교당 평균 학생 수	교원 1인당 학생 수
초등학교	26.8	552.2	16
중학교	20.1	595.6	14
고등학교	20.6	608.9	14
평균	22.5	585.5	14.6

■ 과밀학급 비중 또한 전국 대비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 수원시가 위치한 경기도는 전국 과밀 학급의 과반수가 모여있으며, 수원시 영통구는 2014년 기준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학급 당 학생 수를 기록한 바 있음¹⁴⁾

<표 2-5> 학급당 학생수 상위 10개 지역(2020)

경기 화성시	경기 오산시	경기 용인시	경기 김포시	경기 광주시
27.4명	26.9명	26.9명	26.9명	26.3명
경기 하남시	서울 강남구	경기 남양주시	경기 수원시	충남 천안시
26.3명	26.3명	26.2명	26.1명	26.1명

■ 저출산 등의 이유로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실질적인 교육여

14) 신기섭(2015. 3. 31). 경기 도시지역, 과밀 학급 가장 많아.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84765.html)

건은 개선될 여지가 있음. 그러나 신도시 개발로 인한 지속적인 인구 유입을 고려해보았을 때 학생 수 변동 폭은 타 지역 대비 적을 것으로 예상

<표 2-6> 학생 수 변동 추이¹⁵⁾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유치원	20,801	20,185	18,404	17,358	15,710
초등학교	68,095	69,067	69,546	67,474	65,671
중학교	35,233	34,082	32,726	33,013	33,954
고등학교	44,638	41,532	38,211	36,338	35,247
합계	224,094	224,667	222,124	210,498	201,737
전년대비 증감률	-0.8% (-1697명)	0.3% (+573명)	-1.1% (-2,543명)	-5.2% (-11,626명)	-4.2% (-8761명)

다. 학교문화예술교육 운영 현황

- 수원시 학교문화예술교육은 보편적, 일상적인 학교 예술교육의 내실화와 학교 교육과정 중심의 예술교육 강화를 목표로 함
- 2021년 시행된 수원시 학교문화예술교육 사업 주체는 수원시청, 수원교육지원청, 경기도교육청, 교육부, 문체부 등으로 다양하며 지원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2-7> 2021 수원시 학교문화예술교육 운영 현황

사업명	사업 주체	주요 내용	예산 (단위: 천원)
악기교육 지원사업	수원시청	1인 1악기 뮤직스쿨 기존 및 신규: 35개교	교당 4,000
예술강사 지원사업	문체부, 교육부, 경기도교육청	예술강사 배치, 교육기자재 지원 국악, 연극, 영화, 무용, 사진, 디자인, 만화애니메이션(8개분야, 110개교)	강사비 전액 지원
학교예술교육 지원사업	교육부, 경기도교육청	예술중점학교(매탄고, 수원여고)	매탄고 66,000 수원여고 88,000
		예술드림거점학교(총 5교) 신평초, 칠보중, 매원중, 울전중, 수원공고	교당 15,000
학교예술교육 활성화사업	경기도교육청	학생오케스트라(수원중춘초, 고색고) 학생 뮤지컬(천천고)	교당 10,000 교당 4,000

15) 통계청 학교 총 개황(「경기도수원시기본통계」 재구성)

		연극동아리(숙지고, 울천고) 미술동아리(수원선일초, 광고고, 천천고) 자생오케스트라(효정초, 수원중) 꿈이음아트(정천중) 예술공감터(12개교) 국악동아리(동수원중)	교당 4,000 교당 4,000 교당 5,000 교당 7,000 교당 4,500 교당 4,500
학교예술 동아리 운영	수원교육지원청	교육과정 내 동아리 자율동아리	학교예산
마을연계 학생어울림한 마당	수원교육지원청	마을연계 지원협의체 구성 마을연계학교예술축제 지원 음악분야 공연, 미술분야 전시 2021 비대면 행사 진행 예정	14,580

■ 학교 문화예술교육 사업 추진상의 어려움이 존재함

- 사업이 지역 규모(학교수)에 비례하지 않고 지역 간 균등하게 지원되는 한계
-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역 예술단체 간 네트워크 교류 부족
- 학교문화예술교육 사업에 대한 담당 교사 업무 부담 증가
- 온라인 예술 활동 진행에 따른 운영 예산과 인식 부족

■ 학교문화예술교육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요구가 제기되고 있음

- 지역 예술단체 연계 학교예술강사 지원방안
- 학교 예술활동에 대한 온라인 교육 가능성
- 학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안
 - 비대면 운영방안, 세부 프로그램 고도화, 업무 담당자 간 네트워크 구축 등

제2절

수원시 문화예술 자원

1. 수원시 문화기반시설

가. 문화기반시설

■ 문화기반시설 현황

- 「2021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에 따르면 수원시 내 문화기반시설은 문화재단 및 도서관을 제외하고 2021년도 기준 총 16개로, 크게 지방문화원, 문예회관, 생활문화센터, 박물관, 미술관으로 구분됨

<표 2-8> 수원시 문화기반시설 총괄표 (2021.1.1. 기준)

시·군·구	합계	문화원	문예회관	생활문화센터	박물관				미술관				문화의 집
					계	국공립	사립	대학	계	국공립	사립	대학	
수원시	16	1	3	3	7	4	1	2	2	1	1		

■ 수원시 문화원, 박물관, 미술관

- 수원시에는 1개의 문화원, 7개의 국공립, 사립, 대학 박물관, 2개의 국공립, 사립 미술관이 있으며 문화의 집은 없음. 각 시설 관련 현황과 문화예술교육 현황은 제3장에서 자세히 살펴봄

■ 수원시 문예회관

<표 2-9> 수원시 문예회관 목록

시군구	건립 주체	시설명	운영 주체	
			운영기관명	운영기관 성격
수원시	광역자치단체	경기아트센터	(재)경기아트센터	공공기관 위탁
	민간기업	수원SK아트리움	(재)수원문화재단	공공기관 위탁
	기초자치단체	수원시민회관	수원문화원	민간기관 위탁

- 「2021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에 따르면 수원시 내 문예회관은 총 3개 시설 운영 중임. 수원문화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설은 공공기관에서 위탁 운영함
- 재단법인 경기아트센터는 1991년 개관 이후 2004년 재단법인으로 출범, 보다 전문적인 복합예술공간으로 자리매김함. ‘경기극단, 경기도무용단,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경기팝스앙상블’과 같은 5개의 전속 예술단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장르의 공연예술을 기획 및 유통하고 있음. 더불어 문화돌봄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도민참여 프로그램도 운영 중임
- 수원 SK아트리움은 2014년에 개관한 복합형 전문공연장으로, 양질의 공연과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적극적인 시민 소통과 예술가·관객·공연장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창의적 예술 공간 조성을 이어감
- 수원시민회관은 1962년에 건립되어 시민회관을 시민이 활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458석의 실내 공연장을 비롯한 부속 시설물을 이용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시민주도 문화예술 행사 권장함. 더불어 중앙예술단체와 협조하여 공연 유치 추진
- 문예회관은 공연 운영과 대관 기능에 중심을 두고 있어 문화예술교육 공간 및 예산, 프로그램은 거의 없는 상황임

■ 수원시 생활문화센터

<표 2-10> 수원시 생활문화센터 목록

소재지	생활문화센터명	운영방식	운영 주체	공간 유형
수원시	수원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수원문화원	기존
	지동 창룡마을 창작센터	직영	시청	유휴
	경기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경기문화재단	유휴

- 문화예술동아리 활동 지원 중심의 생활문화센터는 수원시 내 총 3개가 운영 중임
- 수원 생활문화센터는 지역 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생활문화공간으로 생활문화를 통한 문화가 있는 삶을 실현하기 위해 2015년 개관함. 지역문화공동체를 형성을 위한 다양한 문화공간이 조성되어 있음

- 지동 창룡마을 창작센터는 2016년에 개관한 생활문화센터로 주민공동체 공간, 공구 도서관, 공동체 공방 등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개방됨
- 경기 생활문화센터 '생생1900'은 「지역문화진흥법」에 의거한 경기문화재단 조성 생활문화시설로, 경기상상캠퍼스 내에 위치함. 다양한 생활문화동호회와 공동체, 지역장인,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임.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사업과 축제나 포럼과 같은 행사 활성화, 센터 소속 생활문화 동호회 지원 등이 운영 중임
- 생활문화센터는 동호회, 마을 커뮤니티 등의 지원을 위한 시민 개방 공간으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보다는 생활예술 프로그램에 특화 되어 있음

2. 문화도시 수원시 문화재 및 축제

가. 수원시 문화유산

- 문화재청에 따르면 수원시 문화유산 현황은 국가지정 문화재 28개, 도지정 문화재 42개, 향토유적 20개로 확인됨

<표 2-11> 수원시 문화유산 현황

계	국가지정 문화재			도지정 문화재				향토유적
	28			42				20
90	보물	국가민속 문화재	국가등록 문화재	시도 무형 문화재	시도 유형 문화재	시도 기념물	시도 등록 문화재	
	19	2	7	3	27	10	2	

■ 주요문화유산: 수원 화성(水原 華城)

- 수원 화성(水原 華城)은 조선후기 화성유수부 시가지를 둘러싼 성곽으로 정조(正祖)시대 18년인 1794년 축성을 시작해 1796년에 완성함.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3호인 수원 화성의 전체 길이는 5.74km에 달하며 4개의 성문과 5개의 암문(暗門), 2개의 수문(水門), 2개의 은구(銀鉤), 군사지휘소인 2개의 장대(將臺), 2개의 노대(弩臺), 3개의 공심돈(空心墩), 요충지에 세운 4개의 각루(角樓), 5개의 대포를 둔 포루(砲樓), 1개의 봉돈(烽墩), 8개의 치(雉), 3개의 포사(鋪舍), 용도(甬道)

등을 갖추

- 축성의 모든 과정을 담은 공사 보고서 화성성역의궤 에 따르면 화성은 지형을 살려 쌓는 조선의 축성 전통을 따르면서도, 새로운 방어시설을 도입한 성곽임. 중국 성제의 장점을 종합하고, 일부 중요 방어시설을 벽돌로 쌓은 점, 녹로(轆轤), 거중기(擧重機) 등의 과학기기를 활용하고 용재를 규격화한 점과 화포를 주 무기로 삼는 방어 구조가 특징적임.
- 1997년 12월 6일 제21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 주요문화유산: 수원 화성행궁(水原 華城行宮)

- 수원 화성행궁(水原 華城行宮)은 1789년(정조 13) 수원읍(水原市)을 화성시(華城市) 안녕면(安寧面) 일대에서 팔달산(八達山) 아래로 이전하면서 관청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립됨. 1789년 사도세자의 묘소 현릉원(顯隆園)을 수원부 읍치 자리로 천봉한 이후 1800년 1월부터 13차례 현릉원을 방문할 때마다 수원 화성행궁에 머무름
-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478호인 수원 화성행궁은 일제시기 이후 갖가지 용도의 건물로 이용되면서 그 모습을 잃었지만, 1996년부터 복원공사를 시작하여 2003년 일반인에게 공개됨

나. 수원시 축제

- 수원시 대표적 문화유산 축제는 수원화성문화제, 정조대왕능행차 공동재현, 세계유산축전 수원화성, 수원화성 미디어아트쇼, 수원문화재 야행 등이 있음
- 연극, 음악, 무용과 관련된 대표적인 수원시 축제로는 ‘수원연극축제, 수원재즈페스티벌, 수원발레축제’가 있음

<표 2-12> 수원시 축제 목록

행사명	주최	주관	비고
수원화성문화제	수원시	수원화성문화제 추진위원회, 수원문화재단	추계행사
정조대왕능행차 공동재현	수원시	수원문화재단	추계행사
세계유산축전 수원화성	수원시, 문화재청	수원문화재단, 한국문화재단	추계행사

수원화성 미디어아트쇼	문화재청, 수원시	수원문화재단	추계행사
수원 문화재 야행	수원시, 문화재청	수원문화재단	하계행사
수원연극축제	수원시	수원문화재단	춘계행사
수원재즈페스티벌	수원시	수원문화재단	추계행사
수원발레축제	수원시	발레STP협동조합, 수원발레축제조직위원회	하계행사

다. 법정문화도시 수원시

■ 법정문화도시 선정

- 2021년 수원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심의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제3차 법정문화도시로 선정됨. 법정문화도시 지정은 「지역문화진흥법(제15조)」에 따라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 창조력을 강화하기 위함임
 - 「지역문화진흥법(제15조)」: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도시의 지정과 관련된 조항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야별로 문화도시를 지정할 수 있음
- 2020.12.24 제3차 예비문화도시 선정 이후 1년간 추진한 예비문화도시 사업 결과, 문화도시 추진기반 확보, 문화도시 추진 효과 및 가능성, 문화를 통한 균형발전 견인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되어 선정됨
- 문화도시는 2022~2026년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며 5년간 최대 국비 100억 원, 사업 과정 전반 자문을 지원받음
- 수원시가 설정한 법정문화도시 정책 비전, 정책 목표, 추진 방향은 다음과 같음
 - 정책 비전: 문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및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 확산
 - 정책 목표:
 - ① 지역사회 주도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 ② 문화의 창의성을 활용한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구축
 - ③ 지역 고유의 문화가치 증진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
 - ④ 문화적 도시재생과 접목한 사회혁신 제고

- 추진 방향:

- ① 대규모 시설조성계획이 아닌 지역문화발전 종합계획으로 추진
- ② 중앙·관 주도에서 지역중심·시민주도형 도시문화 거버넌스로 추진
- ③ 효과적 추진체계의 구축과 컨설팅 지원

■ 문화도시센터 설립

- 2020년 12월 제3차 예비문화도시 선정 이후 수원시는 문화도시 조성사업 운영을 목적으로 2021년 3월 문화도시센터를 설립함.

- 수원시 문화도시센터는 주요 거점 공간을 기반으로 문화, 도시, 시민을 연결 지어 다양한 연계·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시민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인문기반 활동을 통해 실천적 문제해결이 가능하도록 지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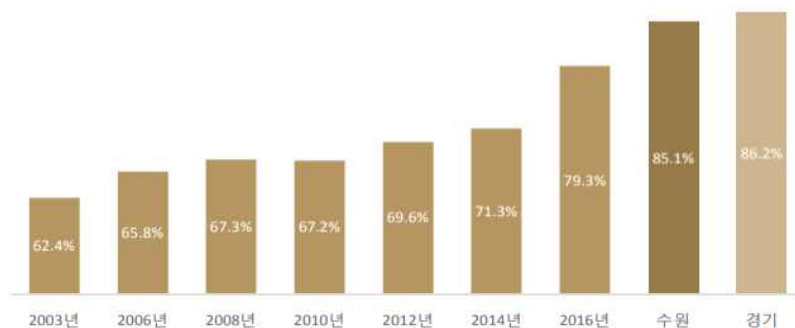
3. 수원시민 문화향수 실태

- 수원시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인구 500명을 대상으로 한 「2017 수원문화향수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수원시민의 문화향수 특성을 분석함

■ 문화예술행사 관람

1)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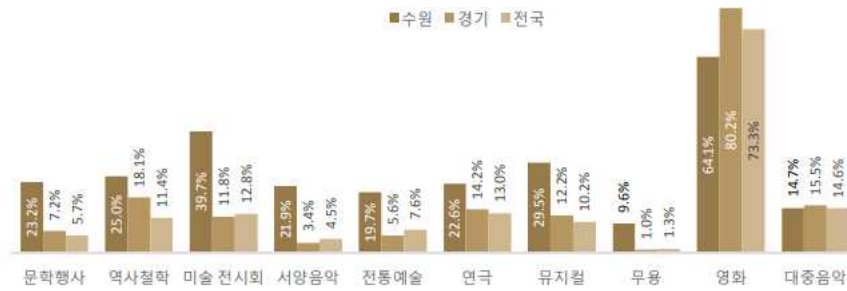
- 「2017 수원문화향수 실태조사」에 따르면 역사, 철학 관련 강의 및 유적지 탐방을 포함한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추이는 2003~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함. 수원시의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은 2017년도 기준 85.1%로 경기지역 관람률 86.2%보다 1.1% 낮았음



[그림 2-7]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추이

2) 분야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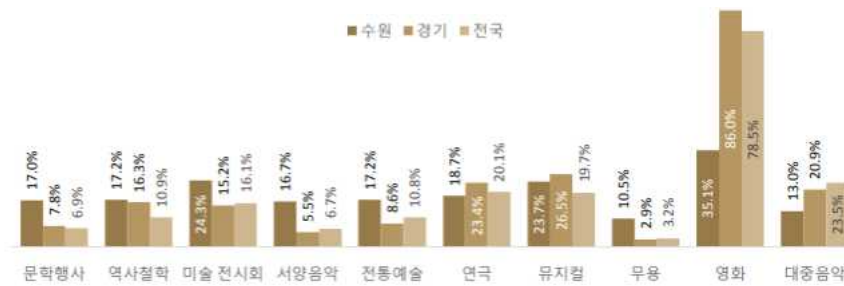
- 수원시 문화예술행사 분야별 관람률은 전체적으로 전국, 경기 지역에 비해 높았음. 특히 미술 분야는 39.7%로 타 지역에 비해 높았던 반면, 영화의 경우 64.1%로 전국(73.3%), 경기(80.2%)에 비해 낮은 편임



[그림 2-8] 분야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3) 분야별 문화예술행사 관람 의향

- 수원시 시민의 분야별 문화예술행사 관람의향은 연극, 뮤지컬, 영화, 대중음악 및 연예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높은 편에 속함. 특히 미술 전시회(사진, 서예, 미디어아트, 건축, 디자인 포함)의 경우 24.3%로 전국(16.1%), 경기(15.2%)보다 높은 반면, 영화는 35.1%로 전국(78.5%)과 경기(86%)에 비해 낮은 편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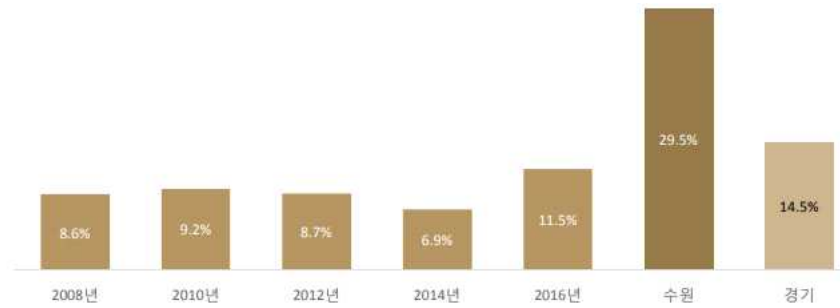
[그림 2-9] 분야별 문화예술행사 관람의향

■ 문화예술교육 참여

1) 문화예술교육 참여율

- 역사, 철학 관련 강의 및 유적지 탐방을 포함한 수원시의 문화예술교육 참여율은

2017년도 기준 29.5%로 2016년 전국 11.5%, 경기 14.5%보다 높은 편이었음



[그림 2-10] 문화예술교육 참여율 추이

2) 분야별 문화예술교육 참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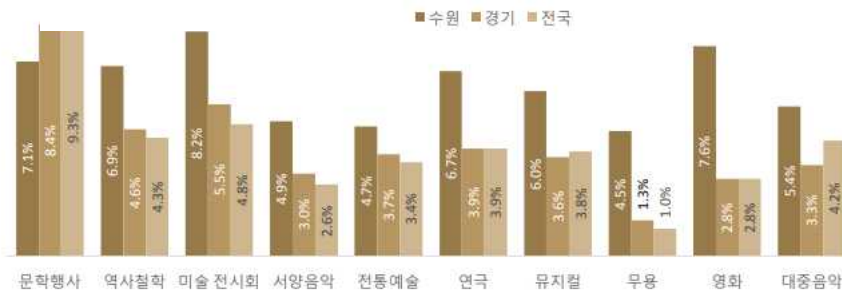
- 수원시의 분야별 문화예술교육 참여율은 전반적으로 전국, 경기 지역에 비해 높은 편이었음. 특히 영화 분야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참여 비율이 14.1%로 가장 높음



[그림 2-11] 분야별 문화예술교육 참여율

3) 분야별 문화예술교육 참여 의향

- 수원시의 분야별 문화예술교육 참여 의향은 미술 전시회 관련 교육이 8.2%로 가장 높았고, 영화(7.6%) > 문학행사(7.1%) > 역사철학(6.9%) > 연극(6.7%) 순으로 참여 의향이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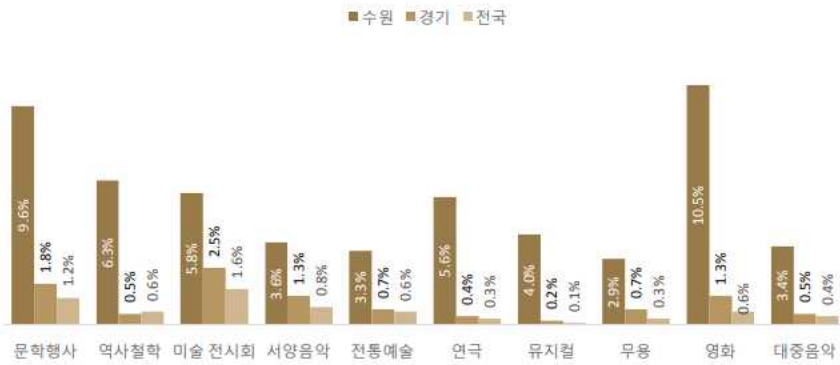


[그림 2-12] 분야별 문화예술교육 참여 의향

■ 문화예술활동(동호회) 참여

1) 문화예술활동(동호회) 참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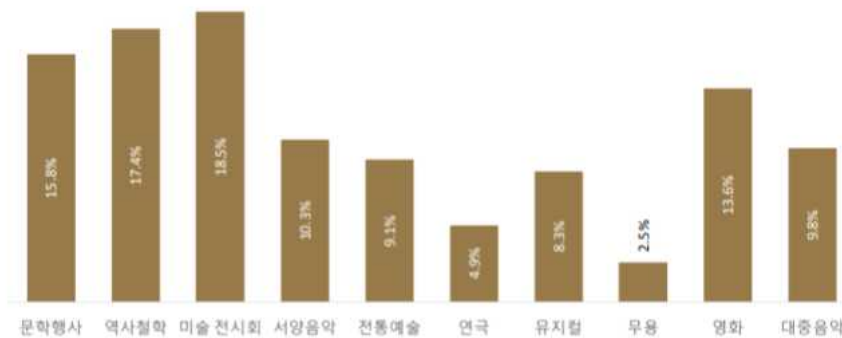
- 수원시의 문화예술활동(동호회) 참여율은 2017년도 기준 25.5%로, 분야별 문화 예술활동 참여율로 영화 분야가 10.5%로 가장 높았음. 역사, 철학 관련 강의 및 유적지 탐방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문화예술활동(동호회) 참여율은 높은 편



[그림 2-13] 분야별 문화예술활동(동호회) 참여율

2) 분야별 문화예술활동(동호회) 관심 분야

- 수원시 시민의 문화예술활동 관심 분야는 미술 전시회 관련이 18.5%로 가장 높았으며, 역사, 철학 관련 강의 및 유적지 탐방(17.4%) > 문학행사(15.8%) > 영화 (13.6%) > 서양음악(10.3%)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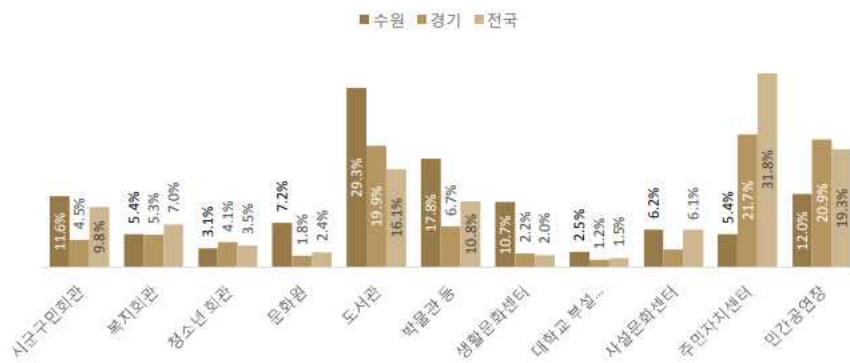


[그림 2-14] 분야별 문화예술활동(동호회) 관심 분야

■ 문화예술시설 이용

1) 문화예술시설 이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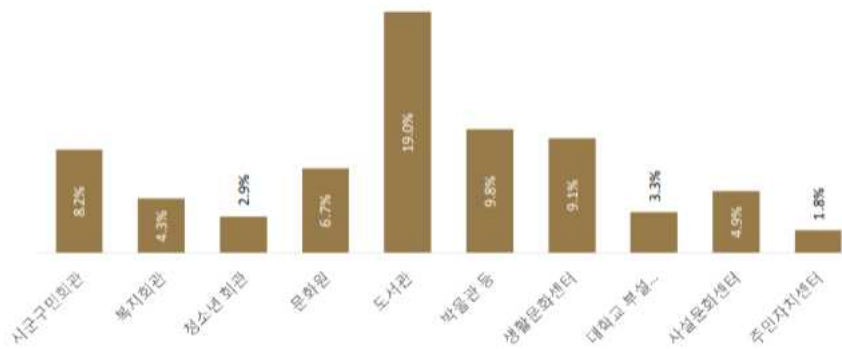
- 수원시의 문화예술시설 이용률은 50.0%로 도서관을 제외하고는 박물관, 미술관, 전시관, 레지던스 관련 문화예술시설 이용률이 17.8%로 가장 높음. 주민자치센터 (5.4%)와 민간공연장(12.0%)를 제외하고, 전반적인 문화예술시설 이용률이 높음



[그림 2-15] 유형별 문화예술시설 이용률

2) 문화예술시설 이용 의향

- 수원시민의 유형별 문화예술시설 이용 의향은 도서관은 제외하고 박물관, 미술관, 전시관, 레지던스(9.8%) > 생활문화센터(9.1%) > 시·군·구민회관(8.2%) 순임



[그림 2-16] 유형별 문화예술시설 이용 의향

■ 역사문화유적지 및 축제

1) 역사문화유적지 방문 여부 및 유형별 방문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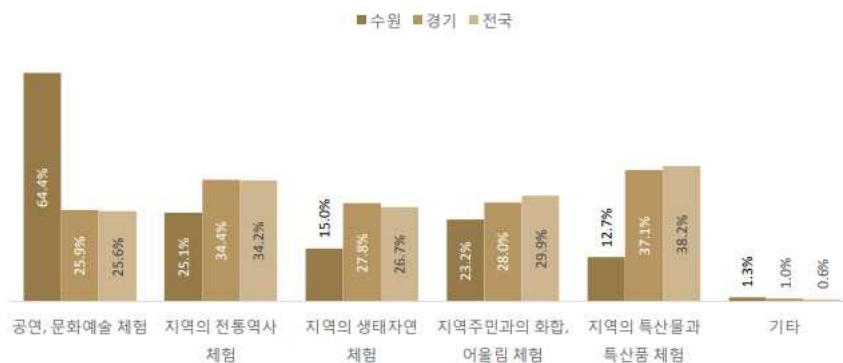
- 2017년도 1년간 수원시에서 역사문화유적지를 방문한 사람은 77.2%(552명 중 426명)이었음. 방문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역사문화유적지 방문율은 성곽이 73.9%로 가장 높았고, 성곽을 제외한 대부분의 역사문화유적지의 방문율은 전국, 경기도에 비해 낮았음



[그림 2-17] 역사문화유적지 유형별 방문율

2) 수원시 축제 방문 여부 및 유형별 방문율

- 2017년도 1년간 수원시 축제에 참여한 비율은 68.7%(552명 중 379명)으로, 방문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유형별 축제 참여율은 공연, 문화예술 체험(64.4%) > 지역의 전통역사 체험(25.1%) > 지역 주민과의 화합, 어울림 체험(23.2%) 순으로 높았음. 반면 지역의 특산물과 특산품 체험 관련 축제 비율은 12.7%로 낮은 편임



[그림 2-18] 수원시 축제 참여율

■ 수원시민의 문화예술 참여 및 관람 의향

- 수원시민들은 타 지역보다 다양한 문화를 향유함. 분야별 관람률은 영화 분야를 제외하고는 전국 및 경기도에 비해 높은 편임
- 1인 평균 관람 분야 또한 수원 2.70개, 전국 1.54개, 경기 1.69개로 타 지역에 비해 다양한 분야의 문화예술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음
- 1인 평균 문화예술분야 관람 의향의 경우 수원은 1.93개, 전국 1.96개, 경기 2.13개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나, 분야별 비율을 살펴보면 35.1%를 차지하는 영화를 제외하고 다른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의 관람 의향을 보임

<표 2-13> 분야별 문화예술행사 참여율 및 관람 의향

(단위: %, n=552)

구분	관람률			관람 의향		
	수원	경기	전국	수원	경기	전국
문학행사	23.2	7.2	5.7	17.0	7.8	6.9
역사철학	25.0	18.1	11.4	17.2	16.3	10.9
미술 전시회	39.7	11.8	12.8	24.3	15.2	16.1
서양음악	21.9	3.4	4.5	16.7	5.5	6.7
전통예술	19.7	5.6	7.6	17.2	8.6	10.8
연극	22.6	14.2	13.0	18.7	23.4	20.1
뮤지컬	29.5	12.2	10.2	23.7	26.5	19.7
무용	9.6	1.0	1.3	10.5	2.9	3.2
영화	64.1	80.2	73.3	35.1	86.0	78.5
대중음악	14.7	15.5	14.6	13.0	20.9	23.5
합계	270.0	169.2	154.4	193.4	213.1	196.4

■ 수원시민의 문화예술향유 특성

- 「2017 수원문화향수 실태조사」내 문화예술교육 및 활동 참여율 조사결과에 따르면 수원시민들은 문화예술 관람을 넘어 배움과 참여의 영역으로 넘어가려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남
-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은 85.1%로 경기 86.2%보다는 낮은 반면, 문화예술교육과 동호회 활동의 참여비율은 각각 29.5%, 25.5%로 전국, 경기 지역에 비해 높은 편이었음

<표 2-14> 문화예술교육 및 활동 참여율

(단위: %, n=552)

구분	수원	2016 문화향수실태조사	
		경기	전국
행사 관람률	85.1	86.2	79.3
교육 참여율	29.5	14.5	11.5
활동 참여율	25.5	8.4	5.5

- 즉 수원시민은 문화예술관람과 통해 예술에 접근하고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문화 예술의 수동적 관람과 소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 직접적인 생활예술인이자 주체로서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고 생산하는 것을 지향하는 것으로 분석됨

1. 수원시 문화예술교육 조례 현황

가. 수원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조례

- 2021년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의거, 수원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조례가 제정, 시행됨
 - 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제정하는 자주법의 일종으로 지방자치단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해 제정하는 자치 규범을 말함
 - 조례는 실정에 맞춘 규제와 시책을 가능하게 하는 지역진흥 수단이자 자치행정의 방향성에 대한 근거 및 지침, 행정의 계속성 유지, 국가 법제의 종합, 보완, 선도, 호소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함¹⁶⁾
 - 조례는 법률의 부재, 입법의 지연, 사회적 현실과 규범의 괴리를 제거하는 조정기능에 있어 법률보다 신축적이고 탄력성 있는 현실 적합성을 지님¹⁷⁾
 -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을 위한 노력은 조례를 통해 제도화되고 정책구현을 뒷받침함. 이처럼 조례가 지역주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할 수 있음¹⁸⁾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5조 2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라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지시하고 있음
 - 2021년 8월 13일 이병숙 의원 외 30인의 발의로 「수원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조례」가 제정됨
 - 수원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 및 수원시 문화 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문화예술교육의 지향점, 시민의 권리, 지역거점 구축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16)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09). 조례입법권의 실효성 확대 방안

17) 조성규(2013). 사회보장법제에 있어 조례의 역할과 한계. 한국지방자치법학회.

18)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09). 조례입법권의 실효성 확대 방안

-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서 문화예술교육 관련 조례가 제정된 4곳 중 가장 최근에 제정된 조례임
- 문화예술교육이라는 세부 분야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한 조례로, 이 조례의 제정 전에는 「수원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서 관련 내용을 다루었음
 - 「수원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의 경우, 지역 문화예술진흥 및 지원을 위한 사업, 사무, 운영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어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나 구체적인 지시는 찾아볼 수 없다는 한계가 존재하였음

■ 조례의 구성과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제1조~제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타 조례와의 관계에 대해 규정함
- 제4조~제7조에서는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기본원칙, 시장의 책무, 교육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에 대해 규정함
-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수원시 문화예술교육 관련 지역거점 구축 및 지도감독에 대해 규정함

<표 2-15> 수원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구성

조항	구분	내용
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따라 수원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수원시 문화 역량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교육”이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문화예술교육시설”이란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문화예술교육단체”란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4.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이란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외에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진행·분석·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조	기본 원칙	① 문화예술교육은 모든 시민의 문화 참여 및 예술 창작의 권리를 보장하여 문화다양성과 문화향유의 증진, 예술의 창조력 함양, 민주시민으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을 지향한다. ② 모든 시민은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

		건,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관심과 적성에 따라 평생에 걸쳐 문화예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 받는다.
5조	시장의 책무	<p>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원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p> <p>② 시장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문화예술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p> <p>③ 시장은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 균등한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보장하여 문화예술에 대한 소질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p>
6조	문화예술교육 지원	시장은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교육시설 또는 문화예술교육단체 등이 수행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7조	전문 인력 양성	<p>시장은 문화예술교육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2.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의 역량강화교육 3.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8조	지역거점 구축	<p>① 시장은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기반한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거점을 구축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지역거점 구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자원 및 수요 조사 2. 문화예술교육 협력체계 구축 3. 문화예술교육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4. 지역 특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시설 확충 및 유휴공간 발굴 6.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p>③ 시장은 지역거점 구축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이를 문화예술교육 또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p>④ 제3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p>
9조	지도감독	<p>① 시장은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하여 예산이 지원된 경우에는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한다.</p> <p>② 예산을 교부받은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은 시장이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시장은 문화예술교육 관련 지원예산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p>

나. 광역/기초 지자체 조례 비교 분석

■ 문화예술교육 관련 광역단위 조례는 2009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2022년 현재 14곳의 광역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음

- 조례가 제정된 광역지자체는 총 14곳임(서울, 부산, 대구, 광주,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광역지자체는 총 3곳임(인천, 대전, 울산)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 제정된 2005년 12월 29일을 기준으로 조례 제정까지 소요된 시간은 경기가 48개월로 가장 빠르며 가장 늦게 제정된 서울은 173개월이 소요되었음¹⁹⁾
- 법률 공포로부터 조례 제정까지의 소요기간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기본 인식과 실행 의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음

<표 2-16> 광역단위 문화예술교육 조례 제정 현황

구분	조례명	제정일	개정일
서울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교육지원 조례	2020. 05. 19.	-
부산	부산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2016. 08. 03.	-
대구	대구광역시 문화예술교육지원	2019. 08. 12.	-
광주	광주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2017. 11. 15.	2018. 07. 24. (일부개정)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2019. 07. 19.	-
경기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2009. 12. 31.	2010. 11. 08. 2011. 06. 02. 2012. 05. 11. 2015. 03. 31. 2015. 04. 30. 2016. 11. 08. 2017. 09. 29. 2018. 10. 01. (일부개정)
강원	강원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2018. 12. 28.	2019. 11. 08.
충북	충청북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2013. 05. 10.	2020. 09. 29.
충남	충청남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2019. 02. 20.	-

19) 황윤동, 오세곤(2020).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 주요법률 기본조례 제정 및 책무 이행 실태 분석.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39-2

전북	전라북도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2019. 06. 07.	
전남	전라남도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2016. 07. 07.	
경북	경상북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2017. 12. 28.	
경남	경상남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2019. 08. 01.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2011. 06. 29.	2016. 05. 13. 2016. 11. 23. (일부 개정)

■ 문화예술교육 관련 기초 단위 조례는 2016년 성남시를 시작으로, 2022년 현재 12곳의 기초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음

- 조례가 제정된 기초지자체는 총 12곳임(부산 중구, 인천 서구, 고양, 구리, 성남, 수원, 춘천, 전주, 목포, 김해, 진주, 창원).
 - 경기도 광명시의 「광명시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13년 제정된 바 있으나 지원센터에 한정된 내용을 담고 있어 제외하고 집계하였음
- 지역별로 경기도 산하의 기초자치단체가 4곳으로 가장 많은 수를 보이고 있으며 대구, 광주, 세종, 울산, 충북, 충남, 경북, 제주 산하의 기초 단위 조례는 제정되어 있지 않음
 - 2022년, 기초자치단체 중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에 특례시 지위를 부여하였음. 공식 출범한 4개 특례시(수원, 고양, 용인, 창원) 중 용인을 제외하고 모두 문화예술교육 조례가 제정되어 있음

<표 2-17> 기초단위 문화예술교육 조례 제정 현황

구분	구분2	조례명	제정일	개정일
부산	중구	부산광역시 중구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2020. 10. 08.	-
인천	서구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2020. 05. 18.	-
경기	고양	고양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2021. 06. 04.	-
	구리	구리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2019. 07. 05.	-
	성남	성남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2016. 06. 20.	-
	수원	수원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2021. 09. 28.	-
강원	춘천	춘천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2018. 11. 30.	2019. 10. 10.
전북	전주	전주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2020. 11. 09.	-
전남	목포	목포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2017. 4. 10.	-

경남	김해	김해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2020. 07. 24.	-
	진주	진주시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예술교육지원 조례	2020. 12. 23.	
	창원	창원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2017. 09. 29.	-

■ 광역 조례과 기초 조례는 구성의 차이가 일부 존재하나 목적과 대상이 유사하여 일부 내용 중첩이 존재하기도 함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정부 간의 정책 조례안이 상호 중복되는 경우가 빈번하여 정부 간 기능 배분 및 역할 정립에 대한 요구가 존재²⁰⁾

- 중복 유형은 크게 조례의 독자성, 정부 간 사무 배분, 조례 유형, 정책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음

- 기초 단위 조례는 분량이 대체로 광역 조례의 절반 수준이며, 그 구체성 또한 차이가 존재함

- 광역 조례에서 개별 조문으로 다뤄진 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 등의 조항이 기초자치단체 조례에서는 지원센터 관련 조항 하위에 작게 언급되어있는 등 광역 조례와 비교해 구체성이 대체로 떨어짐

- 협의회 등 일부 조항은 기초단위의 조례에서 찾아볼 수 없음

■ 이외에도 교육청 단위의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가 마련된 지자체도 일부 존재함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제주도가 이에 해당함

■ 수도권 3개 시도(서울, 인천, 경기) 중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인천을 제외한 2개 시도와 경기도 내 조례가 제정된 3개 시(고양, 성남, 수원) 조례의 구성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 각 조항은 크게 의무조항과 권장.가능 조항으로 구분되며 의무의 구체성 및 범위에 대해서는 조례별로 차이가 존재함(의무조항: 한다, ~하여야 한다 / 권장.가능 조항: ~할 수 있다, 노력하여야 한다). 조례의 의무조항은 문화예술교육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며 문화예술 교육 진흥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장치라고 할 수

20) 소순창, 이진(2011).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간 조례의 중복성.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3-1

있음²¹⁾

- 수원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는 타 조례에 비해 의무조항이 적음. 형식적인 조항(‘할 수 있다’식의 법적 근거 마련에 집중된 조항)은 조례의 실효성이 비교적 부족하다고 볼 수 있음²²⁾
- “문화예술교육”의 정의는 조례마다 조금씩 상이함. 근거 법률로는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문화재보호법」, 「유아교육법」이 있음
-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은 대부분 조례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며 시행 계획 관련 내용만이 명시되어있는 곳도 존재함. 그 시행 주체 또한 조례에 따라 지원센터, 위원회 등으로 차이를 보임
-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관련 내용은 광역단위의 조례에서만 나타나고 있음
 - 협의회의 회의를 통해 의결된 사항에 대해 문화예술교육센터나 지방자치단체가 따라야 한다는 조항이 없어 의결 사항이 사장될 우려가 존재함²³⁾
 - 서울시의 경우 협의회의 협의 사항까지 명시하고 있으나 경기도의 경우 모법인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을 따른다고만 밝히고 있음
 - 협의회가 없는 기초 단위의 경우 이 역할을 지역센터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음
- 지원센터는 기초 단위에서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크게 다루어지고 있음. 광역 단위에서 개별 조항으로 자세히 기술된 내용 대부분이 기초 단위 조례에서는 지원센터의 업무 항목으로 간소하게 제시되고 있음
- 고양시와 성남시의 경우 센터 운영의 위탁관리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데, 위탁관리 규정의 경우 기초 단위 조례에서만 나타나는 규정으로 광역 단위에서는 관련 내용을 찾아볼 수 없음. 센터의 위탁관리는 주로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함
 - 타 시도의 경우 춘천, 목포, 김해, 창원, 부산 중구, 인천 서구에서 위탁관리 규정이 제정되어 있으며, 그 가운데 부산 중구와 인천 서구의 경우 위탁기관에 대한 운영경비 지원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전문인력 양성은 광역과 기초 모두 다루고 있으나 다른 조항에 비해 비교적 간결

21) 김상원(2021). 지역문화예술교육계획(2018-2022)이행상황 분석 연구보고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2) 조재현 외(2021). 광역기초단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개발을 위한 기초 비교연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3) 위와 같은 연구

하계 제시되어 있음

- 서울시의 경우 전문인력 양성 관련 조항이 존재하지 않음

- 교육지원은 경기도를 제외한 모든 조례에서 의무화하고 있지 않음. 그 방식 또한 장비 및 시설 확충에서 인프라 및 네트워크까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음

<표 2-18> 주요 문화예술교육 조례와의 조항 비교

구 분	조항 수	주요 조항						
		협력 체계	종합 계획	정책 수립	협의회	지원 센터	전문 인력	교육 지원
수원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9조	●	○	●	X	○	○	○
광역시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	●	X	●	○	X	○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	●	●	●	●	●	●
기초	고양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	X	○	X	○	○	○
	성남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	●	●	X	●	●	○

의무: ● / 언급: ○ / 언급 없음: X

다. 수원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조례의 의미

■ 수원시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기본 뼈대가 세워짐

- 조례를 통해 협력체계부터 교육 지원에 이르기까지 주요한 내용이 다루어짐
- 내용의 구체성 및 강제성이 비교적 떨어지나 조례가 제정된 이상 분야에 대한 시 차원의 관심과 노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됨

■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의의를 가짐

- 조례 제정은 예산 집행의 법적 근거가 됨. 이는 만성적인 예산 부족 문제를 안고 있는 문화예술교육 사업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2. 수원시 문화예술교육 시정 현황

가. 수원시 문화예술교육 분야 동향

- 수원시는 민선 8기를 맞아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라는 새로운 비전을 수립하였음. 또, 3대 시정 목표 중 ‘따뜻한 돌봄특례시’를 통해 ‘일상 속 문화’를 세부 전략으로 구성하였음
 - 이에 따른 추진과제로 특화된 문화자원 활용,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공연문화,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공동체 조성이 제시되었음
- 수원시청 문화예술교육 관여 부서로는 문화청년체육국과 수원시립미술관이 있음
 - 문화청년체육국 문화예술과의 예술팀, 문화정책팀, 문화재활용팀에서는 각각 고뮤뉴지엄(전시, 교육) 운영, 수원문화재단, 부국원(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운영 등을 담당하고 있음
 - 수원시립미술관에서는 전시관운영과의 교육팀에서 교육전시 기획 및 운영, 지역문화예술 지원 사업 개발, 전문가 초청 및 교육행사 기획, 온라인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담당하고 있음
- 수원시는 2022년~2026년 5년간 법정문화도시로 선정되며 다양한 연계 사업을 추진/계획하고 있음
 - 문화도시사업은 지역별 특색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제15조)」에 따라 추진되고 있으며 수원시는 다양한 문화인프라 재구성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 제3차 법정문화도시로 선정됨
 - 문화도시 수원은 지역의 문제를 문화적으로 해결하고,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도시를 지향하고 있으며 시민 중심의 문화생태계를 구축하여 수원만의 도시브랜드를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문화를 만들기 위한 과정을 시민들과 함께하고자 함
 - ‘서로를 살피고 문제에 맞서는’ 문화도시 수원의 비전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계·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조직으로 2021년 3월 ‘문화도시센터’가

설립되었으며, 같은 해 6월에는 「수원시 문화도시 조례」가 개정되었음

나. 시정 운영 현황 및 계획

- 2014년 「경기도문화발전계획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수원은 경기도권에서 지역문화지수가 가장 높은 도시임

<표 2-19> 수원시 문화예술교육 비전²⁴⁾

구 분	예시
문화 인프라 건립	박물관, 미술관, 문학관, 도서관 건립 등
역사 문화	수원 화성 연계 사업, 역사문화 콘텐츠 등
문화예술교육	시립 예술단 운영, 민간예술단체 육성 지원 등
축제(문화의 세계화)	대규모 국제행사 지원
문화관광	수원 방문의 해 사업 등

- 2023년 문화예술 관련 주요 시정계획은 다음과 같음

<표 2-20> 문화예술 관련 주요 시정계획(2023)

구 분	목표	내용
문화예술도시 조성	시민의 일상으로 다가가는 문화예술	공간 및 전문인 전수조사, 통합예약시스템 구축, 시립 예술단 운영, 문화도시 2년차 추진, 사업 기반 체계화
	문화인프라 구축	수원문화시설, 정조테마공연장, 수원 미디어센터 건립
역사와 문화가 있는 열린 공간 구현	상설전 및 기획전	수원박물관, 수원시립미술관 기획전 등
	포용적인 문화공간 운영	미술관 홍보 다각화, 노후시설 환경 개선
	독자 콘텐츠 개발	박물관 문화행사, 스마트 미술관 구축, 공립미술관 평가인증 등
	시민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특화 미술교육 운영, 열린 박물관 문화교육, 수요자 중심 도서관 프로그램 등

24) 이수현(2021). '지역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안.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재구성

제3장
수원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현황

제1절 수원시 문화기반시설 문화예술교육 현황

제2절 수원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운영 현황

제3절 수원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현황

제1절

문화기반시설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 조사대상 및 방법

- 「2021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²⁵⁾을 기준으로 수원에서 운영중인 문화기반시설 가운데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공간, 예산을 가지고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문화기반시설은 다음과 같음
 - 박물관 : 공립 3곳(수원박물관, 수원화성박물관, 수원광교박물관)
 - * 사립박물관으로 대한불교조계종봉녕사 제주묘엄박물관이 있으나 운영 중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은 파악할 수 없음
 - 미술관 : 시립 1곳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사립 1곳 (해움미술관)
 - 수원문화원 (수원 관내 문화의집은 없음)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조사는 위 문화기반시설 홈페이지, sns, 결과보고서 등 공개자료를 수집하여 2018~2022 문화예술교육 현황을 수집, 분석하였음. 2022년 자료는 본 연구가 2022년 하반기에 진행된 관계로 2022년 상반기 위주로 작성되었음을 알림

1. 수원시 박물관

가. 수원시 박물관 개요

■ 수원시 박물관 현황

<표 3-1> 수원시 박물관 목록

구분	1종/2종	박물관명	개관연월일
국립	1종	지도박물관	2004.11.01
공립	1종	수원박물관	2008.10.01
	1종	수원화성박물관	2009.04.27
	1종	수원광교박물관	2014.03.07
사립	1종	대한불교조계종봉녕사 제주묘엄박물관	2012.12.19

25) 문화체육관광부 (2021). 「2021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대학	1종	경기대학교소성박물관	1983.10.27
	1종	아주대학교 도구박물관	1993.11.08

- 「2021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에 따르면 수원시 내 박물관은 총 7개로, 국립박물관 1개, 공립박물관 3개, 사립박물관 1개, 대학박물관 2개로 구성됨

■ 수원시 국공립 박물관

- 지도박물관은 2004년에 개관한 국립박물관으로, 국토교통부 지리정보원에서 운영하는 국내 유일의 지도박물관임. 박물관 방문 누적 수는 33,598건, 고지도 소장품 수는 323건으로, 국토 지리정보의 변천 과정과 측량 및 지도제작 등의 역사적 유물과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전시 소장·관리해 시민들에게 개방함으로써 지도 문화의 역사적 전통을 계승하고자 함. 더 나아가 지도 제작 및 활용 체험을 제공하고, 인공위성을 포함한 다양한 기술에 따른 21세기 현대사회의 지리정보 변화,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학습의 장임
- 수원박물관은 2008년 개관하여 ‘수원역사박물관’과 ‘한국서예박물관’으로 구성됨. 수원역사박물관은 수원의 역사와 문화를 과거, 현재, 미래의 시점과 주제별로 구성하여 그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초로 건립된 한국서예박물관은 관련된 다양한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
- 수원화성박물관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수원화성을 알리고자 2009년 개관함. 수원화성 중심부에 위치하여 세계유산 수원화성과 조선 후기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관련 전시와 시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 수원광교박물관은 광교신도시 조성에 따라 출토된 발굴 유물과 더불어 역사, 문화를 살펴보고자 2014년에 개관함. 수원의 대표적 기증 전문 사료관으로서 지속적인 사료 기증을 유도하고, 다양한 전시와 프로그램 기획을 통해 수원과 경기도의 대표적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하고자 함

■ 수원시 사립 및 대학박물관

- 수원시 내 사립미술관인 대한불교조계종봉녕사 제주묘엄박물관은 한국 불교 최초의 비구니 강사이자 율사로서 후학을 양성한 제주당 묘엄 스님을 기념하고자 2012년에 개관함. 큰스님의 인생사를 100여 점의 유품과 3D 영상실 등으로 선보

입

- 경기대학교소성박물관은 1983년에 개관한 대학 박물관으로,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시설물을 개방함
- 아주대학교 도구박물관은 인류역사 발전에 기여한 도구를 연구, 전시, 교육하고자 1993년에 개관한 대학 박물관임

나. 수원시 박물관 문화예술교육 현황

■ 수원시 박물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표 3-2> 수원시 박물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현황

기관명	년도	사업명	프로그램명
수원박물관 (공립/1종)	2018	교과 및 지역연계 한국사	옛 그림으로 만나는 조선시대
			근대 그림 속 역사 엿보기!
		민화 강좌	심화과정/작품과정/입문과정
		주말가족교육	도전!리틀 큐레이터-유물관리/보존 처리/전시 기획!
		인문학 특강	수원박물관 소장유물 아는만큼 보이는 서화 유물
		박물관 원데이 클래스	
		인물로 보는 한국사	신사임당의 꽃그림
		서예작품반/사군자반/해서반1,2/문인 화반/전각반/민화강좌 심화과정, 입문과정,작품과정/ 주말가족교육	고려의 못난이 불상
	2019	겨울방학 전통문화교육	
		한문서예 1반/2반/작품반, 사군자반, 문인화반, 전각반, 한글서예반	
		여름방학 교육	고려의 못난이 불상 이야기
		여름방학 교육	민화 속 숨은 이야기를 찾아라!
	2020	2020 상반기 성인문화교육	서예.문인화.전각/여민학당
	2021	온라인 박물관 교실	수원박물관 속 사군자 이야기
		온라인 박물관 교실	수원박물관 속 불상이야기
		온라인 박물관 교실	수원박물관 속 초상화이야기
		온라인 박물관 교실(유아)	아름다운 우리 한복
	2022	겨울방학 교육	하늘의 움직임과 옛사람들의 삶-의생활
		조선시대 직업탐험-패션디자이너 상의원편	

수원화성 박물관 (공립/1종)	2018	성인교육	우리 전통 닥종이공예
		성인교육	우리 전통 자수공예
		전시연계프로그램	내가 만든 화성행궁
	2019	박물관 소장유물 탐구	
		성인교육	전통의 빛깔, 칠보공예
	2021	성인교육	전통 은 장신구 공예
2021	온라인방학교육	북아트로 만나는 우리 역사(7월,8월)	
2022	동화책으로 배우는 우리의 역사-조선의 의식주		
수원광고 박물관 (공립/1종)	2021	온라인 평일 교육	생각이 쑥쑥 그림일기

2. 수원시 미술관

가. 수원시 미술관 개요

■ 수원시립미술관

- 수원시 공립미술관은 2015년 10월 8일 개관한 수원시립미술관이 있음
- 수원시립미술관은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의 기부채납으로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이라는 명칭하에 2015년 개관함. 2022년에는 ‘수원시립미술관’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 중임
- 화성행궁과 팔달산, 팔달문 그리고 장안문 사이에 길게 늘어진 도시와 자연스럽게 만나는 통로에 위치함. 역사적 장소에 위치하여 현대와 자연의 조화를 느낄 수 있도록 설계되었음
- 수원시립미술관은 전통과 현대의 문화예술 플랫폼으로서 작용함. 지역작가를 후원, 발굴하고 국내외 새로운 미술 경향을 소개하고자 다양한 전시 및 프로그램을 운영 중임

■ 수원시 사립미술관

- 수원시 내 사립미술관은 2013년 개관한 수원 최초의 사립미술관 해움미술관 1곳으로, 2013년 이전까지 인구 100만이 넘는 수원시에 미술관이 단 하나도 없었음
- 수원시 팔달구 교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역작가 및 현대미술을 중심으로 전시를

운영하고 있음

나. 수원시 미술관 문화예술교육 현황

■ 수원시 미술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표 3-3> 수원시 미술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현황

기관명	년도	사업명	프로그램명
수원시립 아이파크 미술관 (시립)	2018	<미술관의 이면> 상설체험	나의 기억은요.
		<미술관의 이면> 토크콘서트	기억의 방식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2018년 1분기 문화강좌	미술과 신화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2018년 1분기 아동 주말 강좌	미술과 신화
		단체 대상 전시해설 프로그램	진행전시 : 2018 작가발굴 프로젝트 <안녕하신가영>
		주말)전시연계 아동프로그램	<구조의 건축>展 전시연계 프로그램
		주말)전시연계 아동프로그램	<금하는 것을 금하라>展 전시연계 프로그램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SIMA Kids Week 2018 가정의 달 문화 프로젝트	<스퀘어 가든> 展 키즈투어
		5월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_ 아동 전시연계	구조의 건축전 참여작가 윤제호와 함께하는 프로젝션 맵핑 체험 프로그램
		2018 청소년 문화자원봉사	1318 SIMA SCHOOL
		2018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판화프로젝트 '찍.다.' 전시연계프로그램	작가와 함께하는 판화체험 <만나다, 찍다>
		방학특별 문화프로그램	ART&MUSIC CULTURE PROGRAM
		2018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성인문화예술프로그램 Sunday Interest Museum Art	판화편
		<상설체험> 찍.다. 展 체험	동판화 노트, 실크스크린 에코백
		2018 도슨트 양성 교육프로그램	
		Book& 체험 프로그램	자연, 알다
		2018 국제전《포커스 카자흐스탄 : 유라시안 유토피아》 전시연계강연	
		2018 국제전《포커스 카자흐스탄 : 유라시안 유토피아》 전시연계강연	2018 교사 프로그램
		2018 국제전《포커스 카자흐스탄 :	GOGO미술관 탐험대

		유라시안 유토피아》 전시감상프로그램	
		2018 연말 프로그램	감성카드 만들기_마음을 전하다
2019		2019 전시감상프로그램	GOGO미술관 탐험대
		2019 전시감상프로그램	차와 함께하는 '포커스 카자흐스탄'
		2019 주말예술프로그램	Play Art _ 재료로 보는 작품_ 템페라
		나눔프로젝트 봄 그리고 봄	봄, 전하다
			봄, 피우다
			봄, 만들다
			봄, 비추다
		2019 전시연계강연	여성주의 미술의 이해
			디지털 미디어와 예술
		2019 성인대상 주말프로그램	S 클래스
		2019 예술인문 여행	현대미술, 그 7개의 봉우리
		어린이 주말강좌	Play Art
		2019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순수원해
		2019 테마가 있는 인문학 강좌	아트&마트
		2019년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도슨트 양성프로그램+인문학	
		2019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작가발굴 프로젝트	SIMA FARM
		2019 성인.가족 대상 주말프로그램	S 클래스
		2019 국제전《게리 힐: 찰나의 흔적》전시 연계 학술세미나	
		2019 국제전《게리 힐: 찰나의 흔적》전시 연계 교사초청 프로그램	
		미술관 예비교사 현장실습 프로그램	
		어린이 가족대상 체험 교육 프로그램	다시보는 시즌3 탐구방방
		부모특강	어린이가 미술관에 가야 하는 이유
		수원시립미술관 공공책방 창의워크숍	49일동안 예술가로 사는 법
2020		수원시립미술관 2020 도슨트 양성 교육 프로그램	
		어린이 전시감상 프로그램 <내 나니 여자라>	GOGO미술관 탐험대
		<내 나니 여자라> 온라인 전시 감상	속담으로 알아보자!

		프로그램		
		<내 나니 여자라> 온라인 전시 감상 프로그램	숫자로 알아보자!	
		<내 나니 여자라> 온라인 전시 감상 프로그램	책으로 알아보자!	
	2021	2020 일반인 대상 예술프로그램	S 클래스	
		다문화가정 아동대상 소장품 연계 프로그램	다정다감	
		2021 수원시립미술관 인문학 강좌	사랑과 예술	
		SIMA 컬러링북 온라인 교육		
		2021 수원시립미술관 성인대상 전시 감상 프로그램	미술관 산책	
		2021 수원시립미술관 교직원 대상 전시 감상프로그램	미술관 산책	
		《□이 살아가는 새로운 방식》작가와 함께 하는 주말 체험 프로그램 <Play Art>	이건 뭐? 뭐든!	
		《□이 살아가는 새로운 방식》수어 전시 해설		
		수원시립미술관 가정의 달 다문화 가족 대상 프로그램	다정한 하루	
		수원시립미술관 어린이 가족 대상 체험 교육프로그램	따스한 하루	
		2021 수원시립미술관 《바람보다 먼저》전시연계 미술사 특강		
		수원시립미술관 공공책방 창의워크숍2	63일동안 예술가로 사는 법	
		2021 수원시립미술관 도슨트 심화+시민공개 현대미술 특강		
		2021 수원시립미술관 인문학 강좌	사랑과 예술2	
		《어원 올라프:완전한 순간-불완전한 세계》전시연계 학술 세미나		
		2022	2022 수원시립미술관 인문학 강좌	아지트:아름답고 지적인 트래블
			2022 행행행 프로젝트	쓸모 있는 미술관
해움 미술관 (사립)	2018	문화가 있는 날	취중교동_고즈넉한 교동에 취하다	
	2019	문화가 있는 날	청소년의 멘토 KB!와 함께하는 박물관 노닐기	
	2020	2020년 경기도청 주변 도시재생사업_향교로 문화예술 프로그램	향교로 예술정경	
		2020해움미술관 지역예술플랫폼 경계인의풍경전시 연계프로그램	송창작가와 이선영미술평론가의 아티스트 토크	
	2021	2021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전시연계프로그램	판화와 회화의 조음 아티스트 토크 작가와의 만남	
Be:Artist				

3. 수원문화원

가. 수원문화원 개요

■ 수원문화원 설립목적 및 사업

- 수원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거,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1956년 설립되고 수원의 역사, 문화, 예술, 문학 등의 향토사를 발굴, 보존, 연구 추진 중임
 - 「지방문화원진흥법」: 지방문화원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하며, 이에 대한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이 있음
- 2021년 1월 기준 회원 수는 1천여 명이고, 주요 사업으로 수원시 우수전통민속 보존과 수원사랑 발간, 학술대회, 효의성곽순례, 대보름민속놀이한마당 행사, 제야 및 새해맞이 경축타종 행사, 수원뿌리학교가 있음

■ 수원문화원 부설기관

- 이에 부설기관으로 ‘수원지역문화연구소’와 ‘수원예술단’이 있음
- 수원지역문화연구소는 1995년 수원문화사연구회로 출범하여 수원문화원 부설기관으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음. 수원지역학 연구와 문화산업 발전 기여를 목표로 옛 수원군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수집, 연구하고 있음
- 수원예술단은 2011년 창단하여 시대 흐름에 따른 전통문화예술의 발전과 보급을 위해 다양한 장르의 현대적인 문화콘텐츠와 접목해 공연을 선보임

나. 수원문화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현황

<표 3-4> 수원문화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현황

년도	사업명	프로그램명
2018	수원문화원 문화학교	건강생활 요가반 등 15개
2019	수원문화원 문화학교	건강생활 요가반 등 15개
	고색향토문화전시관 문화학교	모듬북(난타) 등 3개
	수원뿌리학교	뿌리학교 강의

2020	수원문화원 문화학교	건강생활 요가반 등 13개
	어르신 즐깁터	보태니컬 아트
	수원뿌리학교	뿌리학교/ 찾아가는 뿌리학교 등 2개
2021	2021년도 수원시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우리의 정서가 녹아있는 전통민화 배우기
	수원뿌리학교	뿌리학교 강의
	2021 경기 문화활용사업	문화재로 알아보는 수원의 역사와 종교
2022	수원문화원 문화학교	건강생활 요가반 등 10개
	고색향토문화전시관 주말 체험 프로그램	슈링클스/가족공예/배씨 땡기머리띠 만들기/부채만들기
		제기 만들기/민화 컬러링/ 투호 놀이
	고색향토문화전시관 어린이날 체험 프로그램	모듬북/요가
		가족공예/굴렁쇠/슈링클스/웃놀이/인두화/캘리그래피/투호놀이
	2022년 어르신 국어문화 프로그램	2022년 어르신 국어문화 프로그램
	2022 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 "다함께 만드는 생활문화센터"	캘리그래피 벽화 프로그램
	무형문화재 어울아띠	무형문화재 어울아띠
수원뿌리학교	뿌리학교 강의	

4. 수원시 문화기반시설 문화예술교육 분석

■ 문화예술교육 사업 수 및 프로그램 수²⁶⁾

<표 3-5> 수원시 문화기반시설 문화예술교육 사업수 및 프로그램 수 (단위: 개)

기관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박물관	사업수	10	5	1	5	3	24
	프로그램수	17	11	4	6	3	41
미술관	사업수	24	24	8	16	4	76
	프로그램수	24	24	8	16	4	76
수원문화원	사업수	1	3	3	3	7	17
	프로그램수	15	19	15	3	30	82
문화기반시설 합계	사업수	35	32	12	24	14	117
	프로그램수	56	54	27	25	37	199
수원문화재단 ²⁷⁾ (괄호:예술교육팀)	사업수	8 (4)	7 (4)	6 (3)	8 (6)	12 (5)	41(22)
	프로그램수	22 (13)	14 (10)	10 (7)	16 (14)	21 (12)	83(56)
총 합계	사업수	43	39	18	32	26	158
	프로그램수	78	68	37	41	58	282

● 박물관

- 수원시 공립박물관은 수원박물관, 수원화성박물관, 수원광교박물관이 있으며 사립박물관으로는 1종 대한불교조계종봉녕사 제주묘엄박물관이 있으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은 파악되지 않아 모든 프로그램은 공립박물관에서 진행됨
- 공립박물관은 유물과 지역사 중심 교육프로그램이 대부분으로 문화예술을 역사교육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지난 5년 간 지속된 프로그램은 성인문화교육(한문서예, 사군자, 문인, 칠보, 자수 등)과 어린이 및 가족 대상 불상, 민화, 교육 등이 있음
-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폐강되어 문화기반시설 가운데 가장 보수적으로 운영되었음. 2021년에는 온라인교육으로 박물관 관련 불상, 사군자, 역사 프로그램등을 진행함

26)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조사는 지난 5년간 수원시 문화기반시설 홈페이지, SNS 등의 공개자료를 수집, 분석한 것이며, 2022년 자료는 본 연구가 2022년 하반기에 진행된 관계로 2022년 상반기 수치까지만 반영됨.

27) 박물관과 문화원의 경우 문화학교 사업 내 있는 아카데미식 강좌(한국무용반, 사물놀이반 등) 모두 프로그램 수로 반영함에 따라, 문화재단의 단위사업 수와 프로그램 수를 박물관, 문화원 강좌들과 단순 수치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을 밝힘. 수원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상세 내용은 본 장 제3절 참고.

● 미술관

- 수원시 등록 공립미술관으로는 수원시립미술관이 있으며, 아동, 청소년, 성인, 교직원, 작가, 도슨트 등 다양한 대상을 위한 수준 높은 미술교육 프로그램들이 운영됨. 수원시립미술관은 전시와 교육사업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 교육문화팀을 전담부서로 두고 있음. 전담 인력은 수원시립미술관 4명(팀장1,직원3), 아트스페이스광고 2명(팀장1,직원1)등 총 6명/전체직원 46명(2021년 기준)이 교육을 전담으로 운영함
- 해움미술관은 수원시 유일한 등록 사립미술관으로 평균 연 2회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임.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사)한국사립미술관협회 주관의 ‘문화가 있는 날’ 사업, 경기도 주최,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주관 ‘2021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전시연계 프로그램’ 등 국·도비 지원금이 대부분임

● 수원문화원

- 수원문화원은 향토사 개발 및 향토문화 보전과 전수라는 명확한 목적을 가진 기관으로 문화학교를 지속적, 안정적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음
- 수원문화원의 예술교육은 기능, 기술 중심의 교육이 대부분으로 사물놀이, 태평소, 한국무용과 같은 예술 분야 외 핸드드립 홈 카페 기술교육, 웰빙건강댄스, 전통요가와 같은 생활체육 교육도 담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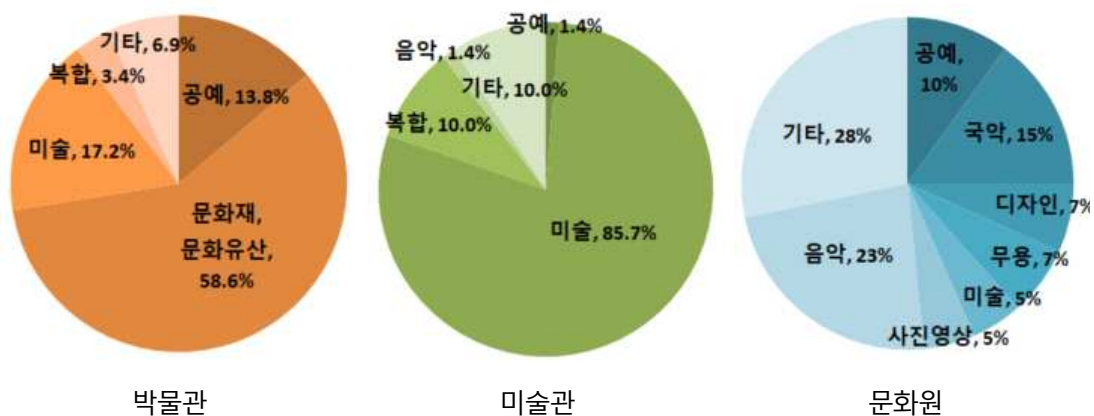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교육 유형

<표 3-6> 수원시 문화기반시설 문화예술교육 교육 유형

구분	유형	2018	2019	2020	2021	2022	소합계	비율(%)
박물관	체험형	9	8	4	-	-	21	51.2
	강의형	4	1	-	3	-	8	19.5
	복합형	4	2	-	3	3	12	29.3
미술관	체험형	11	8	1	5	1	26	34.2
	강의형	6	8	2	7	2	25	32.9
	복합형	7	8	5	4	1	25	32.9
문화원	체험형	15	18	14	1	26	74	92.5
	강의형	-	1	1	2	-	4	5.0
	복합형	-	-	-	-	2	2	2.5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교육 방식 유형에 따라 대상자가 예술 활동을 직접 실행해보는 체험형, 일 방향적으로 강사가 교육을 주도하는 강의형, 강의·체험·견학 등 복합적인 요소로 운영되는 복합형으로 분류하여 현황을 살펴봄. 지난 5년간 수집된 문화기반시설 프로그램 총 199개 가운데 교육 유형을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박물관 41개, 미술관 76개, 문화원 80개임
- 미술관은 수원시립미술관이 교육 프로그램에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는 만큼 직접 미술 활동을 경험하는 체험형, 세미나와 미술이론과 관련한 강의형, 작가연계 교육 프로그램과 같은 복합형 등이 1:1:1의 비율로 고르게 나타남
- 문화원과 박물관은 가족공예, 민화반, 닥종이공예와 같이 아카데미성 체험형 강좌가 문화원(92.5%), 박물관(51.2%)로 높게 나타나 아카데미성 강좌 프로그램 외 참여자의 창의성과 예술성을 발현할 수 있는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장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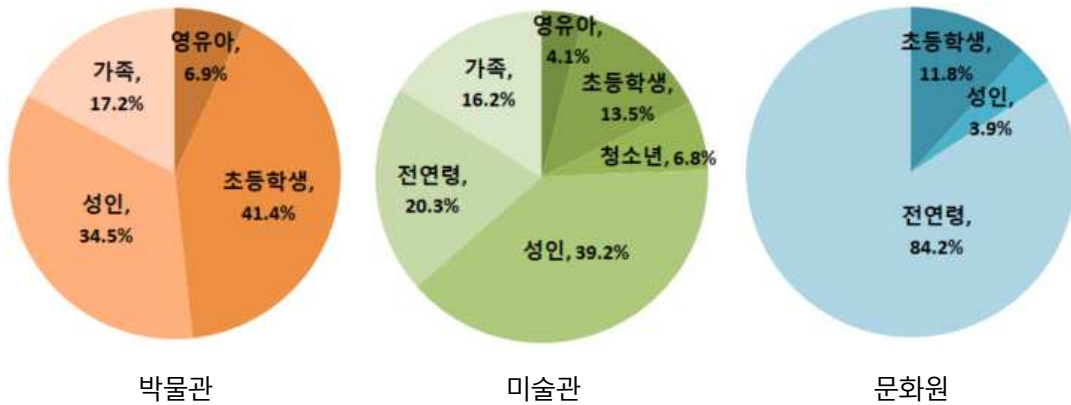
[그림 3-1] 문화기반시설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장르

- 박물관의 경우 장르 분석이 가능한 프로그램이 총 29개였으며, 문화재·문화유산이 58.6%, 미술 17.2%, 공예 13.8% 순으로 높게 나타남
- 미술관의 경우 장르 분석이 가능한 프로그램은 총 70개였으며, 미술이라는 장르에 기반한 기관 특성에 따라 미술 장르가 85.7%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복합장르가 10.0% 순으로 나타남

- 문화원의 경우 장르 분석이 가능한 프로그램은 총 60개였으며, 생활체육, 기술교육과 같은 기타 장르가 28%, 난타와 같은 음악이 23%, 국악 15%, 공예 10% 순으로 나타남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대상 연령



[그림 3-2] 문화기반시설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대상 연령

- 박물관의 경우 대상 연령 분석이 가능한 2018~2022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총 29개 가운데 초등학생은 41.4%, 성인 34.5%, 가족 17.2%, 영유아 6.9%로 나타나 유아동 및 유아동을 동반한 프로그램이 전체의 65.5%를 차지함
- 미술관의 경우 대상 연령 분석이 가능한 2018~2022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총 74개 가운데, 성인 대상 프로그램이 39.2%, 전 연령 대상 20.3%, 가족 16.2%, 초등학생 13.5%, 청소년 6.8%, 유아 4.1%로 나타남. 문화기반시설 가운데 가장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음
- 문화원의 경우 대상 연령 분석이 가능한 2018~2022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총 76개 가운데, 전 연령 대상이 84.2%, 초등학생 11.8%, 성인 3.9%임. 다만 전 연령을 대상으로 모집하는 문화학교의 실제 수강생은 대부분은 성인이므로 문화원 프로그램의 95% 이상은 성인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음

■ 문화기반시설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현황조사 분석

- 120만 수원시 인구수에 비해 문화기반시설 수 자체가 적은 편으로, 지난 5년간 문화기반시설에서 운영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도 적은 것으로 분석됨

- 박물관, 문화원의 경우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아카데미성 프로그램이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어 인근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는 안정성이 있으나, 새로운 세대와 신도시 이주민을 영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창의적, 융합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데도 인력, 예산 등 자원 상의 한계를 가짐
- 박물관은 문화재와 문화유산, 미술관은 미술 등 기관의 설립 취지에 따라 장르적 특성이 반영됨에 따라 각 영역의 전문성은 담보할 수 있으나, 시민들이 다양한 장르와 창의적인 영역에서의 문화예술교육을 접할 기회는 상대적으로 적음
- 대상 연령의 경우 박물관은 어린이와 가족, 문화원은 성인에 치우친 경향이 있으며, 문화기반시설 전반적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드문 것으로 나타남

1. 문화예술교육 업무 현황

가. 수원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개요 및 협력

- 2022년 창립 10주년을 맞은 수원문화재단은 ‘다시 찾고 싶은 수원, 함께하는 문화예술’이라는 비전 아래 3가지 경영 목표와 4가지 전략 방향을 제시 하였음
 - 이중 문화예술교육이 직접적으로 언급된 부분은 ‘생활 속 예술환경 저변확대’라는 첫 번째 전략의 하위 ‘생애주기형 문화예술교육체계 구축’임
- 예술교육팀은 문화국 산하 문화예술부에 있는 수원문화재단 유일의 문화예술교육 전담부서로 교육 및 관련 시설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음
 -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전파하고 교육을 통해 시민들의 문화수준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발굴 및 기획 운영함
- 문화예술교육 유관부처 및 기관과의 다각적인 협력이 진행되고 있음
 - 프로그램 협업, 인프라 구축, 지역 네트워크 강화, 학교 예술교육 지원 등을 목적으로 다양한 관계 기관과의 업무협약이 진행되고 있음
 - 관계 기관의 범위는 문체부 산하기관, 공·사립 교육기관, 민간기업 등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음
 - 경기도청, 경기도교육청, 경기문화재단, 경기아트센터 등 경기도 주요 기관이 소재한 수원지역의 특성상 도 기관과의 연계도 있음
 - 협약 외의 형태로 협력이 진행되는 경우도 존재함
 - 지원사업 및 위탁사업 등을 위한 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과의 연계와 문화예술교육 실행을 위한 관내 학교 및 공공기관과의 연계가 대표적임

<표 3-7> 수원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주요 MOU 현황

협약일	협약기관	주요 내용
2022. 09. 29.	KT&G 상상유니브 경기운영사무국	문화예술 프로그램 협업 및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 상호 지원 협조
2022. 07. 06.	(사)무대예술전문인협회	기술 입은 문화예술교육 '수원 무대기술 두드림(Dream!)' 교육사업에 대한 정보 교류와 무대 기술력을 갖추기 위한 젊은 인재 양성에 대한 교육 데이터 및 플랫폼, 교육 행정 지원 등의 인프라 구축
2022. 03. 23.	효탑초등학교	지역 생태문화 거점공간인 실험목장 AGIT 내 조성된 어린이 상상놀이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2021. 10. 07.	성균관대학교 휴먼ICT융합연구센터	시각장애인 대상 비대면 예술체험키트 공동개발 및 추진, 관내 장애인의 문화예술사업 확산을 위한 정보공유,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접근성 개선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
2019. 07. 18.	수원대학교 등 7개 대학교 11개의 공연 관련학과	'수원SK아트리움 2019 무대기술 현장실습 교육' 사업에 대한 정보 교류와 무대 기술력을 갖추기 위한 젊은 인재 양성에 대한 교육 데이터 및 플랫폼, 교육 행정 지원 구축
2018. 09. 30.	수원시평생학습관	시민주도형 사업 확산을 위한 정보공유, 양 기관이 보유한 콘텐츠 및 지식자원 활용, 교육 및 행사 교류 협력
2012. 06. 21	경기도 수원교육지원청	우리 역사와 문화재를 활용한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 및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나. 예술교육팀 조직 및 업무 현황

■ 예술교육팀의 문화예술교육 사업은 다음과 같음

- 사업 운영을 통해 문화예술 교육자의 기획 및 연구역량 강화, 인력 간 협력망
구축, 수원지역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함

<표 3-8> 문화예술교육 사업 현황(2022)

사업명	사업 내용
시민 문화예술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들의 문화예술 참여 및 전인격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문화예 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 대상별(청소년, 성인 등) 특성화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맞춤형 통합문화예술교육 제공 · 중앙부처 예산지원 확대에 따라 여건에 부합하는 공모지원사업 발 굴 및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일상을 문화예술교육으로 회복하고 문화예술을 통한 사회적 교육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수원 문화예술 콘텐츠를 활용한 지역맞춤형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 운영
문화소외계층 예술교육 (브릿지 예술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단이 문화소외계층과 문화예술교육의 "가교"역할을 하여 지역 내 취약계층에게 문화예술을 보급하고 확대 하고자하는 의미의 사업 · 문화 소외·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예술활동을 통해 문화소외계층에 심신 안정 제공 및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 전파를 위해 보건의적 차원의 예술치유 교육 프로그램 기획·운영 ·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예술교육프로그램 공모 및 지원 · 교육프로그램 공모 선정을 통해 우수교육단체 및 예술교육 거점 공간 발굴, 기관 협력형 프로그램 운영 · 프로그램 운영 강사 및 단체 선발을 위한 심의위원회 운영
문화예술교육 학습연구 및 관계망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교육자 대상으로 정책과 트렌드, 이슈를 반영한 문화예술 교육 워크숍 운영 ·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의제를 기반으로 학습연구 및 교육콘텐츠 기획을 위한 네트워크 운영
무형문화재전수회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원시무형문화재전수회관 활성화를 위한 공연 기획에 따른 무형 문화재 및 전문예술 단체(한국무용, 국악, 연극) 및 합동 공연·전시·체험행사 운영
지동예술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전통시장 내 창작공간을 활용하여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도모를 위한 시각예술작가(6인)의 입주활동 운영 사업 · 지동예술센터 입주작가 창작 결과물 정기전시 운영

■ 예술교육팀의 지난 5년(2018~2022년)간 전담업무 및 주요 변동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예술교육팀에서는 지난 5년간 시민문화예술학교, 학습개발연구모임, 브릿지 예술교육 프로젝트 등 문화예술교육 저변확대를 위한 주요 사업의 지속성과 연속성을 꾸준히 담보해옴
- 수원시 문화예술교육 기반과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네트워킹 사업과 아카이빙 사업, 자원 조사 연구 등 다양한 주변 사업을 함께 운영함
- 다만 잦은 인사이동과 예술교육 이외의 다수 업무(시설관리, 대관, 작품운영, 공간운영 등)로 예술교육팀으로서의 전문성 강화에 부정적 측면이 있음

<표 3-9> 2018~2022 예술교육팀 전담업무 및 변동 현황

년도	전담업무	변동내용
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시민예술학교 운영 - 시민문화예술교육 하반기 프로그램 운영 - 문화예술교육 관계망 구축사업 - 수원문화예술교육 자원조사 연구용역 - 수원 문화예술교육가 아카이빙 -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 공모사업 - 브릿지 예술교육 프로젝트(기획사업/지원사업) - 푸른지대창작센터 입주작가 레지던시 프로그램 운영 - 무형문화재전수회관 활성화 사업 - 행궁길 갤러리 대관 - 공공예술작품 운영 - 문화시설 관리(무형문화재전수회관, 문학인의집, 행궁길 갤러리, 푸른지대창작센터) - 복합문화공간 111CM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03.04. : 박지원 차장 111CM TF팀으로 전보(사유 : 111CM TF팀 팀장 공석) - 2022.06.01. : 박지원 차장 예술교육팀으로 전보(사유 : 111CM TF팀 업무 예술교육팀으로 통폐합) - 111CM 업무 예술교육팀으로 이전
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교육/체험) - 학습개발연구모임 지원사업 - (문화도시) 문화예술교육 네트워크 및 아카이빙 - 브릿지 예술교육 프로젝트(기획/지원사업) - 베리어 프리 비대면 교육사업 - 푸른지대창작센터 입주작가 레지던시 프로그램 운영 - 무형문화재전수회관 활성화 사업 - 공공예술작품 운영 -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 공모사업 - 행궁길 갤러리 대관 - 문화시설 관리(무형문화재전수회관, 문학인의집, 예술인의집, 행궁길갤러리, 푸른지대창작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7.15.~2021.3.22.: 박현주 팀장 - 2021.3.23.~ : 김유리팀장 전보 - 변경사유 : 박현주 팀장이 문화예술부 주무팀장으로 전보 및 김유리 차장이 팀장으로 승진, 예술교육팀장으로 전보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 학습개발연구모임 지원 -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 공모사업 - 행궁길 갤러리 대관 - 브릿지 예술교육 프로젝트 - 푸른지대 창작센터 입주작가 레지던시 프로그램 운영 - 무형문화재전수회관 활성화 사업 - 공공예술작품 운영 - 문화시설 관리(무형문화재전수회관, 문학인의집, 예술인의집, 행궁길갤러리, 푸른지대 창작센터, 문화도시 생태문화 거점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1.8. : 박지원 차장 공연부 공연기획팀에서 문화예술부 예술교육팀으로 전보. 김진희 차장 공연부 공연기획팀으로 전보 - 변경사유 : 김진희 차장 공연부로 전보에 따른 인사이동 - 푸른지대창작센터 인수인계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 문화예술교육 - 전문예술인 교육 - 예술치유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7.29. : 김진희 차장 문화도시팀에서 예술교육팀 차석으로 전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브릿지 예술교육 프로젝트 - 문화예술교육 학습개발연구모임 지원사업 - 무형문화재전수회관 활성화 사업 - 찾아가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 (국비)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 공모사업 - 행궁길 갤러리 전시기획 및 운영 - 공공예술 작품운영 - 문화시설관리(문학인의집, 예술인의집, 행궁마을 커뮤니티아트센터)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 문화예술교육 - 찾아가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 문화예술교육 학습개발연구 지원사업 - 시민참여형 예술교육 프로젝트 - 행궁길 갤러리 운영 - 지역문화 컨설팅(국/시비) - 문화시설 운영관리(무형문화재 전수회관, 문화향수의 집, 문학인의 집, 예술인의 집, 행궁마을 커뮤니티 아트 센터) - 전문예술인 교육 -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국/시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7.1.~2018.7.15.: 한수민팀장 - 2018.7.15.~ : 박현주팀장 전보 - 변경사유 : 한수민팀장 타 부서로 전보, 미술전시관팀 박현주 차장이 팀장으로 승진 및 예술교육 팀장으로 전보 - 2018.3.20. : 김선영대리 공연부 공연기획팀에서 예술교육팀 차석으로 전보

- 수원문화재단 예술교육팀 목적사업인 예술교육에 비해 시설관리 및 기타사업에 예산 및 인력, 업무가 모두 편중되었다는 지적이 존재함
 - 이는 예술교육팀이 본래 문화시설팀으로 시작되었다는 점에 기인한 문제로, 2020년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시설관리팀 신설을 통한 예술교육팀, 시설관리팀 분리가 안건으로 제기된 바 있음
- 예술교육 전담 부서가 시설을 함께 관리하는 재단은 경기도 22개 기초문화재단 가운데 수원문화재단이 유일함.
 - 예술교육 전담부서가 시설을 함께 관리하는 재단은 경기도 22개 기초문화재단 가운데 수원문화재단이 유일함. 문화사업 업무와 경영관리 업무가 공존하는 형태로 ‘시설 관리’와 ‘시설 활용’의 혼돈을 가질 수 있고, 시설의 안전성과 예술교육의 전문성에 각기 지장을 줄 수 있음
 - 타 문화재단의 경우 예술교육과 시설관리는 본부 영역에서부터 각각 분리되는 전문적 전담부서로 운영되고 있음. 특히 시설관리는 시민과 재단 직원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 만큼 경영본부 산하에 두는 재단경영업무의 하나로 인식, 팀장부터

직원까지 시설관리 전문성을 가진 전문인력으로 구성 관리함

<표 3-10> 타 문화재단 예술교육 및 시설관리 전담부서 현황

재단	문화예술교육 전담부서	시설관리 전담부서
성남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 산하 -아카데미운영팀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 -미디어센터	경영본부 산하 -안전시설팀
화성시문화재단	예술지원센터 산하 -예술교육지원팀	경영기획본부 산하 -시설,체육운영팀
용인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 산하 -예술교육팀	경영본부 산하 -시설안전팀
고양문화재단	문화예술사업본부 산하 -교육전시팀	예술경영지원본부 산하 -안전시설팀
수원문화재단	문화예술부 산하 -예술교육팀	

- 2021년 기준 예술교육팀 전체인원 4명의 업무 분장을 살펴보면 예술교육팀 고유의 예술교육 관련 업무는 24%, 그 외 업무에 76%(시설 관리 업무 68%, 문화재 활용사업 8%)를 할애함

<표 3-11> 수원문화재단 예술교육팀 주요 업무 비율

예술교육 업무	시설 관리 업무	수원연극축제 업무	기타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사업 2개 - 학습개발연구모임 - 브릿지예술교육 · 기획사업 2개 - 시민문화예술교육 - 브릿지예술교육 - 배리어프리 비대면 교육(2021) · 문화도시연계사업 1개 - 수원은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개 시설 관리 - 푸른지대 창작센터 - 행궁길 갤러리 - 문학인의 집 - 예술인의 집 -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 111CM(2021) · 공간 활성화 사업 - 레지던시 운영 - 갤러리 대관 - 전수회관 활성화 사업 - 111CM 활성화프로그램 · 공공예술작품 유지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력 관리 (자활, 단기인력 등) · 축제공간 연출 · 안전 및 방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
24%	68%	-	8%

2. 문화예술교육 인력 현황

- 문화예술교육 담당 조직은 기존 문화시설팀에서 2016년, 예술교육팀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분장사무 중임
- 2022년 10월 기준, 인력은 팀장 포함 총 4명으로 문화예술행정 3명, 시설 1명임
- 2018년~2022년까지 수원문화재단 전체 직원 수가 꾸준히 증가한 것에 비해 예술교육팀 예술교육 전담인력 수는 3명~4명을 유지하고 있으며, 시설 담당자 1명을 제외하면 팀장 포함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은 3명임

<표 3-12> 2018~2022 수원문화재단 전체 직원 및 예술교육팀원 수

년도 (기준월: 매년 1월)	수원문화재단 전체직원수	예술교육팀원 수
2022	210	4
2021	174	4
2020	177	4
2019	175	3
2018	161	3

- 경기도 내 비슷한 규모의 성남문화재단, 용인문화재단, 고양문화재단과 비교해보면 문화예술교육 전담 인력 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남

<표 3-13> 수원문화재단 예술교육팀원 수

재단	문화재단 전체직원수 (명)	문화예술교육 전담 직원 수 (명)	문화예술교육 전담 직원 비율 (%)	인구 10만 명당 문화예술교육 전담직원수(명)
성남문화재단	148	22	14.86%	2.37
용인문화재단	161	11	6.83%	1.02
고양문화재단	104	7	6.73%	0.65
수원문화재단	210	4	1.9%	0.34

- 전체 문화재단 직원 수 대비 문화예술교육 전담 직원 비율은 성남문화재단이 14.86%, 용인문화재단과 고양문화재단이 각각 6.83%, 6.73%인데 비해 수원문화재단은 1.9%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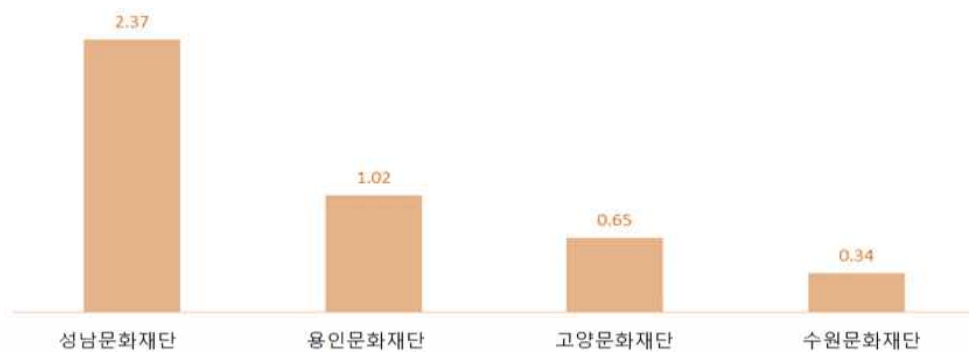
자료원 : 경기문화재단 (2022). 2022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현황조사. 자료 재구성

[그림 3-3] 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전담 직원 비율

- 인구 10만 명당 문화예술교육 전담직원 수에서도 성남문화재단이 2.37명, 용인문화재단이 1.02명, 고양문화재단이 0.65명인데 비해 수원문화재단은 0.34명에 그치고 있어 인구 120만 명 특례시의 규모에 비해 적은 인력수로 분석됨

<표 3-14> 수원문화재단 예술교육팀원 수

재단	문화재단 전체직원수 (명)	문화예술교육 전담 직원 수 (명)	문화예술교육 전담 직원 비율 (%)	인구 10만 명당 문화예술교육 전담직원수(명)
성남문화재단	148	22	14.86%	2.37
용인문화재단	161	11	6.83%	1.02
고양문화재단	104	7	6.73%	0.65
수원문화재단	210	4	1.9%	0.34



자료원 : 경기문화재단 (2022). 2022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현황조사. 자료 재구성

[그림 3-4] 인구 10만명 당 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전담 직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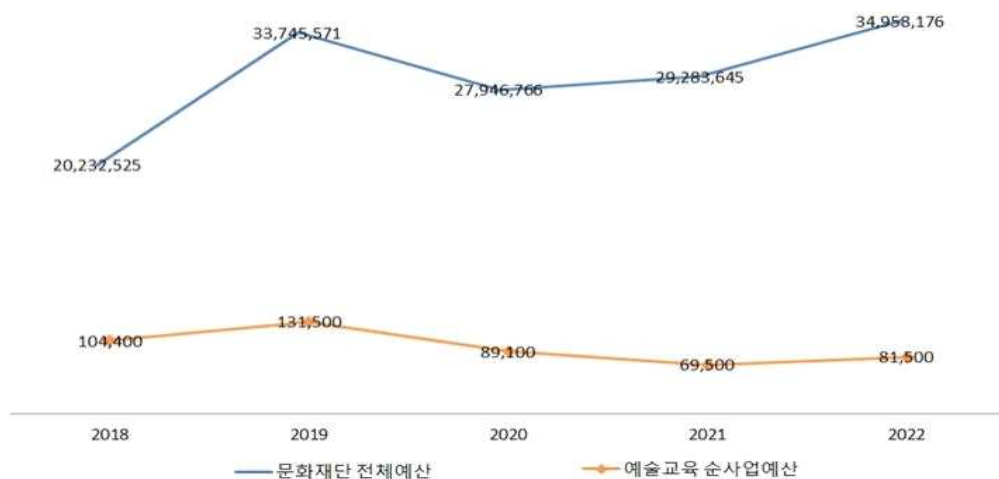
3. 문화예술교육 예산 현황

■ 문화예술교육 예산은 예술교육팀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시설운영 예산을 제외한 문화예술교육 순 사업 예산은 추이는 다음과 같음

- 수원문화재단 전체예산은 2020년, 2021년 코로나19로 다소 삭감되었으나 꾸준히 증액되어 2022년 34,958,176천 원에 달함
- 예술교육팀 예산은 관리시설이 늘어나면서 전체 예산은 늘어났으나, 시설 운영 예산을 제외한 문화예술교육 순 사업예산만 살펴보면 2018년 대비 오히려 꾸준히 감소하고 있음

<표 3-15> 수원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연도별 예산 추이

년도	문화재단 전체예산 (천원)	예술교육팀 예산 (천원)	문화예술교육 순사업 예산 (천원)	문화예술교육 관련 기타예산(천원)		
				국비	도비	기타
2022	34,958,176	629,808	81,500	138,100	24,000	467,708
2021	29,283,645	166,799	69,500	18,500	5,000	143,299
2020	27,946,766	240,176	89,100	-	37,000	203,176
2019	33,745,571	308,810	131,500	11,000	48,000	249,810
2018	20,232,525	224,777	104,400	-	37,000	187,777



[그림 3-5] 수원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순사업예산 연도별 추이

■ 2022년 문화예술교육 예산은 총 81,500천 원으로 3개 사업을 운영 중임

<표 3-16> 수원문화재단 2022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및 예산

구분	시민문화 예술교육	문화소외계층(브릿지) 예술교육	문화예술교육 학습연구 및 관계망 형성
대상	생애주기별 시민 대상	문화소외계층(기관연계)	문화예술 교육가 및 단체
예산	37,500천원	32,000천원	12,000천원
내용	·수원연극축제 연계 체험 ·문화예술 교육 운영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적 향유를 위한 문화예술 교육 운영	·문화예술 교육 방향성논의 및 문화예술 교육가 기록 관리

■ 최근 문화예술 교육 사업 순 예산은 지난 4년간 △50,000천원(38% 감소)

-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경우 2019년 3개 사업(예산 35,400천원)에서 2021년 2개 사업(예산 23,000천원)으로 감소, 현재 예술교육강사/기획자 대상 연구모임 지원과 취약계층대상 문화예술교육 공모지원사업 2개만 운영 중임
- 문화예술교육 기획사업도 2019년 4개 사업(예산 72,000천원)에서 2021년 2개 사업(예산 31,400천원)으로 감소하여 현재 일반시민 대상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과 취약계층 대상 맞춤+사회복지형 예술교육 2개 사업만 운영되고 있음

<표 3-17> 수원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예산 증감 현황

연도	예산	비교증감	비율
2019	131,500천원		
2020	87,500천원	△44,000천원	△33.46%
2021	69,500천원	△18,000천원	△20.57%
2022	81,500천원	12,000천원	17.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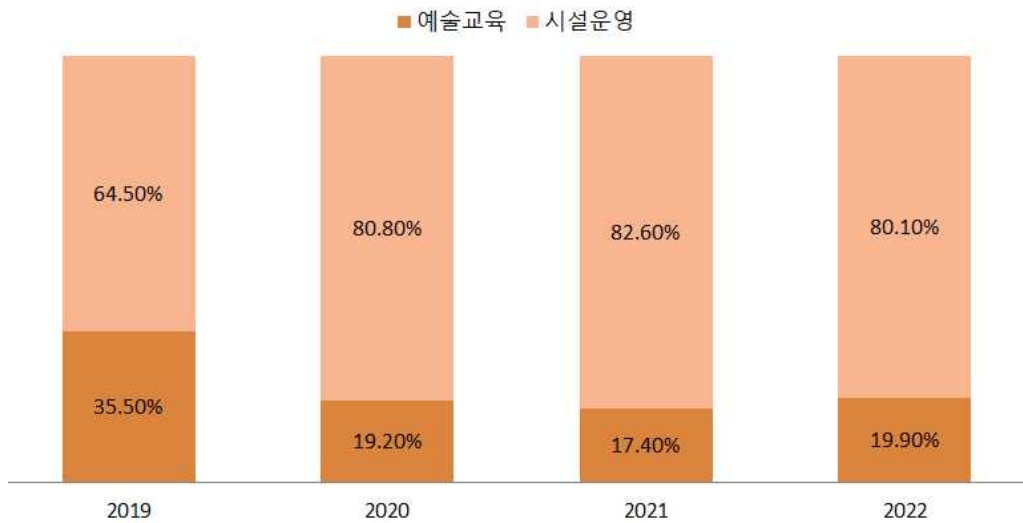
■ 예술교육팀 예산 중 예술교육과 시설관리 예산의 비율이 큰 차이를 가짐으로 팀 정체성과 전문적 교육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음

- 2019년 예술교육팀 예산 가운데 시설관리 예산 64.5%, 예술교육 예산 35.5%로 이미 시설 관리 예산이 예술교육 사업 순 예산을 크게 앞선 가운데, 2020년부터는 시설운영 관리 예산이 80%를 넘어 예술교육 사업예산은 2022년까지도 20%에 미치지 못함

- 수원문화재단 행사성 예산 감축 시행 시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행사성 예산으로 판단, 예술교육 예산이 지속 감소하여 현재 예술교육팀 내 예술교육 순 사업예산은 인구 120만 특례시 규모에 비해 크게 부족한 상황임

<표 3-18> 수원문화재단 예술교육팀 사업예산 비율 현황

연도	2019		2020		2021		2022	
총예산	370,300	100%	456,550	100%	398,338	100%	410,338	100%
예술교육	131,500	35.5%	87,500	19.2%	69,500	17.4%	81,500	19.9%
시설운영	238,800	64.5%	369,050	80.8%	328,838	82.6%	328,838	80.1%



[그림 3-6] 수원문화재단 예술교육팀 사업예산 비율 현황

- 경기도 내 비슷한 규모의 타 기초자치단체 문화재단과 비교할 때, 수원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예산은 매우 낮음
 - 고양문화재단과 성남문화재단 모두 수원문화재단에 앞서 문화예술교육 지원조례를 제정한 바 있음
 - 재단 총예산은 2022년 기준 성남문화재단이 36,824,967천 원으로 가장 많고 수원문화재단이 33,560,576천 원, 고양문화재단이 21,434,255천 원임. 그러나 문화예술교육 사업 순 예산 비율을 살펴보면 성남문화재단은 5.8%, 고양문화재단은 2.5%인데 비해 수원문화재단은 순 사업예산이 전체 재단 예산의 0.002%에 그치고 있음

- 인구수 대비 투입예산으로 살펴볼 때 성남문화재단은 인구 1인 당 2,303원, 고양문화재단은 인구 1인당 493원, 수원문화재단은 인구 1인당 68원임
- 특히 고양문화재단과 성남문화재단은 전담부서의 인력과 예산이 모두 문화예술교육 순 사업비와 업무로 활용되는 데 비해 수원문화재단은 예술교육팀 내 예산 중 1/5만 예술교육 순 사업예산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인력도 예산 용도와 업무 영역에서 나뉘고 있어 실제 문화예술교육 가용 예산과 인력은 더 낮을 것으로 추정됨

<표 3-19> 경기도 내 기초문화재단 예술교육예산 비교

기초 문화재단	고양문화재단	성남문화재단	수원문화재단
① 인구수	108만	93만	119만
② 재단 총예산액	21,434,255천원	36,824,967천원	33,560,576천원
③ 예술교육예산액	532,713천원	2,141,797천원	예술교육팀 예산: 410,338천원 예술교육 순 예산: 81,500천원
예산비중(③÷②)	2.5%	5.8%	예술교육팀 예산 : 1.2% 예술교육 순 예산 : 0.002%
인구 수 대비 투입예산(③÷①)	493원	2,303원	예술교육팀 예산 : 344원 예술교육 순 예산 : 68원
재단 내 인력(팀장포함)	5명	13명(7명)	3명

- 코로나19로 인해 문화재단 전반에서 예산이 다소 감액되기는 하였으며 문화예술교육 주무부서와 사업비 확보의 중요성은 점차 강화되는 추세임
- 수원문화재단은 특례시 규모와 문화도시 위상에 맞추어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을 위한 현실적 예산 수립 필요

<표 3-20> 경기도 내 기초문화재단 예술교육예산 연도별 추이

재단	연도	문화재단 전체예산 (천원)	전체예산 중 문화예술교육 예산(천원)	문화예술교육 관련 기타예산(천원)		
				국비	도비	기타
성남문화재단	2022	36,824,967	2,826,097	60,000	134,000	
	2021	35,750,960	2,580,624	52,570	149,918	-
	2020	38,767,799	4,502,195	2,700,000	73,000	-
	2019	30,020,713	2,930,202	300,000	77,500	-
	2018	28,525,930	2,085,010	-	27,000	-
용인문화재단	2022	23,896,660	929,520	120,000	74,000	0
	2021	20,544,436	970,960	0	75,000	0
	2020	20,531,775	2,217,078	0	65,000	0
	2019	20,520,674	1,225,240	0	0	7,000
	2018	20,241,512	1,231,744	0	0	0

수원문화재단	2022	34,958,176	629,808	81,500	138,100	24,000	467,708
	2021	29,283,645	166,799	69,500	18,500	5,000	143,299
	2020	27,946,766	240,176	89,100		37,000	203,176
	2019	33,745,571	308,810	131,500	11,000	48,000	249,810
	2018	20,232,525	224,777	104,400		37,000	187,777
고양문화재단	2022	21,434,255	544,971		48,227		
	2021	18,706,031	527,965		51,308		
	2020	21,897,577	697,169		72,976		
	2019	20,555,593	583,284		70,804		
	2018	20,028,433	563,533		65,348		

1. 문화예술교육 학습연구 및 관계망 형성

가. 학습개발연구모임

■ 학습개발연구모임의 목적 및 방향

- 학습개발연구모임은 교육 이론 및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교육 프로그램과 전문적인 교수법을 연구·개발하고 전문성 및 네트워크를 강화하는데 주 목적을 가진 사업임
-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외부 전문가의 지속적 평가·피드백이 이뤄졌으며, 2019년 사업명 <학습개발연구모임 ‘곰곰’>으로 변경되어 운영됨

■ 학습개발연구모임 지원 대상

- 학습개발연구모임의 지원 대상은 2016년 문화예술교육관련 연구모임을 할 수 있는 4인 이하 팀으로 시작, 2017년부터 문화예술교육 학습개발·연구가 가능한 2인 이상 4인 이하의 팀으로 공고, 운영됨

■ 학습개발연구모임 연도별 지원 현황

- 수원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학습개발연구모임은 2016년도부터 2021년까지 총 57팀이 지원, 그 가운데 25팀을 지원함
- 2020년까지 지원 단체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2020년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모임 해체 및 예술단체 운영의 어려움 등으로 지원 수 감소
- 지원금은 2016년 9,000천 원, 2017년부터 2021년까지 16,000천 원이었으며 2021년은 코로나19 등의 상황으로 인해 16,000천 원 중 8,000천 원만 지원됨

<표 3-21> 학습개발연구모임 연도별 지원 현황

연도	기간(월)	지원분야	팀현황	지원금	결과공유회
2016	8~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기관별 교육프로그램 리서치 및 연구 •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개발 및 문화예술교육 워크숍, 세미나등 	4개팀 참여	9,000천원 (2,700/2,300/1,300/2,700천원)	2016.12.15. 16:00~18:00
2017	6~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우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리서치, 연구 등 실태조사 • 새로운 교안 개발 등 자율 학습 개발연구 활동 	7건 중 5개 팀 선정	16,000천원 (3,250/3,200/2,550/3,000/4,000천원) ※16년 참가팀 : 프로젝트그룹 번	2017. 09.15. 중간 성과보고회 개최 2017.12.08. 평가보고회
2018	2~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교육 관련 새로운 교안 개발 등 자율 학습개발 연구 활동 • 현장 적용이 가능한 창의적인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개발 및 수원문화지도 참여 	14건 중 5팀 선정	16,000천원 (3,500/2,400/3,500/3,500/3,100천원) ※당해연도 연속지원 예산조정 : △	2018.9.14. 최종 평가보고회 및 심의위원회 개최
2019	4~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교육 관련 새로운 교안개발 등 자율 학습개발 연구활동 • 현장 적용이 가능한 창의적인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개발 	10건 중 5팀 선정	16,000천원 (3,100/3,400/3,500/3,100/2,900천원) ※17년도 프로젝트그룹 번지 ※18년도연속:이든프로젝트	2019.12.13. 최종 평가보고회 및 심의위원회 개최
2020	2~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교육 관련 새로운 교안개발 등 자율 학습개발 연구활동 • 현장 적용이 가능한 창의적인 문화예술교육콘텐츠 개발 	16건 중 4팀 선정	16,000천원	2020.10.26. ※전문가 현장모니터링 으로 대체
2021	2~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교육 관련 새로운 교안 개발 등 자율 학습개발 연구 활동 • 현장 적용이 가능한 창의적인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개발 	6건 중 2팀 선정	16,000천원 중 8,000천원	2021.12.13. ※전문가 모니터링으로 대체

■ 학습개발연구모임 연도별 결과공유회 및 피드백 주요 내용

- 2016년 문화예술교육 연구 활동에 대한 팀별 연구과제를 공유, 지역예술강사 및 기획자들의 네트워킹 형성을 통한 건전한 문화생태계 조성사업으로 평가받음. 16년도 참가팀의 연속·지속적 참여를 위해 우선 사업에 반영할 필요성이 언급됨
- 2017년 중간 성과보고회, 최종 평가보고회가 개최되었으며 심의위원회를 통한 사업 운영 점검 결과, 문화예술교육자들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유도한 것으로 평가됨. 추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중심 연구모임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개선. 2017년 지원 단체 및 연구과제 5건 중 2018년 연속 지원 1건, 프로그램 운영 2건 선정함
- 2018년은 중간 성과보고회와 최종 평가보고회 동일 심의위원을 위촉하였고 선정 단체별 인건비, 자문료 책정기준의 편차가 커 기준안 제시를 통한 교부신청을 받도록 권고받음. 또 문화예술과 지역의 자원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며, 추후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를 별도로 공모하는 방안 등을 고려함. 수예모 골목 놀이학교, 이든 프로젝트 등 2건은 2019년도 연속 지원으로 선정함
- 2019년도 중간, 최종 평가 시 동일 심의위원을 위촉, 차후 학습개발연구모임 지원 사업은 사업 신청 전 해당 사업에 대해 완벽히 숙지하고 지원하도록 안내 필요성 권고. 사회적 협동조합 아름별 문화예술원, 심심한 세대 등 2개 단체는 2020년도 연속 지원 운영선정
-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연구 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며 외에도 연구 선행 체계의 부재, 연구 경험의 부족 등도 지역 기반 문화예술교육 연구에 어려운 요소임. 지원 단체들의 경우 연구의 체계, 목적, 방법론적 접근이 아쉬웠다는 평이 있었으며 보다 지역에 기여하는 프로그램 모델들이 개발되기를 권고함. 또 사업 결과물에 연구보고서 및 학습개발 연구모임 관련 지침 개발 필요,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기본과제 검토 및 연구주제를 제시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
- 2021년의 경우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관심과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각각의 전문성은 인정이 되나 이를 활용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최종결과물에 대해선 다소 아쉬움이 남는 것으로 평가됨.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부족으로 문화예술교육에서 요구하는 내용적 문제를 담아내는 데 한계가 있었으며 연구 개발된 프로그램 또한 전반적으로 새롭고 실험적인 내용이 부족하다는 아쉬움이 있음

- 2019~2021년까지 공모지원사업의 결과가 다소 아쉬움에 따라 사업구조의 개선이 요구되었고 관내 문화예술교육 단체와의 밀접한 네트워크 형성 및 연구모임 운영, 워크숍의 형태로 사업구조를 변경함으로써 더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단체의 풀을 확보하고 수원 문화예술교육을 함께 논의하기로 함. 이 같은 사업의 방향 전환 및 선정단체의 역량을 고려, 연속 지원 단체는 선정하지 않음

나. 전문예술인 교육사업 <오에스>

■ 전문예술인 교육사업 개요

- 전문예술인 교육사업은 수원시 문화예술교육의 저변확대를 위해 수원시 전문예술인들의 예술 활동 지위 및 사회적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함
- 2017년 15,000천 원의 예산으로 시작하여 2018년 12,000천 원으로 예산이 감소하였다가 2019년 15,000천 원으로 복귀하여 참가자들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 내었으나 2020년에 행사비 예산 삭감 정책에 따라 사업이 중단됨

<표 3-22> 전문예술인교육사업 연도별 현황

구분	2017	2018	2019	2020
목적 및 방향	수원시 전문예술인들의 예술활동 지위 및 사회적 역량강화 전문예술인 교육사업	1. 예술인 역량강화, 2.문화예술교육강사 구분된 2개 심화과정 추가		행사비 예산 삭감
기간	2017.09~11. 11회	2018.9.~12	2019.10~12	
대상	수원시에서 활동 중인 전문예술인 및 문화예술에 관심있는자	전문예술인, 예비문화예술인력, 문화예술교육강사등	수원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전문예술인, 문화기획자,예비예술인력등 문화예술인30인	
참여 인원	331명 (11회차누적인원)	263명 (예술교육강사:70, 예술인역량강화:193)	153명	
사업예산	15,000천원	12,000천원	15,000천원	
신청/수료인원	60명 / 27명	55명 / 27명	30명 / 9명	
언론보도	16건	21건	-	
참가자 만족도	평균 4.37	평균 4.3 예술교육강사4.4 전문예술인4.1	평균 4.75 강의4.75/탐방4.85/ 공유회4.65	

■ 전문예술인 교육사업 프로그램

- 전문예술인 교육사업은 2017년 다양한 예술기획 관련 이론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었다가 2018년 예술교육 강사 과정과 전문예술인 역량강화 과정 2가지 심화 프로그램으로 보다 전문성을 갖추게 되었으며, 2019년에는 타 지역 탐방 등을 통한 체험 교육으로 운영됨
- 참가자들은 프로그램에 대해 교육 시간과 회차가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피드백을 매년 제안하였으며, 수원지역의 다른 예술가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는데 도움되었다는 평가를 함. 이를 통해 지역 예술인들의 네트워킹에 대한 높은 욕구를 확인함과 동시에 교육이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행될 수 있는 기획사업 및 현장과의 연계에 대한 필요성도 재고됨

<표 3-23> 전문예술인 교육사업 연도별 교육내용

2017	2018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리엔테이션 •아트펀드레이징의이해 •전략적기획서작성법 •저작권과계약실무 •문화예술지원사업의이해 •문화예술경영과홍보마케팅 •나를위한예술인복지 •예술인심리상담프로그램 •그룹별멘토링클래스 •문화예술교류회및수료식 •우수프로그램벤치마킹 (안동하회마을) 	<p><예술교육강사 과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리엔테이션,아이스브레이킹 •미술관투어,네트워킹파티(현장) •여러가지 연구소의 수수한 탐구생활공유 •문화예술교육 현장을 담은 기획노하우 <p><전문예술인 역량강화 과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리엔테이션,아이스브레이킹 •(축제)지역문화유산활용의방향성 •(기획)문화예술트렌드분석및전망 •(기획)공연기획A~Z까지 •(창작)문화예술남북협력사업사례 •(창작)창작뮤지컬제작사례연구 •(창작)일상속예술,예술적인일상 •(홍보)기획과스토리텔링 •(현장)우수연극<장수상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리엔테이션 •도시_지역성 •사회_보헤미안씬 •경제_로컬크리에이터 •문화_연결고리 •충청권탐방(1박2일,대전-공주) •전라권탐방(1박2일,광주-목포) •행궁동크리에이터와만남(체험)

2. 문화소외계층(브릿지) 예술교육 프로그램

가. 브릿지 예술교육프로젝트(찾아가는 문화예술교육 공모지원)

■ 브릿지 예술교육프로젝트(찾아가는 문화예술교육 공모지원) 개요

- 브릿지 예술교육 프로젝트(찾아가는 문화예술교육 공모지원) 사업은 수원 관 내 주요 장소와 문화예술교육 단체가 협력하여 취약계층 및 문화 사각지대 시민들에게 우수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목적을 가짐
- 2019년 사회복지형 예술교육 프로젝트로 시작하여 2020년 시민의 심신 안정과 문화예술 사회적 가치 전파를 위한 보건 차원의 예술 치유로서 ‘예술로 마음짓기’ 사업이 운영되었으며 2021년에는 치유에 한정하기보다는 교육 대상자들을 확대 하는 방향으로 운영

<표 3-24> 브릿지 예술교육 프로젝트(찾아가는 문화예술교육) 현황

구분	2019	2020	2021
목적 및 방향	사회복지형 예술교육프로젝트 2019<브릿지 예술교육 프로젝트>	• 시민의 심신안정, 문화예술 사회적가치 전파를 위한 보건차원 예술치유 •사업명:‘예술로마음짓기’추가	치유개념 보다 대상자를 넓히는 쪽으로
기간	2019.6~8	2020.10~12	2021.6~11
대상	문화소외계층대상 청소년	취약계층/정신취약계층	문화소외계층 아동, 청소년 취약계층/정신취약계층
장소	수원청소년문화센터	수원시성인정신건강복지센터	수원시아동정신건강센터 / 수원시 드림스타트 가정,작업실등온라인
참여 인원	350명	20명 모집(각 10명) /7명 수료(각 5명, 2명)	• 20명(각 10명) 모집 / 누적 120명(각50명, 70명) •결과보고전시89명관람
회차	7회	28회(각 14회)	14회(각 6회/8회) 및 결과전시 1회
사업 예산	17,000천원	10,600천원	9,409천원
참가자 만족도	•만족도 높음(90%) •새로운 경험, 프로그램 체험 이 좋았다는 평 •연속 및 지속성 아쉬움	• 90% 이상 높은 만족도	• 90% 이상 높은 만족도

■ 브릿지 예술교육프로젝트(찾아가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 2019년 업사이클러, 디자인, 공예, 전문 강사들과 연계한 체험 교육으로 운영하였으며, 전시 프로그램으로 확장하여 예술교육 프로그램 향유 기회를 제공, 청소년들의 박탈감 해소 및 자존감 향상을 위한 기회를 제공함
- 2020년에는 연극치료와 무용 수업 등 2가지 예술치료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함. 연극치료는 총 14회차로 연극을 통해 개인과 타인의 관계를 진단하고 두려움과 갈등을 극복해나가는 집단 성공 경험에 초점을 두었으며, 무용 수업은 14회차로 자기 몸과 마음을 탐구하고 존중해나가는 과정으로 운영함
- 2021년에는 시각예술 중심의 <우리를 연결하는 모양> 총 6회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평면, 드로잉 기반의 예술교육 활동을 진행하였으며, <리틀 히어로> 총 8회 프로그램은 예술과 미디어 창의 융복합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다양한 미디어 경험과 소통을 통한 정서적 안정과 미적 경험을 제공함

<표. 3-25> 브릿지 예술교육프로그램(찾아가는 문화예술교육) 현황

2019	2020	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드컬러링 소품만들기 •플라워 볼펜 만들기 •천연비누만들기 •교통카드 지갑만들기 •석고방향제만들기 •약세서리만들기 •작품전시 	<p><연극치료>총 14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4회차:신뢰형성,흥미유발,진단,초점맞추기 •5~8회차:나와타인의이해,두려움극복,갈등해결연습 •9~14회차:도움주고받기,집단성공경험(발표회등) <p><무용수업>총 14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의몸그릇어떻게생겼을까? •내몸의주인이되어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마음돌보기 •내몸에핀꽃은? •컴플렉스와사귀기 •춤추는세르토닌 •사계절을만나는몸 •당신을존중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를편안하게 •보이지않은마음에불을밝혀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때그랬지 •물입에이르는길 •일상이춤이되다 •평화의몸을만나다 	<p><우리를 연결하는 모양> 총6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무고개드로잉 •별자리자화상 •여러가지 모양을 연결해보는 드로잉 놀이_1 •여러가지 모양을 연결해보는 드로잉 놀이_2 •도형캐릭터 만들기 •도형캐릭터 마을꾸미기 <p><리틀히어로> 총8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빙글빙글빛나는소행성만들기_1 •빙글빙글빛나는소행성만들기_2 •빛과소리가나는 히어로장갑만들기_1 •빛과소리가나는 히어로장갑만들기_1 •빛과소리가나는 히어로장갑만들기_2 •빛과소리가나는 히어로장갑만들기_2 <ul style="list-style-type: none"> •히어로의마법봉만들기 •소행성을지키는리틀히어로

나. 브릿지 예술교육 프로젝트 (기획사업)

- 브릿지 예술교육 프로젝트 (기획사업)은 수원시 전역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모지원 사업으로 시작되었으며 2020년 브릿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으로 사업명을 변경,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더욱 균등한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운영됨
- 프로그램의 회차와 수혜 대상이 적은 것에 대한 시민들의 아쉬움이 있었으나 예산 부족의 한계로 인해 홍보나 모객을 적극적으로 하기 어려움
-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노인 대상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비대면 예술교육의 가능성을 만나는 기회가 되기도 함. 우수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연속 지원하는 방향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제기됨

<표 3-26> 브릿지 예술교육 프로젝트(기획사업) 현황

구분	2017	2018	2019	2020
목적 및 특징	수원시 전역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찾아가는 문화예술교육	전년동일	전년동일	*사업명 변경 : 브릿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기간	2017.2~11	2018.2~11	2019.04~12	2020.06.~10.
수혜 대상 선정	단체별 상이	단체별 상이	단체별 상이	소외계층 및 사회,정신취약계층
장소	북수원도서관/화서다산도서관/버드내도서관/모던생활음악협회	수원화서다산도서관 /권선지역아동센터 /노을빛지역아동센터 /수원청소년문화센터	수원화서다산도서관 / 세류초등학교 외 / 경기상상캠퍼스 / 별터문화마을 및 서호노인복지관 / 매여울도서관	사회복지법인 동광원 /윤슬청소년지역아동센터 / 헤명예술학교 / 밤밭노인복지관
지원 분야	예술강사 및 기획자 등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가능자(단체)	관내 예술강사 및 기획자 등 프로그램 운영가능 단체(3인 이하)	관내 예술강사 및 기획자 등 프로그램 운영가능 단체(3인 이하)	관내 예술강사 및 기획자 등 프로그램 운영가능 단체(3인이하)
지원 금	13,000천원	15,000천원(일부 사업포기)	19,400천원	15,000천원

■ 연도별 브릿지 예술교육 프로그램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3-27> 브릿지 예술교육 프로그램 연도별 운영 현황

	사업명	프로그램명	연령대	참여 인원	기간	운영장소	사업예산
2018	찾아가는 문화예술 교육	덩더쿵 청흥동당 시즌2	확인불가	28명	2018. 4. 26 ~ 6. 28	수원화서 다산도서관	3,600,000
		전통국악교육(사물/풍물)을 통한 전통가락학습과 예절배우기	확인불가	30명	2018. 4. 1 ~ 10. 30	권선지역 아동센터	2,000,000
		똑딱똑딱 인형마차 '자 떠나자! 오즈의 나라로!!!'	확인불가	17명	2018. 5월~9월	노을빛지역 아동센터	3,200,000
		취향과 취미를 찾는 아이들	확인불가	400명	2018. 4월~10월	수원청소년 문화센터	3,600,000
2019	브릿지 예술교육 (문화소외계층 대상 기획사업)	취향과 취미를 찾는 아이들	청소년	350명	2019. 6월 ~ 8월	수원청소년 문화센터	17,000,000
	찾아가는 문화예술 교육	덩더쿵 청흥동당 시즌 3	확인불가	25명	9.4~10.30	수원화서 다산도서관	3,700,000
		자연주의학교	확인불가	15명	5.10~9.30	세류초등학교 외	3,700,000
		도시놀이본부	확인불가	12명	5.14~6.21	경기상상캠퍼스	3,700,000
		포크댄스로 건강하고 신바람나는 신중년문화만들기	확인불가	20명	4.26~10.25	별터문화마을 및 서호노인복지관	4,000,000
		오늘의 이야기 문화학교, 수원설화	확인불가	20명	5.3~10.30	매여울도서관	4,000,000
2020	브릿지 예술교육 (문화소외계층 대상 기획사업)	예술로 마음짓기(연극, 무용)	성인	20명	2020. 10월 ~ 12월	수원시성인 정신건강복지센터	10,500,000
	브릿지 예술교육 (문화소외계층 대상)	캡틴뮤직레인지	어린이	8명	2020. 7.08~9.30	사회복지법인 동광원	4,000,000
		내마음을 찾아가는 캘리그래피	어린이	9명	2020. 5.10~9.30	윤슬청소년 지역아동센터	3,000,000

	공모지원 사업)	아트(ART) 탐험!	청소년	10명	07.15~10.30	혜명 예술학교	3,785,000
2021	브릿지 예술교육 (문화소 외계층 대상 기획사업)	우리를 연결하는 모양	초3~4학년	10명	2021. 8. 2.(월) ~ 8. 17.(화)	가정	3,500,000
		리틀히어로	초 3~6학년	10명	2021. 8. 4.(수) ~ 8. 26.(목)	가정	4,900,000
	브릿지 예술교육 (문화소 외계층 대상 공모지원 사업)	징검다리:마음이음	아동	17명	2021.08.04 ~11.03.	새수원지역 아동센터	5,500,000
		나는 바람이다_춤으로 내딛는 세상	성인	10명	2021.06.25 ~10.25.	수원시 성인정신 건강센터	4,600,000
		오늘은 ART DAY!	성인	10명	2021.07.06 ~08.05	수원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4,900,000
2022	브릿지 예술교육 (문화소 외계층 대상 기획사업)	내가 상상하는 이야기	미취학 아동	10명	2022.8.6~ 2022.11.30 (4개월)	市 드림스타트 센터	4,000,000
		미술로 바운스 바운스	초등학생	10명	2022.8.6~ 2022.11.30 (4개월)	수원 푸른교실 미술치료 연구소 내 아틀리에	5,000,000
		방! 방! 미술로 놀이방!	초 1~3학년	10명	2022.8.6~ 2022.11.30 (4개월)	수원시 지역 아동센터	4,000,000
	브릿지 예술교육 (문화소 외계층 대상 공모지원 사업) *추진중 사업으로 확인불가	브레인 아트 캠프				수원시정신 건강센터	5,000,000
		그림자 친구와 춤을				수원시아동 청소년정신 건강센터	5,000,000
		덩더쿵 청흥동당 시즌4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 센터	5,000,000

3. 시민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 시민문화예술교육 사업목적

- 본사업은 수원시민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으로 연령별, 지역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을 통해 “사람 중심의 문화예술 도시 수원” 조성을 목적으로 함

■ 2017 시민문화예술교육 ‘열린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형 예술교육 프로젝트<움직이는 기계인형>’

- 2017년 열린 문화예술교육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문화예술교육단체의 프로그램을 재단의 운영 공간에서 수원시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함
 - 재단에서 운영하는 어린이도서관 및 문화시설을 교육 공간으로 활용하여 공모를 통해 단체 및 프로그램을 선정, 진행됨
 - 2017년도 한해 진행된 프로그램은 ‘오늘은 공공예술 하는 날’, ‘몸으로 상상하기’, ‘금요일 오후 도서관에서 살아있는 동화 속 주인공을 만나요’, ‘도자기에 담긴 우리집 식탁이야기’, ‘천년용의 비밀’, ‘나의 노래 작곡 프로젝트’, ‘영화의 모든 것, 이렇게 만날 수 있다’등 총 7개 프로그램이 선정됨

<표 3-28> 열린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선정 현황(2017)

프로그램명	대상	교육기간(회차)	총사업비	정원/신청/수료인원	교육장소
오늘은 공공예술하는 날	초3~4	9.1~11.10 (10회)	2,500천원	20명/15명/12명	슬기샘도서관
몸으로 상상하기	초3~4	9.5~11.14 (10회)	1,400천원	20명/8명/8명	슬기샘도서관
금요일오후도서관에서살아있는동화속주인공을만나요	유아	9.1~11.10 (10회)	4,200천원	15명/15명/14명	지혜샘도서관
도자기에 담긴 우리집 식탁이야기	성인	9.5~11.28 (12회)	4,200천원	20명/20명/18명	지혜샘도서관
천년용의 비밀	초3~5	9.6~11.29 (12회)	3,000천원	15명/17명/14명	바른샘도서관
나의노래작곡 프로젝트	초4~6	9.4~12.4 (12회)	3,200천원	10명/8명/7명	문학인의집

영화의 모든것, 이렇게 만날수 있다	성인	9.4~11.7 (17회)	4,500천원	15명/18명/4명	문학인의집
---------------------	----	----------------	---------	------------	-------

- 7개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가, 시민모니터링, 참여자들의 평가 및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평균 점수 88.1점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았으며, 공간운영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차질 없이 진행되었음
- 2017 시민참여형 예술교육 프로젝트 <움직이는 기계인형>은 <2017 수원연극축제>와 축제 이후 어린이도서관 방문객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다수의 시민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전시’와 ‘대형 오토마타 제작 및 전시’로 진행함
 - ‘기획전시’는 행궁 갤러리에서 축제 전과 기간 중 관람객이 직접 구동할 수 있는 오토마타와 마리오네트 작품을 전시 및 체험하는 프로그램 운영
 - ‘대형 오토마타 제작 및 전시’는 행궁 광장과 지혜샘 어린이도서관에서 수원화성을 주제로 대형 오토마타 제작물을 설치하여 방문자 대상 전시 및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함

<표3-29> 시민참여형 예술교육 프로젝트 운영결과(2017)

구분	기획전시		대형 오토마타 전시 및 체험	
일정	4.27(목) ~ 5.7(일)		5.5(금) ~ 12.31(일)	
시간	축제 전	10시~18시	9시~18시	
	축제 중	10시~21시		
장소	행궁갤러리		행궁광장 및 지혜샘어린이도서관	
관람인원	9,677명		행궁광장	22,500명
			지혜샘어린이도서관	129,000명

- 2018 ‘시민문화예술교육’과 ‘시민참여형 예술교육 프로젝트<숲속 작은무대, 나도 예술가!>’
 - 2018 ‘시민참여형 예술교육 프로젝트<숲속 작은 무대, 나도 예술가!>’는 2018년도 수원연극축제 관람을 위해 경기상상 캠퍼스에 방문한 시민과 관광객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제공을 위해 축제 컨셉(숲속의 파티)과 연계하여 동화 속 주인공 얼굴의 가면과 이솝우화를 활용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함

- 5월 25일부터 27일까지 경기상상캠퍼스 플랫폼 1986 앞 체험장에서 진행된 프로그램은
폼 클레이를 활용한 동화 속 주인공 가면 만들기, 제작한 가면을 활용한 짧은 역할극 진행,
참가자 활동사진 촬영 등 프로그램을 운영
- 총 96팀, 381명의 시민과 관광객이 참여하였고 참가자 대상 설문 결과 5점 만점 중 4.8점의
높은 만족도를 보임
- 2017년까지 ‘열린 문화예술교육’은 2018년에 ‘시민문화예술교육’으로 사업명이
변경됨
 - 재단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도서관 및 문화시설을 교육 공간으로 활용하여 단체와 프로그
램을 공모 선정함
 - 2018년도 하반기 ‘내가 만든 우리 아이 출산선물’, ‘오늘은 공공예술 하는 날’, ‘오감으로
찾는 소확행’ 등 총 3개 프로그램이 선정 진행됨

<표 3-30> 시민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선정 현황(2018)

프로그램명	대상	교육기간(회차)	총사업비	인원	교육장소
내가 만든 우리 아이 출산선물 - 태교와 교육	성인	9.7~10.26. (8회)	2,660,000	15	지혜샘어린이 도서관
오늘은 공공예술 하는 날	초3~5	9.7~11.23 (12회)	3,300,000	15	바른샘어린이 도서관
오감으로 찾는 소확행 小確幸	성인	9.5~ 12.5 (12회)	4,308,000	15	예술인의 집

■ 2019 시민문화예술교육

- 2019년 시민문화예술교육은 시민을 대상으로 문화예술을 통한 사회적 교육 가치
실현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하반기에 진행함
 - 재단에서 운영하는 어린이도서관과 관내 문화공간을 중심으로 단체 및 프로그램을 선정
진행함
 - 2019년도 하반기 진행된 프로그램은 ‘스마트미술 <펜아트>를 이용한 창의예술교육’, ‘만
들고 배우는 태교와 교육’, ‘설화 속 괴물을 찾아서’ 등 총 3개 프로그램이 선정됨
 - 3개 프로그램에 대한 100점 만점에 참여자들의 평가 및 만족도는 95.2점을 평균 점수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전문가 82.3점, 시민모니터링 96.5점 등 긍정적 평가를 얻음

<표 3-31> 시민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선정 현황(2019)

프로그램명	대상	교육기간(회차)	정원/신청/수료인원	교육장소	총사업비
스마트미술 <펜아트>를 이용한 창의예술교육	청년	10.14~11.16 (8회차)	18명/15명/3	울천동 마을공동체 공간	10,660천원
만들고 배우는 태교와 교육	성인 (예비 부모)	10.18~11.22 (6회차)	12명/12명/3명	지혜샘도서관	
설화 속 괴물을 찾아서	초3~6	10.16~11.6 (4회차)	15/15/13	경기상상캠퍼스	

■ 2020 시민문화예술교육 <예술로 다가서기>, 하반기 <비대면 체험프로그램>

- 2020년 시민문화예술교육은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에 따라 비대면 문화예술교육으로 운영됨
 - <수원이 캐릭터를 활용한 면 마스크 만들기>는 4월~7월 진행됐으며, 1차 저소득층, 한부모·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2차는 수원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대상을 열어 놓음
 - ‘수원이’ 캐릭터를 활용해 마스크를 만드는 비대면 형식으로 수원시의 홍보기획관과 수원시청소년재단(수원청소년문화센터)과 업무협약을 진행, 비대면 체험 프로그램 영상을 업로드하여 온라인 신청을 통해 신청자를 받고 개별 자택으로 프로그램 교구를 배송하여 체험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고 총 1,100매(1가구당 2매, 550가구)를 배포함
 - 추가로 ‘수원이 투명우산 만들기’ 프로그램도 기획하여 슬기샘·지혜샘·바른샘어린이 도서관과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함
- 2020년 하반기 시민문화예술교육 <비대면 체험프로그램> 저소득층, 한부모·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에 따라 피로감에 지친 시민들을 위해 비대면 형식으로 진행함
 - <수원이 투명우산 만들기>는 8월~9월에 진행됐으며, 2차에 나눠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한 500가구에 교구재를 전달하였으며, 수원시 청소년문화재단과 책문화부와 연계하여 오프라인으로 300명의 참여자와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함

■ 2021 시민문화예술교육 지역특화체험프로그램

- 2021년도 시민문화예술교육은 5월~11월 총 3곳의 어린이도서관과 관내 문화공간에서 운영함
 - 2021년도 한해 진행된 프로그램은 ‘내 아이의 놀이전문가’, ‘나만의 인생 유물 찾기’, ‘수원 무궁화 만들기’, ‘나도 그림책 작가’ 등 총 4개 프로그램 진행
 - 대상자를 살펴보면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프로그램이 3개로 학부모(20~40대), 중년(40~60대), 장년(60~80대) 등 대상이 보다 세분화 된 것이 특징임

<표 3-32> 시민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선정 현황(2021)

프로그램명	대상	교육기간(회차)	정원/신청/수료인원	교육장소	총사업비
내 아이의 놀이전문가	학부모	5.11~6.29 (8회)	9명/6명/4명	푸른지대 창작센터	20,500천원
나만의 인생유물 찾기	중년	5.13~7.1 (8회)	9명/8명/8명	푸른지대 창작센터	
수원 무궁화 만들기	장년	6.16~10.27 (8회)	10명/10명/6명	밤밭노인복지관	
나도 그림책 작가	초3~5	9.24~11.26 (11회)	10명/10명/10명	바른샘도서관	

- 4개 프로그램에 대한 100점 만점에 참여자들의 평가 및 만족도는 96.95점을 평균점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전문가 81.25점 등 높은 평가를 받음
- 2021년도 지역특화 체험프로그램 <학교에 서커스!>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의 지속적 추진과 수원연극축제 연계, 서커스 콘텐츠를 활용한 초등학교 대상 연극 및 공연 분야 프로그램을 목표로 개발
 - 프로그램명은 ‘비대면 예술교육 프로그램<학교에 서커스!>’로 9월~12월까지 서커스 공연 관람 및 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며 관내 8개 초등학교 1~2학년 대상 25개 학급이 참여함

<표 3-33> 비대면 예술교육프로그램<학교에 서커스!>(2021)

no.	운영날짜	학교	학년	학급수	학생수	비고
1	11.4	상률초	2학년	4개	94명	비대면
2	11.9/11.11	오현초	2학년	5개	115명	비대면
3	11.18	선일초	2학년	3개	87명	대면

4	11.23	서호초	1~2학년	4개	89명	비대면
5	11.25	매산초	1학년	2개	42명	비대면
6	12.2	효정초	1학년	2개	51명	비대면
7	12.7	권선초	2학년	2개	55명	비대면
8	12.9	남창초	1~2학년	3개	40명	대면

- 100점 만점에 참여자들의 평가 및 만족도는 81점을, 전문가 모니터링 95점 등 높은 평가를 받음

■ 2022 경기시민예술학교 기초협력사업 ‘상상하는 수원캠퍼스’와 하반기 시민문화예술교육

- 2022년도 경기시민예술학교 기초협력사업 ‘상상하는 수원캠퍼스’는 공모지원 선정 프로그램으로 111CM 복합문화공간을 거점으로 진행
- 사업기간은 5월~11월로 성인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함
- 프로그램은 ‘시민예술교육프로그램 <머무는 교실(하루의 백스테이지)>’, ‘생소한 학당(1+1+1CM, 한 치 앞에 대한 질문)’, ‘예술강사 대상특강 <머무는 교실(하루의 백스테이지)>를 위한 백스테이지’ 등 3개 프로그램이 진행됨

<표 3-34> 경기시민예술학교 기초협력사업 ‘상상하는 수원캠퍼스’ 프로그램(2022)

no.	프로그램	일정	대상	형태
1	머무는 교실 (하루의 백스테이지)	1기 : 6.9~8.11 2기 : 9월~11월	일반시민 (기수별 20명)	참여형
2	생소한 학당 (1+1+1CM, 한 치 앞에 대한 질문)	9.15~10.25	일반시민 (회차별 20명)	강의+참여형
3	[특강] 머무는 교실 (하루의 백스테이지)	6월~10월	<머무는교실> 참여강사 4인	강의+참여형

제4장
수원시 문화예술교육
발전방안

제1절 수원시 문화예술교육 연구 인터뷰

제2절 수원시 문화예술교육 발전을 위한 컨퍼런스

제3절 수원시 문화예술교육 발전방안 제언

1. 수원시 문화예술교육 관련 인터뷰

- 수원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현황조사를 위해 관련 예술가 및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1:1 인터뷰를 진행함

- 1:1 인터뷰 기간 및 장소 : 2022년 10월~12월, 수원시 일대 및 온라인ZOOM
- 1:1 인터뷰 참여자 : 한문희 수원문화재단 인문도시주간 총감독, 이병숙 도의원 (전 수원시의원), 백현주 독립기획자 (문화도시수원 사업컨설턴트/ 전 수원시평생학습관 기획실장), 운영옥 작가 및 예술교육가

- 한문희 수원문화재단 인문도시주간 총감독

- 수원시민들의 예술 및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관심과 수요

“요구가 없진 않음. 광고나 영통 같은 신도시 쪽에는 젊은 엄마들도 많이 있고 반대로 서수원 쪽은 워낙에 구도심이 많으니까 오랫동안 살았던 분들이 있음. 예술교육에서 우리가 흔히 만나게 되는 층들이 얼마든지 관심 가질 만한 또는 오래된 구도심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들이 있으므로 이런 지역 스토리들을 연구한다거나, 발굴한다거나 또는 그런 것들을 지역 주민들이랑 같이 프로그램하는 기회들을 보고 젊은 층들이 계시는 신도시 쪽도 이런 욕구들이 있음.

문화예술 교육이 기본적으로 갖는 공공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교육이 필요한 단순한 일차적인 차원에서 어떤 정보에 대한 전달도 필요하겠지만 삶에 대한 감각이나 수준 높은 고양 측면 등 문화예술 교육을 통해서 가능한 부분들이 많음.”

- 수원에서 문화도시의 과정과 방향성, 아쉬움

“문화도시를 한다 그러면 빠질 수 없는 게 그 지역의 예술가들과의 작업이라고 생각함. 우리가 어떻게 좀 더 예술적이고 창의적인 도시를 만들어갈까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 재단, 예술, 지역 이렇게 3주체가 움직여야 도시의 활력이 될 수 있는데 일단 문화도시센터가 추구하는 방향은 아쉽게도 예술가는 다소 빠져 있음. 문화도시

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술가와의 작업인데 문화도시가 됐어도 지역에 있는 예술가들이 잘 알지 못하고, 전해 들으니 관심이 부족할 수가 있음.”

● 수원문화재단과 지역 예술가들과의 관계

“수원문화재단이 설립될 때 신생 조직으로 설립된 게 아니라 기존에 운영재단이 했던 일(주차장 관리, 티켓 관리, 전통 공연 등)과 기본적으로 조직이 형성되는 데 필요한 시스템이나 규정이나 관리 체계들이 그대로 수원문화재단에 흡수가 됨. 조직의 어떤 기본적인 규정이나 규칙들이 한 번 형성되면 바뀌기가 어려운데 출발을 거기서 했기 때문에 문화예술보다는 관리조직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고 여겨짐.

초기에 문화재단이 설립되었을 때 그동안 수원에 없었던 예술가 지원 같은 기능들이 생기니 기대와 관심이 높았는데 현실은 지역 예술가들과 끈끈한 협력 관계를 만든 것이 아닌 공모사업 정도에 그쳤고 다소 보수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예술가들로 하여금 문화재단이 권력 집단으로 여겨지거나 담을 쌓게 된 것은 아닌가 생각함.

문화재단의 예산 편성이 결국 조직이 어디에 힘을 싣고 있는가로 살펴볼 수 있는데, 현재는 수원 화성 문화재, 미디어아트 축제 등 문화유산과 관련된 곳에 굉장히 힘이 많이 실려 있고, 그 외에는 대규모 공연, 놀이 문화 등의 형태로 보여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많은 예산을 쓰고 있음. 반면에 지역의 예술을 진흥한다던가 문화예술교육을 폭넓게 설정하여 시민들이 삶 속에서 직접 예술을 누리는 부분은 아직 아쉬운 상황이라고 생각함.”

● 수원시에 필요한 문화예술교육

“수원 내 광고와 같은 곳에서는 창의적 예술교육에 대한 요구가 강할 수밖에 없음. 우만동 글로벌학습관의 경우 위치는 우만동인데 실이용자는 광고나 용인시민이 많았음. 학습관 운영시간과 여건 등의 이유로 실제 학습관이 만났으면 하는 층은 여유가 없거나 문턱이 높다고 느껴 오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임.

예술교육이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방향들이 있음. 그런 보편적인 가치 외에 우리가 수원에 살고 있는데 수원 각 지역성을 생각해보면 거기에서 출발할 수 있는 교육들도 있음. 서수원의 경우 유일하게 녹지가 많이 남아있는 곳인데 생태하천과 논밭의 장소적 특성을 생각할 수도 있고, 수원의 지역성을 생각하고 출발하되 기존의 정조, 수원화성 키트도 필요하겠지만 그걸 넘어서는 창의적 예술로서의 교육이 가능할 것임.”

● 지역 예술교육가 및 예술단체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

“처음부터 역량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지원이 필요. 예술가들한테 뺄 것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함. 시도해서 실패하더라도 소액으로 파일럿 프로그램들을 해볼 수 있고 연속 지원이 가능하여 키워가는 방식으로 지원, 지역 콘텐츠가 나올 수 있게 역량을 지원해야 함.

또 수원문화재단 스스로도 역량을 키워가는 게 중요함. 재단이 그냥 행정 조직은 아님. 재단 자체 문화사업과 관련한 역량도 필요하므로 예산이 적더라도 일부 예산이나 혹은 교부예산을 갖고 와서 고민하고 개발하며 기획형 공모 같은 것을 자꾸 해봐야 한다고 생각함.”

● 수원문화재단에서 문화예술교육의 가치와 방향

“수원문화재단에서 문화예술교육은 꼭 필요한 사업임. 각각의 단체마다 고유의 목적성이 있고 할 수 있는 방식들이 다름.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에는 성인 중심의 평생 학습적 측면에 맞춰서 가는 거라면 문화재단은 평생학습관이나 백화점 문화센터와는 다른 보편적, 예술적으로 필요함.

시대성이 필요함. 예를 들어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로 기후 문제를 생각해보면 생태적인 예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서수원에 있는 111CM을 활용할 수 있고 실험 목장, 탑동 시민농장 아지트 등과 같은 형태로 청년 기획자와 예술가들의 예술교육 플랫폼과 거점이 필요함. 또 다른 예로 거대수원의 단절 문제를 위한 문화예술교육이 가능한데 현재 장소들은 관리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경향이 있음. 장소가 플랫폼이 되고 성장하는 의지가 있다면 전통문화와 연계하더라도 충분히 지역의 예술교육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임.”

● 수원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전담 조직

“현재 시설과 예술교육을 같이 관리하고 있음. 그런데 공간관리와 공간 활용은 다른 문제임. 문화재단의 회의실에서 빗물이 새면 문화재단의 시설팀에서 보수를 해줘야 하는 것이지만, 그 공간을 활용하거나 공간에서 일어나는 문화예술 콘텐츠 활용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임.

문화재단 사옥 전체를 관리하는 걸 예술팀이 직접 관리하지 않듯이 시설 업무는 전체 시설 관리 측면으로 접근하여 별도의 전문성을 갖고 떨어져 나가야 할 일임.

이런 것들은 시설 관리 측면에서 접근해줘야 하고, 예술교육팀은 예술교육 업무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함.”

■ 이병숙 도의원 (전 수원시의의원)

● 수원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조례 제정 배경

“그 당시에 수원시가 문화도시로 국비를 따라온 상태라 문화도시 역할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많은 데이터를 보게 됨. 그러다 문화예술교육 부분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많이 좋아짐. 옛날처럼 먹고 사는 일에만 몰두하지 않아도 우리가 살 수 있게끔 됐고 노령화 사회가 되면서 사람들의 삶의 내용을 채워주고 싶었음.

그러나 단순히 개인, 그러니까 시민 개인이 문화예술 쪽에 관심을 둔다고 해서 쉽게 접근하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님. 국가나 지자체나 지방정부에서 국민의 문화예술 소양 함양과 향유를 위해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을 책임지고 해야 할 시대라는 생각에 수원시 문화예술교육의 기반이 될 수 있게 조례를 만든 것임.”

● 조례 제정을 및 문화예술교육 운영상의 아쉬움

“수원문화재단의 담당 직원이 있었는데 전담 직원이 거의 혼자 그 일을 하고 있고 수원시청에서는 담당하는 직원조차 없는 상황이었음. 수원문화재단에는 문화예술교육 순 예산이 1억도 안되어 120만 도시에 비해서 너무 예산이 적게 책정이 돼 있고, 국비나 도비를 따와서 운영 중이어서 그런 어려움들을 이야기 나눴음. 아쉬운 것은 수원시청 문화예술 관련 직원들이 이런 부분에 관해서 관심도 없고 무엇을 할 것인가, 혹은 해야 한다는 당위성, 관심이 거의 없는 상태였음. 그런 부분에 대해 그때 어려움과 아쉬움이 있었음.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분야에 사용되는 예산이 많음. 예를 들어 마을 만들기 사업도 충분히 가능한 같은 사업인데 그 사업 속에서 문화예술교육을 나누어 함께 가면 되는데 지방자치나 또 특례시 재정에서 군 공항과 같은 굵직굵직한 사업들에 관심과 예산이 많이 집중되면서 시민들의 삶에 대한 부분, 문화예술 소양과 창의적인 교육 부분에 관해서는 관심을 받지 못한 것이 문제로 여겨짐.”

● 조례 이행을 위한 수원시와 수원문화재단의 역할

“일단은 관심이 없는 게 제일 큰 문제임. 문화예술교육 지원조례를 만들어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전환이 되지 않는 부분임. 신체적으로 살을 찌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정신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그런 것에서 살을 채워나가야 한다고 생각함.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관심을 끌어내기 위해서 토론회나 아니면 포럼들을 많이 개최해서 문화예술교육 자체가 우리가 밥 먹고, 숨 쉬고 뭐 하는 것처럼 아주 일상화돼야 하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 널리 알려져야 함.

또 수원시에 엘리트 예술인들이 많고 수원시향, 합창단, 전문예술인 지원은 잘 되고 있다고 봄. 그러나 계속 얘기하지만, 문화예술교육이라는 게 우리나라 국민 자체가 초등학교 때 조금 다들 한 번씩 접해보고 배워보다가 끝나지 않나. 문화예술교육을 전 연령대에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할 수 있게 해야 함. 바우처 제도를 활용해도 되고 전 시민을 대상으로 고른 혜택 마련이 필요함.

그리고 축제 같은 다양한 영역에서 수원시가 큰 국비를 잘 따오는 편임. 문화도시도 200억짜리 예산을 따온 만큼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당위성을 공유한다면 같이 예산을 매칭해주어 다양한 예산으로 문화예술교육이 가능한 일이 될 것임.”

■ 백현주 독립기획자 (문화도시수원 사업컨설턴트/ 전 수원시평생학습관 기획실장)

● 수원시민에게 문화예술교육의 의미와 가치

“수원시민, 서울시민, 지리산 어디에 사는 사람에게도 문화예술교육의 의미가 사실은 같다고 생각함. 교육을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지만 크게 하나가 사회화하는 교육, 사회에 적응시키는 교육이라고 한다면 다른 하나는 그 사회의 현재를 변화시키고 더 낮게 만드는 교육으로 볼수 있음. 이 사회에 적응하고 살아남고 생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배움의 가치라고 보지만 평생교육 그중에서 특히 문화예술교육은 적응에 의미보다는 오히려 관용화되고 적응되고 사회화될수록 그것을 고정하고 강화하는 현재 상태와 방식에 대해 의심하고 이것이 꼭 진리나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그런 질문을 갖게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함. 즉 더욱 시민을 예민하게 만들어 의문시하지 않은 것을 의문시하고 문제시 삼지 않았던 것이 문제시함으로써 더 나아질 가능성을 만드는 게 문화예술교육의 의미와 가치가 아닐까 생각함. 다만 현재 문화예술교육이 다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과제가 문화예술교육의 가장 높은 차원의 상이자 의무라고 생각하는 편임.”

● 수원시 평생학습관과 수원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의 차이와 추구점

“문화예술교육과 평생교육의 역사, 목적, 원래 태생적 배경을 봤을 때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라 생각함. 교수자-학습자 간 전형적, 권위적, 전통적인 관계를 타파하고 단순한 프로그램 형태를 벗어나 더 자기 주도적인 과정 중심, 프로젝트와 같은 형식을 바라는 것임. 다만 평생학습은 문화예술교육보다 큰 범주를 다루고 있고, 경계를 통해 정의하자면 문화예술교육은 평생교육 일부로 여겨질 수도 있을 것 같음. 그러나 평생학습의 6진 분류법에 따르면 여기에서 문화예술교육은 풍선아트, 부채춤, 단순 공예 같은 취미와 같은 내용으로 분류되어 있음. 평생학습의 많은 종사자가 현재 이런 분야를 문화예술교육이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상호 갭이 크다고 할 수 있음. 평생교육 측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가장 쉽고, 가장 수요가 많다고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임.

그러나 문화적 선진화를 위해 단순한 취미에서 벗어나 시민들의 경험은 다채로울 필요가 있지만 냉정하게 볼 때 문화 다양성 측면에서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있음. 예를 들어 발레는 있지만 현대 무용은 없고, 피아노는 있지만 거문고를 배울 기회는 드물다는 것임. 즉 이제 다양성을 가진 스펙트럼의 인재도 있고, 취미 영역부터 어떤 프로젝트 예술을 경험하는 수준까지 다양해졌지만, 평생교육은 기획력보다는 강사에 기대는 제도, 즉 재생산되는 구조라고 한다면 문화예술교육에서 교육은 다양성 측면에서의 기획과 고도화된 프로그램, 프로젝트의 시도가 가능한 영역이라고 여겨짐”

● 수원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의 역할

“평생학습관의 경우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함께 성장한 시민과 직원들이 남아 철학을 지켜나가는 부분이 있음. 즉 나름의 연속성이 있음. 그러나 문화재단은 순환보직이 너무 빠르고 수원시와 수원문화재단 내에서 문화예술교육을 이해하고 정책사업화하면서 지지하는 분위기가 아직은 부족함. 기초 거점사업이나 문화도시 사업을 하면서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함께 활성화해가는 춘천, 전주 등과 같이 재단 내부에서 문화예술교육이 설득되어야 함.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이유는 수원시 문화예술과나 재단 내부에서도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을 경험해 본 행정가들이 별로 없기 때문. 지금까지 중앙 및 광역 단위로 단체와 직접 만나서 사업들을 해왔기 때문에 기초문화재단에서 오히려 정보패싱이 되고 경험이 부족했던 것임.

수원문화재단은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을 시도하고 실험해 볼 수 있는 예술가 자원이 있음. 또 문화재단이 관계를 맺고 있지 않지만, 역량 있는 문화예술인들도 많이 있음. 이들이 그동안 문화재단이 가진 한계 때문에 함께하지 않았다가 문화도시 사업이나 기초 거점사업을 하면서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함. 비록 수원문화재단 기존 문화예술교육 예산이 아주 적지만 평생교육관과 연계하여 상황에 필요한 개발을 같이하면서 예산 시너지를 만들 수 있고 시민과 만나기 좋은 장, 예를 들어 111cm과 같은 공간적 거점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의 테스트베드가 될 수도 있을 것임. 다만 평생학습과 연계할 때 또 문화예술교육을 하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으므로 두 가지 전략이 있음. 하나는 기존 평생학습에 하던 기능 중심 예술교육의 양을 조금 줄이는 대신 질적 수준과 다채로움을 높여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복지, 청소년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문화예술교육을 기획하고 개발하는 것임.

문체부가 하는 문화예술은 기획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 기획의 역량을 문화예술인들을 데리고 일거리를 함께 창출하는 차원이자 취미 교육에 머물러 있는 수준을 높이는 차원, 타 분야와 연계 속에서 문화예술교육의 여러 가치를 설득해가는 방식으로 역할을 찾아볼 수 있을 것임.”

● 기억에 남는 평생교육, 혹은 예술교육의 사례 추천

“수원시 평생학습관에 ‘거북이 공방’이 있음. 일반적인 공방은 나무로 물건을 만드는 행위 중심인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물성임. 이를테면 숲에 가서 나무를 보고, 대나무 숲에 가서 대나무를 보고, 나무에 관해서 탐구하는 것임. 의자, 도마 만들기도 있지만 어떤 날은 종일 기계 도구를 쓰는 데 집중하기도 하고 나무를 깎는 데 집중하기도 하고, 나무 냄새를 맡는 등 굉장히 총체적으로 활동함.

즉 공방에서는 시민 개인이 주인이 됨. 공방 기계들은 여러 가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사실 관리자가 있어야 하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2~3시간짜리 프로그램하고 달히는 게 일반적임. 그러나 거북이 공방에서는 예산상 관리자를 둘 수도 없지만 시민 간 약속, 책임, 권한의 분배 구조를 운영자, 강사진, 학습자 모두가 함께 나누어 가지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계속 열려있고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임. 즉 거북이 공방에서는 교육 프로그램만 있는 게 아니라 공간의 주인 됨을 찾아가는 과정들이 프로그램 밖에 배움으로 함께 한 것임.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사례라는 게 사례의 표피를 벤치마킹하는 오류의 여지가 크기 때문에 사례를 넘어 그것이 가능한 조건, 예를 들어 수원시 평생교육관의 직원들의

업무 상황과 같은 조건들을 함께 봐야 할 것임. 기회가 된다면 그때 함께 했던 직원들과 사례에 관한 이야기를 충분히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이고, 본 연구 또한 허무하게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 내용을 갖고 어떤 문제의식을 느끼고 어떤 것을 얻었는지 공유하는 연속성도 의미 있을 것임.”

■ 운영육 작가/ 예술교육가

● 수원시민이나 예술교육가로서 바라본 수원문화재단

“제가 수원에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게 2014년부터. 그러다가 수원문화재단 뿐만 아니라 많은 문화예술교육을 하는 기초문화재단 중심으로 문화예술교육 콘텐츠에 대한 요구가 많아졌는데 2017년도 수원문화재단과 교육 연구 사업을 진행하였고 결과공유회 자리가 어떻게 연구내용을 콘텐츠화할 것인가에 대한 심사 자리처럼 바뀌면서 문화재단과 사이가 틀어지게 되었음. 아르떼에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지침과 지표를 만들어 내려주었고 재단은 그것에 맞춰 하다 보니 그런 것이라 이해는 되었지만, 수원문화재단 나름대로 그 내용을 해석하고 현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매우 아쉬웠음.”

● 수원문화재단과 수원시 예술교육가들과의 관계

“수원문화재단과 기초문화재단이 모두 겪고 있는 상황으로 보직이 약 2년 주기로 바뀌는 것이 큰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함. 2021년 말부터 수원문화재단과 다시 협력하게 된 이유는 조직이 바뀐 것인데, 현재 예술교육팀은 현장을 좀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태도와 나누는 이야기들이 있음. 예술교육가들을 모으고 네트워킹하는데 가봤더니 정말 어떠한 목적 없이 이야기를 듣는 자리였음. 또 하나는 문화예술교육에 대해서 본인들이 모른다는 걸 인정하고 시작하니까 마음이 조금 더 열린 것 같음. 알고 모르고 경험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술가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 의문 혹은 질문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사업을 함께 하게 됨.

행정에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문화예술에 대한 해석 능력인데 그 이유는 인력이 너무 적음. 한 사람이 맡은 사업이 4~5개 되다 보니까 그런 구조 안에서 성장할 수 없는 구조로 있는데 저도 가까워서 보고야 알게 되었음. 문화도시와 관련하여 인터뷰하면서 지역 예술가들이 수원문화재단에 대해 가진 어마어마한 분노와 마주

하게 되었는데 분노의 방향이 좀 잘못됐고 나도 그랬다는 생각이 들었음. 대부분은 그냥 재단이라고 하는 큰 어떤 기관 그 안에서 마주하고 있는 개인이 그 기관인 것처럼 보고 생각해 버리기 때문인데 그래서 조금 더 이해시키는 노력이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음.”

● 수원문화재단이 추구해야 하는 문화예술교육의 방향

“우리가 지금 하는 문화예술교육에서 어떤 성과 혹은 성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불가능할 수도 있으니 유의미한 실패를 좀 만들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음. 문화재단이나 기관에서는 그 방식을 받는 게 쉽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문화예술교육에서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정량적 평가라는 부분이라고 여겨짐. 수원문화재단과 경기시민예술학교를 할 때 저녁 7시 이후에 하겠다는 것이 저의 조건이었음. 왜냐하면 낮에 할 경우 항상 오는 사람만 오게 되고 또 하나는 일을 마치고 나서 예술 경험을 원하는 분들을 만나고 싶은 것이었음.

결과적으로는 모집이 쉽지 않았고 퇴근하고 오는 사람들도 피곤하고 촉박한 상황에서 참여하는 것에 대해 또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됨. 실제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느끼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끝까지 나온 사람들이 있었고 성공, 실패를 떠나 새로운 가능성을 보게 된 것이 크고 행정적 유연함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할 수 있게 됨.”

● 수원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제언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우선 문화재단에서 일하고 있는 분과 예산을 살피는 시의원들이 문화와 예술에 대한 경험과 이해를 높이는 것으로 생각함. 재단 직원들이 문화예술을 내걸고 일하고 있지만 경험과 이해가 부족하다고 느낌. 현장에서 활동하는 예술가와 시민들은 유연성과 자율성을 바라지만 재단은 기존에 해오던 방식으로 가는 안정성을 추구할 수밖에 없음. 결국 접점에서 고민이 필요함. 기존에 해오던 방식에서 이 정도로 사람들이 모이는 게 관례고 나쁘지 않은 평가를 받았다고 하면 더 이상 발전적인 노력이 어려울 수 있음. 긴 호흡으로 갈 수 있게 예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함께 고민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여겨짐.

또 조금 더 모험을 같이 즐겨주기를 바램. 앞서 이야기한 경기시민예술학교의 경우 어려운 조건들이 많았음. 저녁 7시 이후에 수업한다는 것은 직원들에게 야근하라는 얘기고 공공기관 111cm에 공간적 책임을 저달라는 이야기인데 그걸 해준 것임.

막상 진행해보니 이게 쉬운 일은 아닌데 직원들이 결정과 모험을 함께 해주고 있는 것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음.

마지막으로 직원 개개인이 주체로서 건강하게 고민했으면 하는 바람. 재단 직원들은 현장에 와서 예술가들에게 동료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현장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은 그렇게 인식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물론 진심인 분들이 있어 통하기도 하고 함께 활동하기도 하지만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하다고 여겨짐. 특히 수원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예산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의 문제 이전에 예산을 위해 함께 싸워줄 이들을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임.”

2. 수원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FGI

- 수원문화재단 예술교육팀이 지향해야 할 조직 환경 및 예산에 대해 문화재단 팀장급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FGI를 진행함

- 자문일시 및 장소 : 2023년 2월 9일, 수원 한옥기술전시관
- FGI 및 자문회의 참여자 : 경기문화재단 예술교육팀 황연정 팀장, 세종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팀 최윤정 팀장,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 이상훈 센터장 및 수원문화재단 예술교육팀장 및 직원, 바라컬처스랩 소장 및 연구원

- FGI에서 도출된 내용 요약은 다음과 같음

- 인터뷰 참여자 대부분은 문화재단과 다른 주체 간의 협력망 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했으며, 협력 사업을 통해 학습자의 요구를 알고, 예산과 인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나타남. 더 나아가 시설 활용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기초문화재단의 경우 시책 사업을 통한 재단과 행정 간의 공생 관계 설정이 주되게 인식됨. 시장의 주 역점사업과 문화예술교육의 연결고리를 주도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두드러짐
- 문화예술교육의 지지층 형성도 공통적인 주요 과제로 언급되었으며, 신진 발굴 및 육성, 재단의 문화예술교육 가치를 함께해주는 시민 협력망의 중요성이 강조됨
- 문화재단 내 인사는 문화예술교육의 가치, 철학과 긴밀함. 기초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전문성의 핵심은 담당자의 네트워크 협력망과 기획자와의 프로그램 기획 역량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광역 및 기초문화재단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재단별 문화예술교육 사업 및 협력 현황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여러 가지로 풀어나가는 방법 중 지역 내 문화자원을 활용해 보는 방법이 있음. 작년에 경기에서 학교 의견을 수렴했을 때 우리 지역 내 문화자원들을 활용하고 싶다는 내용의 의견이 있었음. 아이들이 직접 공간을 찾아가서 체험하고 교육하는 과정을 통해 시설도 이용하면서 자연스러운 협력체계 구축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

- 경기문화재단 예술교육팀 황연정 팀장

“세종시는 크게 실적 사업, 시책 사업, 신진 발굴 사업으로 나누어 진행함. 실적 사업의 일환으로 아카데미 사업 내 수익금을 활용해 단체를 육성하는 사업이 진행 중이며, 이는 규정 수정을 통해 2019년부터 가능해짐. 시책 사업의 경우 시장님의 주 역점사업을 가져와 예술교육으로 진행함. 문화예술교육의 지지층을 만들기 위한 신진 발굴·육성과 문화예술교육단체 재교육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임.”

- 세종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팀 최윤정 팀장

“재단의 역할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가 필요함.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무엇이 문제이며,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하고, 거기에서 재단이 해야 할 역할이 뭘까를 생각하는 것이 필요함. 이 과정에서 학습자의 요구를 재단이 다 알 수 없으므로 협력망 구축도 필요한 것.”

-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 이상훈 센터장

● 시 도청 및 재단 내부 협력 방안

“시장님마다 주 역점으로 생각하는 사업이 있음. 이전 시장님의 역점사업을 세종문화재단이 가져와 진행한 사례가 있음. 이번 시장님의 시책 사항 또한 교육사업으로 전환하는 과정 중에 있으며, 해당 과와 논의 중임. 물론 시장님을 설득하는 것은 어렵지만 함께 협력하여 시책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세종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팀 최윤정 팀장

“조직과 예산 부분에 있어서 문화재단과 행정 간의 관계 설정이 제일 중요함. 두 주체 모두 공공의 이익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이며, 재단의 일 또한 정책 분야로서 새로운 시의 정책을 만들어 예산을 투입하고, 인력이나 조직을 가동해야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공생하는 방향으로 시와의 관계를 주도적으로 풀어나가야 함.”

-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 이상훈 센터장

● 소액 예산을 넘어 시너지 방안

“부족한 예산의 경우, 협력 사업을 통해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풀어나갈 필요성이

있음. 경기문화재단의 2022년도 ‘노는 예술’의 경우, 문화예술교육 단체들을 뽑아서 기관하고 매칭하는 것으로 올해까지 진행 중임. 예산이 있다면 매칭을 통해 진행하는 방법도 다른 협력체계를 꾸려나갈 수 있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음. 더 나아가 도와 시군에서 해야 할 교육의 역할을 정리할 필요가 있음. 포괄적인 개념, 감각을 다루는 경기와 달리, 수원외의 경우 더 특화하여 깊이 있게 들어가도 좋을 듯.”

- 경기문화재단 예술교육팀 황연정 팀장

“문화재단의 예산만이 아니라 교육과 연관된 다른 예산 또한 살펴볼 필요성이 있음. 성남의 경우 성남 평생학습원과 연계하여, 한 분기를 대상으로 성남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전수조사를 시행한 사례가 있음. 평생학습 내 문화예술 분야와 연결 지어 외부 자원을 연결한 것.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요구나 가치는 여러 분야에서 높아졌지만, 갈피를 못 잡는 곳이 많음. 그 방향을 제시하고 예산을 함께 활용하고 움직일 수 있게끔 기획하고 실행하는 것이 재단의 역할이라고 봄.”

-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 이상훈 센터장

“문화예술교육의 지지층을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임. 이전에 건설과 관련된 도·비 지원이 갑자기 끊기면서 세종문화재단의 예산이 절반 정도 삭감된 전례가 있음. 현재 예술지원 쪽 사업 예산은 많이 복구됐지만, 예술교육 사업예산이 돌아오지 않은 가장 큰 이유가 ‘문화예술교육을 지지하는 지지층이 없어서’인 것으로 추정됨. 이에 문화예술교육의 지지층을 만들기 위한 신진 발굴과 육성, 신진 발굴에 따른 수혜자에도 노력하고 있음. 특히 문화예술교육 자체가 강사와 보조강사 구조로 이루어지기에 혼자 진행될 수 없다는 특징이 있음. 교육 혹은 네트워크 형태의 자리 마련을 통해 신진 발굴과 재교육에 힘써야 함.”

- 세종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팀 최윤정 팀장

“세종시에서 말씀해주셨다시피 지지자가 많아야 함. 재단의 문화예술교육 가치를 인정해주고 함께해주는 사람들, 협력망이 필요한 것. 오히려 시민의 입소문이 시의 원을 움직이는 경우가 많음.”

-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 이상훈 센터장

● 문화예술교육의 전문성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재단 내 인사이드임. 인사는 문화예술교육의 가치, 철학과도

연결된다고 생각함. 수원도 문화예술교육의 가치, 철학, 그리고 전문성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음. 성남은 문화예술교육 전문성의 핵심을 네트워크 협력망으로 보고 있음. 지역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의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받는 것은 기초에서 가장 필요한 지점임. 예술 강사 네트워크, 지역단체 네트워크에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함. 두 번째 전문성으로는 기획자와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는 담당자의 역량인 것 같음. 그렇기에 성남으로서는 직원의 경력 관리 체계를 어떻게 지표화할 것인지가 과제임. 결국 전문성은 우리가 만들어가고, 그 전문성을 드러내는 것은 담당자의 몫.”

-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 이상훈 센터장

■ 수원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담당자들은 각 재단의 입장에서 문화예술교육의 가치와 차원, 재단의 역할에 대해 자문을 구함.

- 인터뷰 참여자 대부분은 문화예술교육과 중첩 용어 간의 차원 문제를 크게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시민 중심의 공적 가치를 문화예술교육의 기본 가치로 인식, 운영함
- 소외계층 대상 브릿지 예술교육을 보편적 교육인 학교 교육으로 접근하는 것이 제안됨. 문화재단은 학습자 기반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시민의 성장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소외계층에 대한 표현을 지양하고, 보편적 교육 사업 운영을 통해 브릿지 예술교육을 운영하는 것을 제안함.

■ 광역 및 기초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관련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문화예술교육의 가치와 차원

“문화예술교육과 예술교육 간의 용어 차이는 실행자의 관점에서 중요하지 않음. 또 평생교육과의 차이는 사실상 다 연결된 것이기에 구분할 필요가 없음. 문화예술교육의 기저에는 공공으로서의 공적 가치가 깔려야 함. 지역 주민, 사랑, 애정이 저변에 깔려 재단의 존재 가치에 대한 것이 충분히 이해되어야 함.”

-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 이상훈 센터장

“생활문화, 평생학습, 문화예술교육은 사실 누가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르며, 얼마만큼 동의받느냐의 차이로 보임. 수원 내 시설 안에서 하는 문화예술교육 예제

들을 정리하고, 재단 안에서 문화예술교육의 정의를 정리한다면, 인식의 상승과 함께 시의회의 선택을 받지 않을까 싶음. 세종의 경우 생애주기별 예술교육을 통해 사람을 성장시키는 팀이라는 인식이 있음. 이런 쉬운 포지션부터 정리하기 시작하면 예술교육의 필요성이 인식되지 않을까 싶음.”

- 세종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팀 최윤정 팀장

“평생학습, 생활문화가 커지면서 문화예술교육과 중첩되는 부분들이 많아짐. 하지만 문화예술교육은 문화예술 시민으로 가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함. 문화예술교육이 다른 교육과 차별화되는 지점은 예술임. 문화예술교육과 예술교육 간의 용어 차이를 이해할 필요는 없으나, 문화예술교육은 예술을 중심으로 문화시민으로 가기 위한 교육이 아닌가 싶음.”

- 경기문화재단 예술교육팀 황연정 팀장

● 소외계층 대상 브릿지 예술교육 접근 방향

“문화재단은 학습자를 기반으로 한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그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공감 능력과 소통 능력을 키우게끔 해야 함. 이것이 문화예술교육을 하는 핵심적 가치 이유임. 그렇기에 소외계층에 대한 표현도 지양해야 함. 실제로 중간 계층 아이들이 사각지대인 경우도 있기에 사업 대상을 보편적으로 열어두되, 선발은 어려운 아이들을 먼저 하는 것이 재단의 역할 중 하나라고 생각함. 그렇기에 보편적 교육인 학교 교육이 중요함. 소외계층이 많이 사는 학교를 교육하는 것으로, 작년에 성남에서는 학생 60~70% 이상이 소외계층인 은행 중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사업을 운영했음.”

-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 이상훈 센터장

■ 수원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담당자들은 조직 내 시설 관리 업무에 대해 자문을 구함.

- 인터뷰 참여자 대부분은 수원시 문화예술교육팀 내 시설 보수·관리 업무를 안전성에 대한 우려와 예술교육팀의 순기능 저하를 근거로 조직 분리를 제기하였으며, 예술교육팀의 효율적인 조직 환경을 위해 시 혹은 민간 위탁을 통한 시설 관리도 제안됨

■ 시설 관리와 조직 운영 관련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시설 보수·관리 안전상의 문제

“시설 보수·관리는 전문성을 요구하는 중요 업무임. 안전성에 대한 우려로 일반 직원이 맡아도 되는 업무가 아닌 듯. 예술교육팀 안에 시설 관리 조직이 있는 비정상적인 구조에서 탈피하여 경영 조직이나 시설 관리로 조직이 분리되어야 함.”

- 세종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팀 최윤정 팀장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봄. 시설 보수·관리는 시민의 안전과도 연결되는 문제임. 시설 안전 관리 전문과 거리가 먼 예술교육팀 일반 직원이 담당할 뉘은 아님.”-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 이상훈 센터장

“예술교육팀의 전문성은 문화예술교육사업에 있다고 봄. 수원문화재단 예술교육팀은 수원시의 예술교육을 담당하는 전담부서임에도 주된 업무 현황이 시설 관리인 셈임. 시설 활용을 통한 교육사업 추진이 아닌 시설 보수·관리가 주된 업무인 상황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함.”

- 경기문화재단 예술교육팀 황연정 팀장

● 시 혹은 민간 위탁을 통한 시설 관리

“현재 수원문화재단이 맡는 시설은 6개임. 111CM을 제외하고 남은 5개 시설을 시 혹은 민간 용역을 통해 관리를 맡기는 방향을 제안해봄. 프로그램을 조금 포기하더라도 예술교육팀의 이름에 걸맞게 시설 관리 보다 예술교육에 집중해야 할 때.”

- 세종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팀 최윤정 팀장

“문화재단이나 문화시설공단이나의 문제. 시간이 걸리더라도 민간의 토론을 활성화 하면서 시설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바르다고 생각함. 민간 위탁은 지역 예술인들을 지원하는 방법이기도 하며, 그 비용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 되기도 함. 또 민간이 재단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시설을 활성화할 수도 있음. 따라서 지역 단체를 키워주는 재단의 입장에서 민간의 토론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 이상훈 센터장

제2절

수원시 문화예술교육 발전을 위한 컨퍼런스

- 수원문화재단은 수원시 문화예술교육 발전을 위한 컨퍼런스(부제: 창조적, 예술적 문화도시 수원을 향한 문화예술교육의 현안과 비전)를 개최하여 수원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관심 확산 및 역할 재고, 본 연구의 최종보고서 결론 도출 자료로 함께 활용함
- 주최 및 주관 : 수원시, 수원문화재단, 문화도시 수원, 바라컬처스랩
 - 컨퍼런스 일시 및 장소 : 2023년 2월 23일(목) 오후 2~4시/ 수원 111CM
 - 참여자 : 수원시 문화예술교육 정책 관계자, 수원시 관련 부처, 수원시 문화기반시설, 학교, 지역아동센터, 복지관 등 문화예술교육 수요기관 담당자, 문화예술교육자, 예술가, 수원시민 등 약 80명
 - 프로그램 일정

<표 4-1> 수원시 문화예술교육 발전을 위한 컨퍼런스 세부 운영일정

시간	내용	발표자
14:00~14:10	오프닝 및 수원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소개	김유리 수원문화재단 예술교육팀장
14:10~14:20	「2022 수원시 문화예술교육 현황조사」 결과 발표	김태희 바라컬처스랩 소장
14:20~14:35	경기도 문화예술교육의 정책 흐름 및 문화재단의 역할	황연정 경기문화재단 예술교육팀장
14:35~14:50	울산시 교육청 보편적 예술교육 활성화 사례	정혜련 울산시 교육청 장학관
14:50~15:05	기초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구조화 사례 : 성남문화재단 조직, 예산, 강사풀제 중심으로	이상훈 성남문화예술 교육센터장
15:05~15:20	문화도시에서 문화예술교육의 의미와 중요성 : 춘천문화재단 사례를 중심으로	권현아 춘천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팀장
15:20~15:45	수원시 문화예술교육의 현안 및 발전 방향 토론	발표자 및 참여시민
15:45~15:50	수원시 문화예술교육 발전을 위한 제언 및 정리	김유리 수원문화재단 예술교육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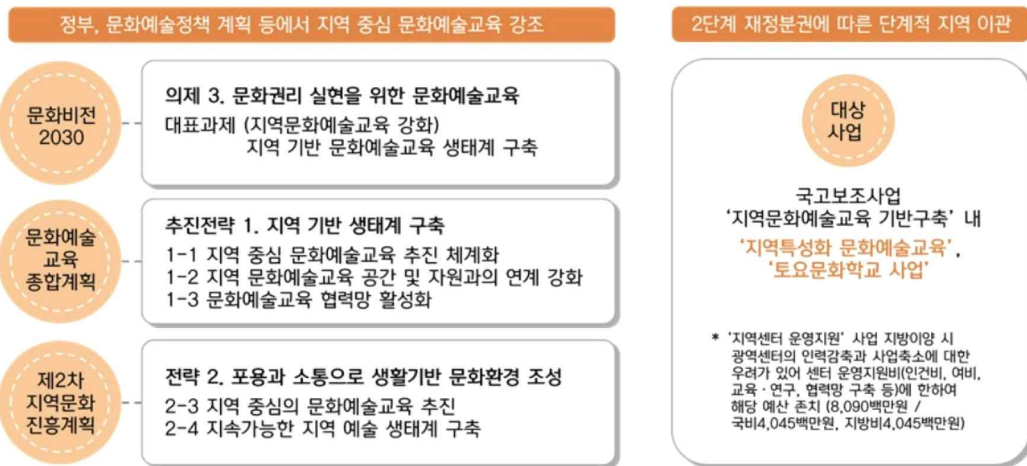
1. 문화예술교육 정책 사례

가.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정책 흐름과 문화재단의 역할

(발제자: 황연정 경기문화재단 예술교육팀장)

■ 중앙 정부의 문화예술교육 현황

- 2005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설립 이후 국가 차원에서 예술교육을 촉진 및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은 지속됨. 2000년대 초반부터 강조된 지방분권에 따라 문화예술교육도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18~'22)]과 같은 지방분권에 관한 내용을 발표함
- 중앙 정부의 문화예술교육 정책은 지방분권 이슈와 함께 지역 중심 문화예술교육을 강조하고 있음. [문화비전 2030]에 따르면, '문화 권리 실현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이 의제 3으로 기재되었으며, 지역 기반 문화예술교육 생태계 구축을 대표 과제로 삼고 있음.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18~'22)]은 추진전략으로 '지역 기반 생태계 구축'을 갖는 것으로 나타남. [제2차 지역문화진흥계획]은 '지역 중심 문화예술교육 추진', '지속가능한 지역 예술 생태계 구축'을 전략 2의 과제로 제시함



자료원 : 경기문화재단(2022) 경기도 문화예술교육('23-'27) 연구용역/ 황연정 경기문화재단 예술교육팀장 발표 자료 중

[그림 4-1] 정부 2단계 재정분권에 따른 단계적 지역 이관

- 중앙주도적 공급자 중심의 문화예술교육에 한계로 인해 문화예술교육 현장 내 수요 파악 미흡, 질적 관리 및 지역문화예술교육 생태계 미흡이 지적되었으며, 정형화된 교육 프로그램 틀로 인해 공모 지원사업의 형식과 관리 방식에 문제가

제기됨. 이에 민간 주체 형성을 위한 환경 조성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지역문화 예술교육의 지방이양이 진행되었고, 2019년부터 자체적인 기획사업 운영과 공모 방식 변화가 가능해짐

- 2022년부터 국도비 매칭으로 내려왔던 전국 17개 시도의 문화예술교육 사업이 센터 운영비와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 대부분 지방 이양됨. 이러한 기저 하에 지역 중심, 생활 밀착형 문화예술교육으로 정책 흐름이 이어짐
- 광역과 기초의 역할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교육진흥원으로부터 [22년 지방지역문화예술교육 사업추진 참고 가이드]가 내려옴. 이에 따르면, 기초 단위, 지역 단위의 조례 제·개정, 지역문화예술교육 협치를 위한 광역-기초 및 타 영역과의 연계·협력 강화, 지역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공론화 및 담론 형성,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을 위한 매개자 역량 강화 환경 조성, 지속적인 연구·개발·실행의 필요성이 광역센터의 새로운 역할로 제시됨
- 2023년 2월 27일 [제2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3~'27)]이 수립, '누구나, 더 가까이, 더 깊게 누리는 K-문화예술교육'이라는 비전 아래 총 3가지 목표와 3개 추진전략, 7가지 추진과제가 선정됨
- 수원시의 경우 지역 중심 사업 특성에 따라 [제2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3~'27)] 가운데 추진전략 2-1) 문화예술교육으로 살리는 지방시대,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교육 지원'과 '지역문화예술교육 자율 기반 강화'를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음. 생활에 밀접한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체계구축과 사업 운영을 위한 생활 밀착형 문화예술교육 거점지정(인증)제 도입, 생활권 내 문화예술교육 활용 공간 지원 활성화를 주요 과제로 선정함. 지역문화예술교육 자율 기반 강화를 위해 광역 주도 지역 내 문화자원 조사, 광역-기초 협업 기획사업 설계, 진행된 사업 우수사례 수집 및 광역과 구별되는 표준모델 설계 및 배포가 세부 과제로 제시됨

■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현황 및 추진 방향

- 경기도는 31개 시군, 전국 1위 인구 규모, 도시, 농촌, 어촌, 산촌, 도서 등 다양한 도시 형태를 지닌 광역임. 따라서 똑같은 문화예술교육 정책이 불가함. 현재 31개 시군 중 22개 기초재단이 설립되어 있으며, 5개 지자체는 타당성 검토 중임. 문화 기반시설 자원의 경우 국립도서관, 공공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총 569개, 인적 자원은 2022년 1차 조사 기준 5,680명, 2차 기준 5,921명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

로 큰 규모로 나타남. 학교 수 또한 전국의 4분의 1 수준에 가까운 4,657개가 경기도에 자리함으로써 평균 이상의 과밀 학생 수와 학급수를 지님. 문화시설, 인적 인프라, 수요자 등에 있어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를 지닐 것으로 추정됨

- 31개 시군, 22개 문화재단 설립을 배경으로 경기도 내 조례 제정 현황은 총 6개임. 수원은 쉽지 않은 조례 제정을 마친 상황이기에 문화예술교육 발전으로의 도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경기문화재단은 경기문화예술교육 기본방향 도출을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침. 문화예술교육 현황분석 및 추진위원회 구성을 통한 5가지 의제 도출, 한 번의 컨퍼런스와 여섯 번의 라운드 테이블을 통한 의견수렴 및 5가지 키워드, 지역 중심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대안 및 방향을 도출함
- 총 5가지 기본 의제는 다음과 같음. 의제 1. 경기도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 중심 문화예술교육, 의제 2. 주체의 전문성을 유지하는 지원체계, 의제 3. 학교 안팎 문화예술교육, 의제 4. 문화예술교육 관계자 연수체계 구축, 의제 5. 문화예술교육 공유 플랫폼. 위 5가지 의제를 바탕으로 ‘인력’, ‘장소’, ‘플랫폼’ ‘연계 협력’, ‘확산’이 5가지 키워드로 도출됨
- 컨퍼런스와 라운드테이블 의견을 토대로 정리된 지역 중심 문화예술교육 주요 내용은 5가지 키워드와 관련, 추진 방향은 주체의 역할에 따라 기본 골조가 세워짐. 경기도와 시군의 역할 구분을 전제로 경기도는 직접 사업보다 지역 중심 문화예술교육 체계구축 지원을, 시군은 지역 중심 문화예술교육 기획 및 실천을, 문화예술교육 실천가들은 지역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실현을 방향으로 설정함



자료원 : 경기문화재단(2022) 경기도 문화예술교육(‘23-’27) 연구용역/ 황연정 경기문화재단 예술교육팀장 발표 자료 중

[그림 4-2] 경기도 문화예술교육계획('23~'27) 비전 및 전략

- 경기문화재단「경기도 문화예술교육계획('23~'27)」은 '삶 속에 스며드는 뿌리가 튼튼한 경기도문화예술교육'이라는 비전 아래 '지역 중심 문화예술교육 기반 구축'과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고도화'를 두 가지 목표로 삼고 있음. 전략 2. 시군 문화예술교육 기반 강화 과제를 살펴보면, '문화예술교육 인식 개선 및 개념 정립'을 위한 공론화 추진, 조례 제·개정 지원, 문화예술교육 수요 및 자원 조사 지원, 홍보 강화, 경기 문화예술교육 행정 안내서 마련 및 확산이 안으로 제시됨. '도-시군 협력 및 정보망 구축'을 위하여 경기문화예술교육 상호 협력망 사업 확대 등 인트라넷을 구축하고, '경기도 내 시군 행정 및 실무자 역량 제고'를 위하여 맞춤형 연수 운영, 신규 투입 인력을 위한 자문 인력 등 구체적인 실행안을 제시하고 있음
-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시민의 욕구나 향유 의식은 굉장히 높아짐. 문화예술교육은 중앙과 광역, 기초, 현장, 타 영역과 함께하는 것이기에 수원시만의 몫이 아닌 함께 고민해나갈 필요성이 있음

나. 울산시 교육청 보편적 예술교육 활성화 사례

발제자: 정혜련 장학관 (울산광역시교육청 체육예술교육팀장)

■ 지역 연계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추진 배경

- 울산광역시는 다른 지역보다 예술 자원이 부족한 현황임. 대학 및 예술 관련 학부 부족으로 인하여 진로와 연계된 예술교육 실행이 어렵다는 점에서 지역 연계의 필요성이 강조됨. 2020년 울산학생교육문화회관이 설립되고, 보편 예술교육으로의 문화예술교육 추세 변화, 문화예술 분야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지역 연계 예술 체험을 추진하는 기틀이 마련됨. 이에 교육청과 지역의 예술기관이 협업하여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학교 현장에 지원하고, 예술 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인 학교예술교육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 울산시 교육청과 5개 문화예술회관 연계사업

- 울산시 교육청과 5개 문화예술회관 연계사업은 2019년 업무협약을 기점으로 시

작됨. 교육청-학교-문화예술회관 간의 사업을 확대하고자 이후 매년 협약을 늘려 가며 사업을 진행 중임.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문화복지사업 상호협력 및 프로그램 공동 기획을 통한 학교 지원, 프로그램 홍보 및 인적·물적 자원 공유로 나타남

- 교육청의 지원 사항으로는 교육청 내 홍보용 거치대 설치와 공문을 통한 전 학교 게시 홍보가 있음. 교육청 1층과 7층에 5개 문화예술회관의 공연 및 전시 홍보를 위한 거치대를 마련하고, 지역단체 혹은 기관이 홍보를 요청하면, 학교 현장의 협조를 위해 공문을 통하여 게시 홍보를 진행함. 울산 학생과 교직원 할인 혜택도 제공됨
- 업무협약을 맺은 교육청과 5개 문화예술회관 실무자는 분기별로 모여 사업을 공유하고 상호협력사업을 논의하고자 지역 협의체를 구성함
- 울산문화예술회관 연계사업의 경우, 교육청 행사인 울산교육문화예술제를 회관에서 개최하여 학생들에게 작품전시 기회를 제공하거나 공연장 프로그램 체험 기회를 지원함. 2022년은 고3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기획 공연을 무료로 지원함
- 현대예술관 연계사업의 경우, 현대예술관 측의 30% 할인 제공과 교육청 예산을 통한 나머지 금액 지원으로 전시와 공연을 학교 현장에 지원함. 현대예술관의 홍보 요청에 따라 진행 공연과 전시 자료 또한 학교 현장에 지속적으로 전달되고 있음
- 울주문화재단은 외곽 지역에 자리 잡아 좋은 프로그램에 비해 참여율이 저조함. 이에 교육청과의 연계사업을 통해 2022년 각 기관에서 관람료를 반씩 지원하여 소외계층의 교육복지 대상 학생들에게 공연을 지원함

■ 지역단체 연계 교육청 주관 사업

- 지역단체 연계 교육청 주관 사업은 지역의 예술기관, 문화예술교육단체, 예술작가들과의 상호협력을 통해 사업을 확대하고자 진행됨. 주요 사업으로 ‘우리 아이 예술 놀이터’, ‘함께 나누는 옴프극장’, ‘미술관이 즐거워요’, ‘교육청 갤러리’ 등이 있음
- ‘우리아이 예술놀이터’는 학교 현장에 지역 예술기관의 예술공연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크게 현악, 국악, 관악, 성악으로 영역이 분류됨.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이 어떤 예술 체험을 희망하는지 의견을 수렴하면, 교육청에서 지역 예술단체를 공모하여 합당한 단체를 선정하고, 학교 희망일에 공연단을 보내주는 형식으로 진행됨

- ‘함께 나누는 움프극장’은 지역 영화제인 ‘울주세계산악영화제’와의 협업을 통해 운영하는 영화감상, 읽기 사업임. 세부 프로그램 중 ‘문화가 있는 날 움프극장’은 영화제 현장인 영남알프스복합웰컴센터로 찾아가는 영화 체험행사로, 이동 차량 및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함. ‘문화소외지역 찾아가는 움프극장’은 학교 현장으로 찾아가는 영화 상영 프로그램이며, 그 외에도 ‘영화제와 함께하는 움프극장’, ‘온라인 움프극장’ 등이 운영됨
- 2022년 1월 울산에 첫 지역 미술관인 울산 시립미술관이 개관함. 22년 2월 업무협약식 이후 ‘미술관이 즐거워요’라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아이들에게 미술관 내 다양한 전시와 그림을 읽어주고, 서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지원함
- 울산시 교육청은 규모와 관계없이 다양한 문화예술교육단체 혹은 기관과 협약을 맺어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도모함. 울산민족예술인 총연합회와 울산시립병원장 업무협약이 그 예시임. 다양한 주체와 연계사업을 운영하고자 노력함
- CGV와 연계하여 영화 체험 사업도 운영함. 2022년 지역 연계 체험비 활용 및 고 3 수험생을 대상으로 영화관람 체험을 제공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함. 이에 CGV에서 서울과 울산 두 곳에만 업무협약을 맺자고 연락이 옴. 4월에 업무협약을 진행할 예정임
-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지역의 자원을 명확히 인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울산은 울산 지역 예술자원지도(ARM)를 개발·보급함. 지역의 문화기반시설과 단체 및 예술가 현황을 누구나 실시간으로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 QR코드를 탑재함
- 울산시 교육청은 교육청 갤러리를 운영 중임. 문을 잠그지 않고 누구나 들어올 수 있도록 개방하여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공간임. 너무나 행복하고 자부심이 생긴다는 지역 주민의 피드백도 있었음

■ 울산시 교육청의 향후 계획

- 예술 자원이 부족하더라도 지역 연계사업을 통해 학교예술교육 활성화가 가능하

다고 봄. 지역 내 문화기반시설과 문화예술단체 간의 협력망이 중요함

- 올해 신규 사업으로 예술 체험 활성화를 위한 지역문화 체험비 300만 원을 초등학교에 교부함. 향후 목표는 전 초중고에 300만 원을 목적 사업비로 교부하는 것이며, 다양한 방향으로 학교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자 함

다. 성남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구조화 사례

발제자: 이상훈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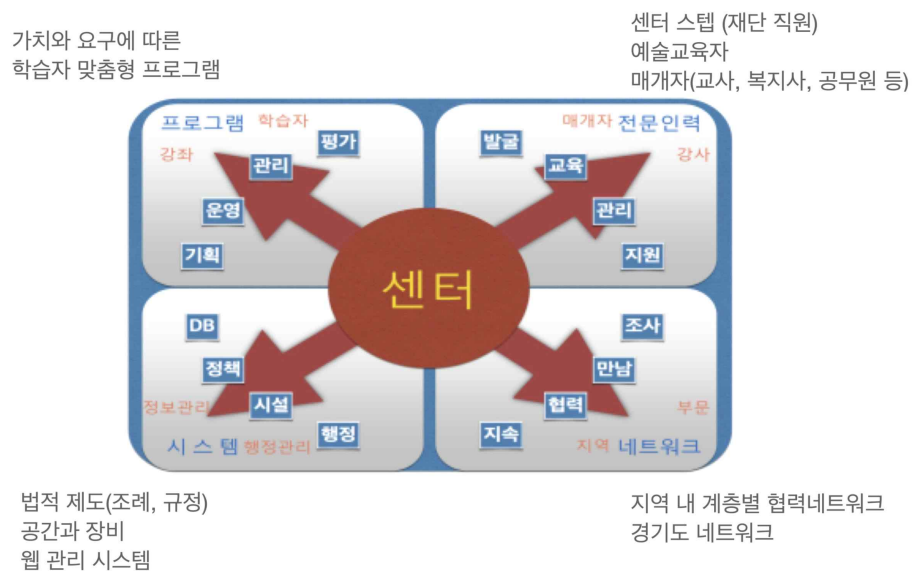
■ 문화예술교육의 가치와 문화재단의 역할

- 2011년, 성남문화재단은 성남아트센터 공연장을 중심으로 문화예술교육 주요 사업을 운영함. 성남아트센터 공연장, 전시장에 올 잠재 고객 확보를 목표로, 문화예술교육 역점사업으로서 아카데미 사업을 운영함. 4~5억 규모의 교육 예산 아래 상반기 120~150개 강의 수요, 연간 참여 개인 수강생 약 2,000~3,000명 수요를 통해 수익금을 얻는 구조로 운영됨
- 2011-12년도는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성남문화재단의 역할 탐색 시기임. 성남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현황을 조사한 결과, 문화센터, 주민자치센터와 같은 외부 기관 프로그램들이 성남문화재단의 아카데미 사업과 큰 차이 없음이 드러남. 이에 문화예술교육의 정의와 개인적·공동체·국가적 차원에서의 문화예술교육 가치, 문화재단이 해야 하는 역할을 정책적으로 고민해볼 필요성이 나타남
- 문화예술교육은 예술의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음. 성남문화재단의 생활문화사업 ‘사랑방 문화클럽’을 통해 많은 기관과 인력을 만나면서 문화예술교육이 학교, 마을 만들기 사업, 복지 사업 등 모든 영역에 분포됨
- 2013년도 성남 평생학습원과 연계하여 시의 예산이 투입되는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성남 지역 문화예술교육 전수조사를 시행함. 한 분기를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한 분기당 약 7,000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으며 대부분 비슷한 내용으로 운영됨이 드러남. 또한 문화예술교육을 취미활동, 은퇴자 혹은 아동 청소년과 같이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높았음

-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성남 문화예술교육의 방향성, 문화예술교육 가치의 중심을 설정하고, 2014년 [성남시 문화예술교육 중장기 발전방안]을 수립함. 법령에 근거하여 문화예술교육지원조례의 필요성, 문화예술교육센터의 필요성을 기재함

■ 문화예술교육센터 추진을 위한 핵심 과제

- 성남문화재단은 성남 문화예술교육센터 추진을 위한 핵심 과제로 ‘전문인력’, ‘프로그램’, ‘시스템’, ‘네트워크’ 네 가지를 중심에 둠



자료원 : 이상훈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장 발표 자료 중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 추진을 위한 핵심 과제

[그림 4-3]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 추진을 위한 핵심 과제

- 그중 ‘전문인력’에 대한 문제가 가장 핵심 과제임. 재단 혹은 센터 내 직원, 프로그램 담당자를 비롯하여 재단과 함께하는 연계 협업자 등 인력의 중요성을 제기함
- ‘프로그램’의 경우 학습자의 요구로부터 출발하는 교육과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함. 학습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효과적인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실행할 수 있을 것으로 봄
- ‘시스템 영역’으로는 법적 제도와 문화예술교육 전용 공간, 웹 관리 시스템을 주요 과제로 삼음. 잠재적 고객 발굴을 위한 보조적 기능으로서의 교육이 아닌 깊이 있는 프로그램 기획 및 교육 운영이 가능하게끔 전용 공간의 필요성을 강조함. 또한 웹 관리 시스템을 통한 지역 내 물적·인적 자원 파악과 효율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함

- 핵심 과제인 ‘네트워크’는 기초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임. 재단이 구체적인 현장의 요구를 알기에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학교 선생님, 유치원 선생님과 같은 매개자와의 네트워크가 필요함

■ 사업추진 근거, 전담 조직, 주요 사업 현황

-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는 조례뿐만 아니라 성남시 주요 공약을 추진 근거로 하여 사업을 운영해 옴. 대표 사례로 민선 8기 성남시 주요 공약을 근거로 실행한 유아문화예술교육 사업이 있음. 이전까지 경기문화재단 지원으로 운영되었던 유아문화예술교육 사업을 협력 사업으로 전환하였으며,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협력하여 각 어린이집의 특성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 및 진행함. 틈즈 뮤지컬 사업도 예술학교의 형태로 성남에서 진행되어 공약 사업에 기재된 사항임
- 2016년 성남문화예술교육지원조례가 제정되었으며, 2017년도에는 성남의 학생수 감소에 따라 발생한 폐교를 문화예술교육 전용 공간으로 조성하는 협약을 성남시와 체결함. 2018년 문재인 정부 정책의 ‘꿈꾸는 예술터’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폐교를 문화예술교육 전용 공간으로 전환하여 현재 운영 중임
- 성남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전담 인력은 성남문화재단과 미디어센터 교육 담당 인력 포함 총 28명이며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의 2022년 사업은 연간 기준 본예산 1,736,509천원, 외부 공모 190,000천 원임

□ 법적 근거

- 『문화예술교육지원법』
- 『성남시문화예술교육지원조례』

□ 중앙정부 및 성남시 주요 공약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종합계획 (2018-2022)
 - 기초 중심 문화예술교육 기능 및 역할 강화
 - 창의적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전용공간 조성 및 운영 지원
- 민선6기 성남시 주요 공약
 - 문화예술교육센터 Art & Life 건립
- 민선7기 성남시 주요 공약
 - 영성여중부지 성남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조성
- 민선8기 성남시 주요 공약
 - 문화예술 꿈나무 육성
-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 문화예술교육 기초 거점사업 확대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 사업추진 근거

자료원 : 이상훈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장 발표 자료 중

조직 및 인력

구분	업무	정원	현원
네트워크	센터장	1	1
	유아문화예술교육	1	1
	학교문화예술교육	2	1
	사회문화예술교육	2	1
성남꿈터	전문인력 지원	2	1
	꿈꾸는예술터강좌	1	1
	꿈꾸는예술터 시설관리	1	1
	꿈꾸는예술터 공간,장비 관리	1	1
	웹 관리 및 홍보	2	1
계		13	9

* 용역 10명 : 시설 4명, 경비 2명, 미화 4명

문화예술교육 전담 인력

[그림 4-4]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 사업추진 근거 및 전담 인력

- 센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 사업 중 하나는 ‘전문인력 지원사업’으로 학습자의 특성과 요구 사항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다른 주체, 장르와 연계하여 개발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운영 중인 ‘전임 강사’ 사업은 학습자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예술 강사 간의 네트워크 형성, 다양한 지역 기관 및 주체와 협력망 조성을 수행하는 전임강사 10명 내외와 협력 중이며 2023년부터 ‘전임 예술교육가’로 명칭이 바뀜
- 전임강사 사업은 예술가나 예술 강사가 문화 행정을 이해하는 계기로 작용하기도 함. 문화예술교육의 주체는 재단만이 아님. 교육가, 학습자, 재단이 세 주체가 되어 상호적 관계를 형성해야 함. 전임강사와 별개로 성남 티칭 아티스트 네트워크 ‘STAN:D’를 2022년 창립함. 문화예술교육의 주체로서 예술 강사들이 주도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한 사례임. 주체적인 역량 강화를 목표로 운영되고 있으며, 예술 강사들이 자체적으로 재단과 연계하고 정책에 참여하는 구조 지향
- 성남의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의 경우, 2015년도 성남 학교 교육지원청과의 업무협약 체결 이후 시작됨. 진행된 주요 사업 중 ‘교과 연계 교육연극’은 교사와 예술 강사의 협업 아래 진행된 수업으로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큼
- 또 다른 사례로 학교 교과 연계임. 성남아트센터의 공연, 전시 프로그램 연계사업으로 성남시 초중고 학생들이 성남아트센터의 공연과 전시를 한 번씩 보고 졸업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음. 교과서에 ‘기술과 예술’이라는 단원이 있는 중학교 1학년 학생에게는 미디어아트 전시를, 초등학교 6학년에게는 기술 융합 공연 등 교과에 맞는 내용을 지원함. 코로나로 인해 현재는 중단 중이지만, 외부 기관으로 위 프로그램이 확산 진행 중임
- 인력은 주요한 핵심 과제임. 담당 직원의 인사이동 후 행정 서류 인수인계와는 별개로 이전 담당자의 네트워크, 프로그램 개발·기획력은 인수인계가 불가능한 전문 영역으로 인정하고 있음. 센터 내 학교문화예술교육 담당자는 2015년 협약 이후 변동되지 않았기에 성남 내 학교, 교직원 간의 네트워크 등 협력망 및 정보력이 우수할 수밖에 없음. 이러한 측면에서 문화예술교육 전담 인력은 매우 중요하며, 매개자인 학교 교사나 복지사에 대한 문화예술교육도 중요함
- 도-시군 간의 네트워크가 매우 중요함. 향후 지역 중심으로 문화예술교육 정책이 변화한다는 측면에서 함께 경기도와 지역을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

라. 문화도시에서 문화예술교육의 의미와 가치 : 춘천문화재단 사례를 중심으로 (발제: 권현아 춘천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 예술교육팀장)

■ 문화도시본부에 편재된 문화예술교육팀

- 춘천문화재단은 2008년 출범 이후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꿈의 오케스트라 등 국비 보조금 위주 사업이 추진됨. 2018년 민선 7기에 문화예술교육지원조례가 제정되었으며 2019년 문화예술교육팀이 단독으로 신설됨
- 춘천문화재단은 경영기획본부, 예술진흥본부, 문화도시본부로 구성. 문화예술교육팀은 문화도시본부에 편재해 있으며 개인과 사회의 성숙을 끌어내는 ‘시민 성장’에 역할을 둬. 문화시민의 감각을 깨우고, 스스로와 주변을 동시에 들여다보는 문화시민으로서의 성장을 문화예술교육 주요 과제로 삼고 있어 문화도시 안에서 사업을 추진 중임

■ 춘천시 문화예술교육 핵심 가치

- 춘천시 문화예술교육은 ‘나를 만나고, 가족을 만나고, 이웃을 만나고, 그리고 춘천과 세상을 만나는 문화예술교육’을 중심으로 함. 그동안 문화예술교육이 ‘아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삶으로’ 들어가야 하는 시점으로 미적 감각에서 생애 감각으로 전환하는 과정이자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문화시민의 감각과 감수성을 깨우고, 나를 포함하여 이웃과 서로를 도울 줄 아는 도시로 전환하는 것임
- ‘안전과 돌봄’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춘천 문화예술교육은 지역 안으로, 마을 안으로, 일상 세계, 생활 세계 안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음. 춘천의 지향점과 지평을 포럼과 네트워킹을 통하여 발산함으로써 담론을 형성해 나가고 있으며 문화예술교육에 있어 시민 주체자를 형성해 나가고자 함

■ 춘천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세부 사업

- 춘천문화재단은 2019년부터 학교 안으로 들어가는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진행 중임. 시범 사업 이후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해 잠시 정체 시기가 있었음. 그러나 이를 계기로 학교라는 공간을 넘어 마을과 동네를 배움터로 전환하게 됨. 지난 4년 동안 학교와 마을로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추진하면서, 춘천 내 42개 초등학교 중 50%의 학교가 참여하고 있으며,

2021년 기준 20개 마을에서 사업이 추진 중임

- 춘천 문화예술교육이 문화도시와 만나면서 어린이 중심의 사업에서 청소년과 신 중년까지 대상을 확대해 나감. 청소년들이 자기 주도성을 갖고 문화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하고, 신중년들이 앞으로의 인생에 대해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새로운 모델의 문화예술교육을 발굴하고자 함. 향후 본격적인 생애주기 문화예술교육을 추진할 계획
- 문화예술교육이 문화도시와 만나면서 사회 감각, 도시 감각을 깨우는 교육사업이 추진됨. 시민 스스로 삶의 의제를 발굴하고 실천함으로써 문화시민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 목표인 사업. 대표적인 사업은 도시의 문제를 분석하고 이를 주체적으로 해결하는 ‘동네 지식인’ 사업이 있음. 2022년 총 16명의 선정 시민이 활동하였으며, 약 900명 시민과의 만남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건강한 배움터를 조성하고자 노력함. 활동을 통해 수렴한 의견은 춘천문화재단 문화도시 아젠다 보고서의 전략과제를 재수립하는 과정에 함께 쓰임.
- 이외에도 사회갈등을 포용성 있게 끌어안는 방법에 대해 시민이 주도적으로 고민 해보는 ‘돌아봄’ 사업, 정주하는 마을 주민들이 직접 필요한 교육을 준비하는 ‘필요한 학교’ 사업, 춘천의 전환을 위해 필요한 의제를 고민하는 철학·인문학 아카데미 ‘이면도시’ 사업 등이 있음.
- 중앙에서 진행한 기초거점 구축사업도 참여하여 사업을 추진함. 향후 자체 출연금 예산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 정책 거점으로서도 추진하고자 함

전문문화발전소	⑬ 도시전환문화학교					
기초거점(도시)	⑤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어울림센터 = 쉼터(공간) + 기초센터(역할)) 비전 시찰: 동네지식인을 발견하는 도시 환경: 서로를 돌볼 줄 아는 도시 평화협력: 안전한 관계망을 작동하는 도시					
마을거점(삶터)	⑩ 인성공방(전환마을거점) ⑫ 필요한 학교(구역/지구 단위) (점-선을 잇는 시민문화예술교육 거점)					
인력양성(사람)	④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사업 (이해 관계자 유형별·단계별 역량강화교육)					
실천목표	문화도시	경험에서 역할로				
	문화예술교육	자기감각 (나를 만나다)	생활감각 (가족을 만나다)	사회감각 (이웃을 만나다)	도시감각 (춘천을 만나다)	세계감각 (세상을 만나다)
주요사업 (확장형 스펙트럼)	① 1인1마을 어린이통합예술교육 (교과형+체험형)	② 1인1마을 마을어린이통합예술교육 (동행형)	⑦ 시민문화예술교육 (중·장년)	④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 (예비 관심그룹, 교·강사 교사그룹)	⑤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기초거점)	③ 도시전환문화학교 => 7차 안은 배움터 (문화시민 감각과 행동)
	⑥ 신나는 오케스트라 (감각확장)	③ 지역사회 연계 문화예술교육 (교육청, 우리 동네 동동 문화예술 단체 등 연계사업)	⑧ 청소년 문화예술 배움터	⑨ 동네지식인	⑪ 돌아온 봄 (활동가)	

자료원 : 춘천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 발표 자료 중 춘천문화예술교육 사업 체계도

[그림 4-5] 춘천문화예술교육 사업 체계도

■ 대상과 목적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세부 사업

- 춘천문화재단 꿈꾸는 예술터는 2023년 9월에 개관 예정. 춘천문화예술교육 세계관을 담을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 전용 공간으로 설립 준비 중임
- 사람, 삶터, 도시의 관점에서 춘천문화재단은 아래 세부 사업들을 추진함. 감수성, 접근성, 다양성, 공동체성, 주체성의 문화예술교육 가치 지향
- 문화예술교육, 생활문화, 시민문화 간의 연결고리, 평생교육과 문화예술교육의 교차점, 지역문화·도시문화 안에서의 문화예술교육의 역할은 여전히 고민해볼 의제임. 그 안에서 문화재단의 역할을 구체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대상(지)		사업목적	세부사업
사람 (점)	어린이 청소년 시민(전환기) 교사 예술인 예술인강사 (교육)공동체 이해관계자	문화감수성 향상 창의성, 자기주도성 강화 삶의 태도, 시각전환 예술교육 이해(감수성 향상) 기획자, 매개자 성장지원 아카데미, 교안개발, 활동지원 마을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전환문화도시 아카데미	①② 1인1에 학교 통합예술교육(교과형, 체험형), 마을 통합예술교육(돌봄형) ③ 지역사회 연계 문화예술교육(교육지원청) ⑥ 신나는 오케스트라 ⑦ 시민문화예술교육(중장년) ⑧ 청소년 문화예술배움터 ④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사업(교사연수) ④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사업((관심그룹) ⑩ 돌아온 봄(활동가 양성) ④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사업((예비)교-강사) ⑨ 동네지식인 ③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우리봄내동동, 단체 등 연계) ⑬ 도시전환문화학교 : <가치 안은 배움터> : 강좌, 워크숍, 스터디투어 등
	삶터 (선)	거점(공방) 지구(地區)	거점조성, 주체발굴, (통합) 활동지원
도시 (면)	문화예술 교육거점	세계감(世界感) 구현	⑬ 도시전환문화학교 (가치안은 배움터(갈각) + 지역사회 연계협력 프로젝트(행동))

자료원 : 춘천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 발표 자료 중 대상과 목적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세부 사업

[그림 4-6] 춘천문화예술교육 세부 사업

■ 문화도시-문화예술교육 미래전략 설계

- 춘천문화재단은 [춘천 문화예술교육 중장기계획('23~'27)]을 수립함. 광역의 종합계획이 아직 발표되지 않은 시점이기에 비전만 공유한다면 춘천은 지금까지 쌓아온 가능성과 실험을 통해 문화로 넓게, 예술로 깊게, 일상과 가까워지는 문화예술교육을 추진하고자 함. 문화와 예술교육을 차별화함으로써 다양성에 기반한 '문화교육'과 창의성에 기반한 '예술교육'으로 나누어 추진할 예정임
- 문화예술교육과 문화도시의 만남이 시민 주체 성장에 큰 시너지를 창출하는 만큼 변별력에 주목하기보다 각각의 사업들이 각각의 위치에서 어떤 역할로 시민의 행복에 기여하는지를 중요하게 여기며 추진할 예정

2. 수원시 문화예술교육 관련 토론

- 수원시 문화예술교육 발전을 위한 컨퍼런스에서는 발제자와 컨퍼런스 참여자들이 함께 수원시 문화예술교육의 의제와 발전 방향을 주제로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행정가·정책가에 대한 문화예술교육 설득 방식

“예술 자원이 부족한 환경에서는 지역 내 기관과 단체를 계속 찾아가는 방법밖에 없음. 개인적으로는 미술 전공이다 보니 지역 예술가들과 원활히 소통하고 함께 활동하고 있었음. 우선 먼저 찾아가고, 연락드리고, 함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개인이 터득한 설득 방법임. 이러한 과정을 거쳐 모든 아이가 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목표 아래 교육청 예산으로 기관/단체를 지원하고, 또 이들이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함.”

- 정혜련 장학관 (울산광역시교육청 체육예술교육팀장)

- 예술교육 정책에 대한 시와 시민의 반응

“울산광역시는 학부모들의 교육력이 상당히 높은 도시임. 문화예술교육, 체육교육에 대한 인식 변화와 시민 흡수는 시의 다양한 주체들의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음. 이전 교육감의 경우 예술에 관심이 많으셨고, 시의원 중 한 분은 예술에 관심이 많았음. 문화예술교육은 장학사 한 명이 나선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주체의 협조가 바탕이 되어야 함.”

- 정혜련 장학관 (울산광역시교육청 체육예술교육팀장)

- 문화예술교육의 가치 및 예술교육가의 중요성

“문화예술교육의 가치나 요구 사항이 훨씬 넓어진 것은 사실임. 기존의 장르 중심, 기능 위주의 교육과는 달리 지금의 문화예술은 삶 전체와 연결되어 학습자 맞춤형 문화예술교육을 실현하는 것이 중요 과제가 되었음. 또한 문화예술교육을 학교 교과 과정과 연결 지어 참여형 수업을 전개해 나가는 것도 아이들 학습 효과로서 입증되고 있기에 중요하다고 생각함.

문화예술교육센터를 운영하면서 가장 중요한 축 중 하나가 예술 교육가임. 그러나

예술교육가의 변화 방향성에 대해서는 문화재단이 제시해줄 수 없음. 재단의 역할은 예술교육가들이 스스로 정체성과 자기 역할을 찾아갈 수 있도록 방향과 틀을 만들어 주는 것에 있다고 봄. 공간, 다과비, 감사비 등과 같은 지원이 그 예시임. 따라서 중요한 건 예술교육가들이 현장의 욕구를 직접 느껴보고, 프로그램을 끊임없이 연구·개선하는 것. 2022년 성남시에서는 예술교육가들이 자발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연구하고, 문화예술교육 과정의 네트워크 중요성에 대한 논문을 작성했음. 이런 흐름을 확산하기 위해서 성남은 전임 강사 제도를 실행하고 있는 상태임.”

- 이상훈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장

- 지역 내 문화자원과 문화예술교육 간의 연계, 협력, 균형

“문화예술교육이 문화도시 사업의 기저가 된다고 봄. 춘천하면 ‘축제 도시’와 ‘호수 자원’이 유명함. 춘천은 축제와 호수 자원을 활용한 특성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고, 그 안에서도 문화예술교육이 내재하여 있음. 기저의 문화예술교육으로 축적한 힘을 기반으로 지역의 문화자원과 연계하는 방식이 중요하다고 봄. 균형적으로 문화예술교육 내 지역자원들은 요소들이 되지 않을까 싶음.”

- 권현아 춘천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 문화예술교육팀장

- 광역과 기초 간의 상호 협력망

“광역이 모든 시군과 일일이 소통하기는 어렵기에 우선 대면하는 것에서부터 상호 협력망을 시작함. 2021~2022년에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을 거쳤고, 2022년도에는 시범 사업과 실무자 역량강화 사업을 병행함. 행정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네트워킹 시간을 4~5회차 마련하면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짐. 그런 부분에 있어 지역이 먼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봄. 경기는 올해 꿈다락이나 지역 특성을 제외하고 통합형 사업, 신규단체 지원사업, 판로 지원사업인 ‘노는 예술 사업’ 등을 확장하여 운영할 예정임. 광역 입장에서 더욱 다각화하여 지역 예술교육가 네트워킹 사업, 자원 조성사업 등으로 예산을 지역에 지원하는 방향을 모색 중임.”

- 황연정 경기문화재단 예술교육팀장

- [2023 수원시 문화예술교육 발전을 위한 컨퍼런스]는 만남의 시작

“인력과 예산 부족에 대한 행정적 현황을 공유하였으나 컨퍼런스를 통해 안면을 트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단계이지 않았나 싶음. 앞으로는 다양한 요구 사항에 대해

만나면서 얘기해야 하는 부분이라 여겨짐. 문화예술교육은 수원문화재단 예술교육 팀 혼자만이 할 수 없기에 함께 서로 협력하며 수원시 문화예술교육 발전에 힘쓰기를 바람.”

- 김유리 수원문화재단 예술교육팀장

■ 컨퍼런스에 참여한 관계자 토론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학교문화예술교육 관련 의견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 늘 이야기하지만, 정작 학교 교육의 매개자인 교사와 교직원에 대한 문화예술교육은 빠져 있음. 실제 정책 부분에 매개자에 대한 교육이 들어가야만 교육이 변화함.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예술교육은 대부분 교사 개인의 경험이나 연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 재단의 교육체계 수립이 필요함.

2005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설립 이후 문화예술교육을 시스템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눈에 띈다. 무엇보다 문화예술이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행위가 아니라 일상에서 누구나 언제든지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것임을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이에 수원문화재단 레지던시 입주작가를 학교에 일정 기간 입주하도록 하는 사업을 제안해봄. 아이들이 쉬는 시간 혹은 수업 시간에 학교 안에서 예술가와 교류하면서 자연스러운 문화예술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함. 수원문화재단 예술교육팀과 남창초등학교와의 연계사업을 제안해봄.”

- 김봉수 남창초등학교장

●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사례에 대한 답변

“성남에서도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에 대해 계속 고민하면서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시도 중임. 여러 문제로 올해 예산은 못 세웠지만, 지난 5~6년간 교육청과 함께 특수학급에 대한 문화예술교육을 진행했었음. 예술가들이 장애인의 특성에 대해 잘 알지 못함을 기본 기저로 깔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이에 특수학급 교사와 예술 강사 2명, 공익 선생님들을 포함하여 함께 교육을 진행함. 또 다른 예로 사회문화예술교육 측면에서 협력 사업이 가능한 데 그중 하나가 노인과 장애인 협력망임. 현재 성남은 장애인 기관과 협의만 한 상태이며, 노인은 작년에 협력체계를 만들었음. 노인의 경우, 노인복지관의 복지사와 예술 강사 간 2주에 한 번씩

미팅이 이루어짐. 복지사분들에 대한 예술교육, 예술 강사에 대한 노인 특성 강의를 서로 교환하고 협의하면서 프로그램을 기획함. 이렇듯 학습자의 특성 이해와 예술교육의 특성 이해를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함.”

- 이상훈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장

- 수원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현황조사 결과 : 수원문화재단 1년 문화예술교육 순 예산은 성남문화재단의 약 1/26, 고양문화재단의 약 1/7 수준으로 타 문화재단의 사업 1개 예산보다 적어, 양과 질에서 객관적 비교와 분석에 한계가 있음. 다만 열악한 자원을 감안하여 수원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특성을 분석, 다음과 같은 특징을 도출함
 - 문화예술교육 사업의 지속성 : 현재 운영 중인 예술교육팀 사업은 최소 3년 이상 지속성과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꾸준한 내부 분석과 외부 참여자 및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관찰됨
 - 문화예술교육 지역자원 개발 : 단순 프로그램 운영을 넘어 수원 예술교육가 네트워크 및 학습연구 지원, 아카이브 구축과 같은 지역자원 개발을 이어오며 따라 저변확대를 위한 최소한의 기반 구축이 마련된 것으로 분석됨
 - 취약성에 따른 순차적 대상 지원 : 인구 대비 지나치게 낮은 예산으로 인해 문화예술교육의 보편성이나 시민 향유보다 문화소외계층과 같은 취약성에 따라 순차적으로 대상을 선정하여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경향이 분석, 한정된 예산에서 예술교육팀이 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선택으로 판단됨
 - 조직과 예산의 한계 : 수원시는 시 문화예술교육의 정책적 구심으로서 수원문화재단의 예술교육 전담 조직, 업무, 예산을 재정비하여 비슷한 규모의 타 문화재단 수준으로 문화예술교육 자원을 끌어 올리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분석됨. 조직, 업무, 예산 등의 재정비로 수원시 문화예술교육의 중장기적 발전과 지방분권에 따른 지역문화 활성화에 순행할 수 있는 기틀 마련 가능
- 수원시 문화예술교육은 2023년 다음과 같은 이슈를 맞이함에 따라 본 현황조사 후속 계획을 마련,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여야 함
 - 2022년 1월 수원 특례시 지정에 따라 현재 경기도 내 타 대도시(성남시, 고양시 등)에 비해 현저히 낮은 문화예술교육 예산, 인력, 사업을 시급히 조정하여 시(市) 품격 향상 및 시민문화 향유권 보장 대책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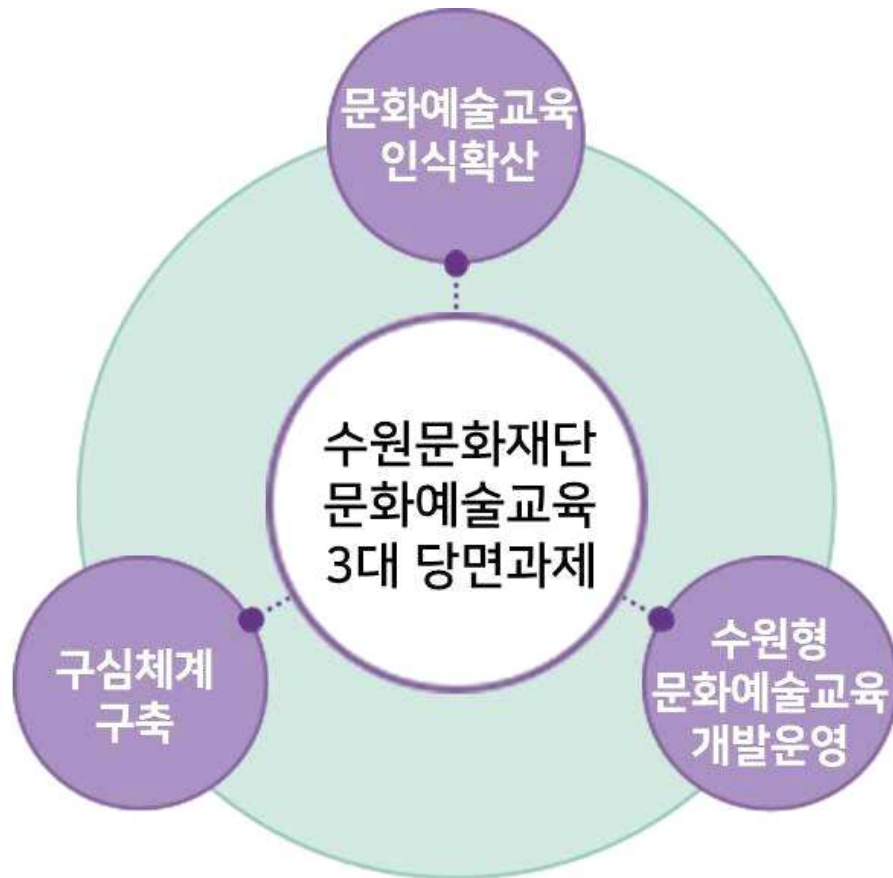
- 2023년은 민선 8기 수원시정이 본궤도 오르는 첫해로, 민선 8기 새 수원의 3가지 핵심 가치인 ‘변화’, ‘전환’, ‘공감’을 실현하기 위한 복지, 돌봄, 지역재생, 창조적 혁신의 매개로서 문화예술교육 역할 제고
- 2021년 9월, 경기도 시군 가운데 네 번째로 「수원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조례 이행 의무로서 문화예술교육의 본격적 지원환경 요구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 5개년 종합계획(2023~2027)’과 경기도 ‘경기문화예술교육 발전계획 (2023~27)’ 시행의 첫해로, 국정 및 도정 흐름에 발맞춘 수원형 문화예술교육 정책 및 세부 사업 설계 필요



자료원 : 문화체육관광부(2023), 제2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3-'27)

[그림 4-7] 제2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3-'27) 비전과 전략

- 본 연구 결과 수원시 문화예술교육 발전을 위한 제언이자 수원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3대 당면 과제로 문화예술교육 인식확산, 문화예술교육 구심 체계구축, 수원형 문화예술교육 개발과 운영을 도출함



[그림 4-8] 수원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3대 당면 과제

● 첫째. 문화예술교육 인식확산

문화예술교육은 창의적 미래를 위한 세계적 합의이자 문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매개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본 연구조사 결과 수원시에서는 관여자를 포함하여 내 외부적으로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관심과 이해가 높지 않아 문화예술교육 사업 운영과 연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정책과 관여되어 있는 수원시청과 수원문화재단 내 외부고객을 대상으로 먼저 문화예술교육을 경험하고 이해하게 하는 프로그램이 시급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

적인 의견이었으며, 수원시민들을 포함, 학교, 문화기반시설, 복지기관 등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수요자들과 함께 문화예술교육 지지층을 만드는 것이 현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로 도출됨

● **둘째. 문화예술교육 구심 체계구축**

수원시 문화예술교육 발전을 위한 두 번째 당면 과제는 수원문화재단이 수원시민의 다양하고 보편적인 문화예술 향유를 담보하는 수원시 유일의 정책기구로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스스로의 핵심 가치와 역할 가치를 정립하고 이를 공표, 실천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제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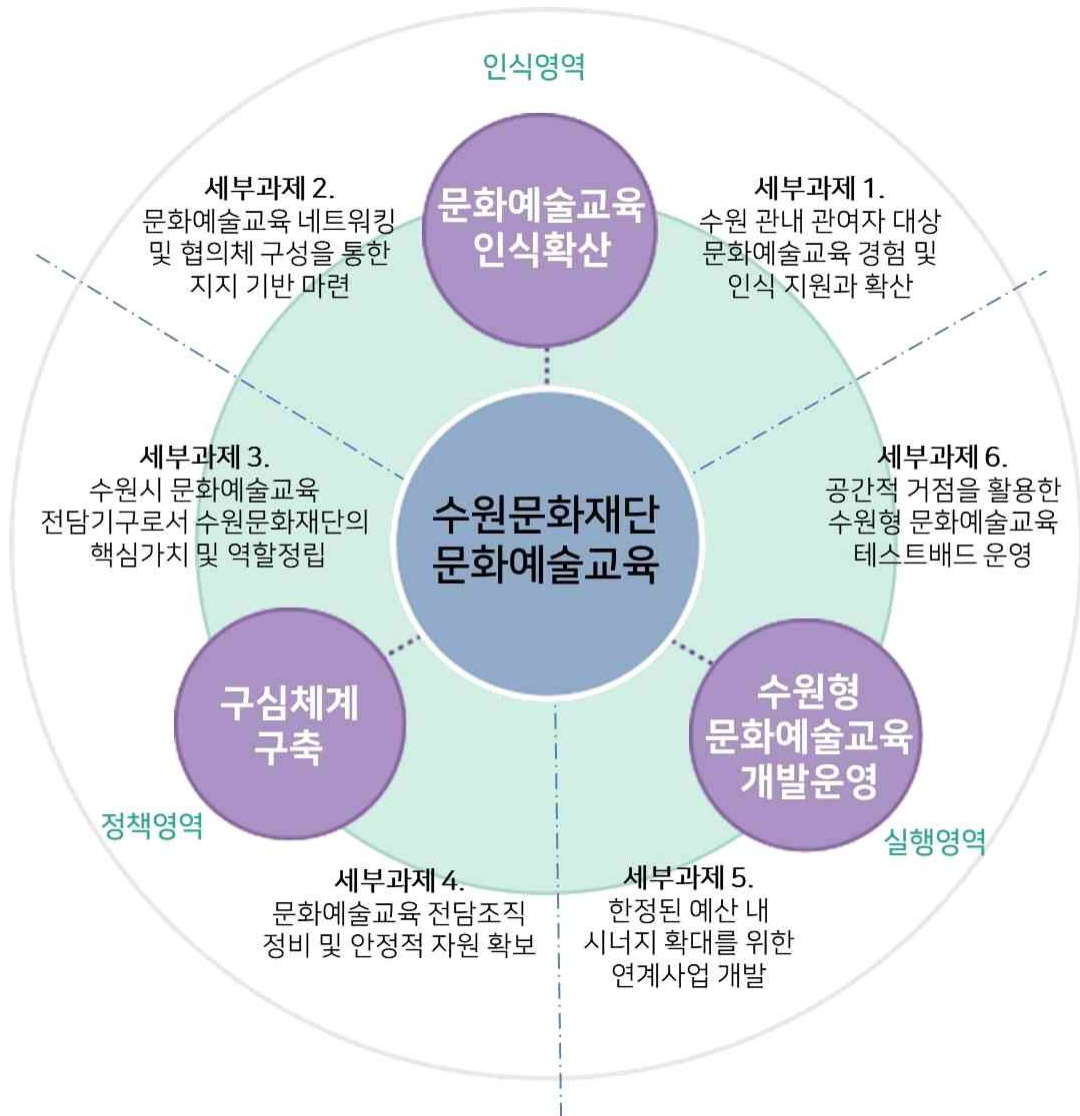
예술교육팀은 내부적으로 스스로의 역할과 핵심 가치를 찾고자 다양한 기관들과 함께 꾸준히 네트워킹을 진행하였으며, 본 수원시 문화예술교육 현황조사 연구에 이어 2023년 수원시 문화예술교육 발전을 위한 자문회의와 컨퍼런스를 개최, 나름의 방향과 논의 점을 정돈해가는 과정에 있음. 이에 조직 및 역할과 관련하여 도출된 의제와 발전 방향을 수원문화재단이 적극적으로 포용하고 논의하여 조정과 실천의 단계로 나아갈 것을 제언함

● **셋째. 수원형 문화예술교육 개발과 운영**

수원시 문화예술교육 발전을 위한 세 번째 당면 과제로 앞서 제언한 조직과 예산 등 제반 현안 조율에 지난한 시간이 요구될 수 있어, 현재 가지고 있는 자원을 통해 최대한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수원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방안이 제시됨

한정된 예산 내 다양한 연구, 네트워킹, 지원사업을 운영해왔으나 보다 다양한 학교, 기관, 기구와 연계하여 예산 시너지를 내는 방향을 모색하는 한편, 예술교육팀이 시설관리팀의 역할을 병행하고 있는 것이 현 상황이므로 공간적 거점을 활용한 수원형 문화예술교육 테스트베드 운영에 대한 제언이 도출됨

- 3대 당면 과제를 실행하기 위한 6개 세부과제로는 ①수원 관내 문화예술교육 참여자 대상 문화예술교육 경험 및 인식 지원과 확산, ②문화예술교육 네트워크 및 협의체 구성을 통한 지지기반 마련, ③수원시 문화예술교육 전담기구로서 수원문화재단의 핵심 가치 및 역할 정립, ④수원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전담 조직 정비 및 안정적 자원 확보, ⑤한정된 예산 내 시너지 확대를 위한 연계사업 개발, ⑥공간적 거점을 활용한 수원형 문화예술교육 테스트베드 운영이 도출됨



[그림 4-9] 수원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3대 당면 과제와 6개 세부과제

● 세부 과제 1. 수원 관내 관여자 대상 문화예술교육 경험 및 인식 지원과 확산

- 문화예술교육은 단순한 기능교육을 넘어 창의성과 융합성을 바탕으로 사회와 지역을 창조적, 도전적으로 이끌어가는 민주시민을 키우는 교육으로 그 영역과 필요가 갈수록 확장됨. 그러나 피아노, 수채화와 같이 기능적 예술교육에 익숙한 기성세대들은 나날이 변화하며 성장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 경험이 부족하여 관심을 갖거나 가치를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 이에 수원문화재단은 수원시 문화예술교육 정책 관여자이자 내부고객인 수원문화재단, 수원시청, 수원시의회 등을 대상으로 창의적 문화예술교육 경험의 기회를 마련, 문화예술교육이 전 생애주기 속에 어떠한 가치와 역할을 갖는지 공유하는 자리가 필요함
- 내부고객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은 순환보직 및 잦은 업무이동을 감안하여 일회성, 단 회 성이 아닌 지속성 있게 제공되어야 함
- 내용으로는 국내외 문화예술교육의 위상과 가치에 대한 이론적 연수와 직접 경험해보는 문화예술교육 연수를 함께 구성하되, 단순 공예, 악기 체험 프로그램이 아닌 개인의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예술가처럼 사유하게 하는 창의적, 융합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

● 세부 과제 2. 문화예술교육 네트워킹 및 협의체 구성을 통한 지지기반 마련

- 수원문화재단 예술교육팀이 진행해온 네트워킹을 보다 구조화하여 수원시 문화예술교육 실천 협의체(가칭)를 구성함. 단 이때 협의체 구성원은 수원시 문화예술교육 관련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하되, 단순 위촉이 아닌 반드시 수원시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과 가치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관련 시책 개발 주력에 동의함을 기본으로 함
- 수원시 문화예술교육 실천 협의체는 학교, 예술가, 예술교육가, 문화기반시설 관계자, 지역 사회 대표 등 다양한 범위의 전문가들이 포함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대상에 따른 분과(학교문화예술교육 분과, 어르신문화예술교육 분과, 영유아문화예술교육 분과 등), 주제에 따른 분과(생태문화예술교육 분과, 도시문화예술교육 분과 등) 등으로 세분화하여 전문성과 지지기반을 강화할 수 있음
- 협의체는 권력 기구가 아닌 실천 기구로 역할을 하여야 함. 이를 위해 정기적 회의를 통해 실천적 정책과 시책을 논의하고 관계 기관들의 의견과 피드백을 수집, 발전시키되 의사결정 과정과 활동에 대한 정보는 아카이빙 채널을 통해 투명하게 운영함
- 문화예술교육 네트워킹을 통한 지지기반 마련의 다음 방안으로는 네트워킹을 범시민적 캠페인 차원으로 확장하여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관여자와 수원시민의 인식을 높이는 기회로 삼는 것임. 특히 현재 차원에서는 예술교육의 중요성과 긍정적 영향에 관한 내용(예를 들어 인지발달, 사회적 통합, 창의력 증진 등)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 캠페인을 위해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할 것을 제안함. 수원 관내 공공기관의

SNS와 연계하여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을 담은 카드 뉴스, 스토리 등을 게재하고 현재 운영 중인 수원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아카이빙 '아트런'에 캠페인 영역으로 지속적인 문화예술교육의 혜택과 필요성을 노출하는 기반 작업이 필요함

● **세부 과제 3. 수원시 문화예술교육 전담 기구로서 수원문화재단의 핵심 가치 및 역할 정립**

- 수원문화재단은 수원시 문화예술 향유와 보존, 발전을 담당하는 수원시 문화예술의 중추 기관이므로 시민과 문화예술을 매개하고 창조적, 문화적 시민력을 강화하는 문화예술교육 전담 기구로서 스스로의 가치와 역할을 재정립하여야 함
- 이를 위해 수원문화재단이 수원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조례 이행 및 실천에 대한 의제와 의지를 공유하고 지지를 도모하는 방법으로 “2023 문화도시 수원 문화예술교육 어젠다(가칭)” 혹은 “2023 수원 문화예술교육 비전 선언(가칭)” 등을 마련, 관여자 (약 100인) 동의하에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것을 제안함.²⁸⁾ 이는 관심과 이목을 끄는 기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예술교육팀의 목표를 명확하게 하고,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핵심 가치와 핵심 역할 정립에 도움을 줄 것으로 여겨짐
- 특히 수원시청은 행정기관으로서 문화예술교육 정책 본부로서는 한계를 가짐. 수원문화재단의 문화예술교육 조직은 단순한 사업 운영 부서를 넘어 수원시의 문화예술교육 정책 본부의 기능을 스스로 담보하여 문화예술교육 정책 총괄, 문화예술교육 자원(인적, 공간적, 예산, 프로그램 등) 자원개발, 관리, 네트워킹, 그리고 문화예술교육의 지원과 자문, 재교육에 이르기까지 보다 포괄적이고 중추적인 역할로 인식할 필요가 있음

● **세부 과제 4. 문화예술교육 전담 조직 정비 및 안정적 자원 확보**

- 연구 전반을 통해 수원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1년 순 예산은 성남문화재단의 약 1/26, 고양문화재단의 약 1/7 수준으로 비슷한 인구 규모의 타 문화재단의 사업 한 개 예산보다 적어 실질적으로 보편적이고 다양한 양질의 문화예술교육 정책 마련과 개발, 운영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점이 꾸준히 지적되었음
- 3~5년 내 성남시 문화예술교육 예산의 1/5수준(약 4억 원/ 현재 수원시 문화예술교육 순 예산의 5배)에 도달하는 것을 최우선적 목표로 제안함. 본 연구를 통해 문화재단의 문화예술교육은 평생교육원이나 문화기반시설의 아카데미와는 차이가 있으며, 오히려 시 차원에서 관 내 시설과 예술가들을 매개하고 촉진하여 창조적 문화도시에 기여하는 역할이 검증된 만큼, 전담부서에 대한 최소한의 자원 확보 필요
- 또한 수원문화재단 예술교육팀이 시설 관리를 함께 전담하고 있는 가운데, 매년 문화예술

28) 2010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 ‘서울 아젠다 : 예술교육 발전목표’ 및 기초자치단체 다수 비전선포 참고

교육과 시설 관리의 업무와 예산 비율이 2:8을 넘어가고 있어 전문가들의 지적이 반복되었음. 시유 시설물의 안전을 위해 법적 차원에서 시설 관리 전담부서 설치를 반드시 세밀히 검토되어야 함

- 또 수원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전담부서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여 수원시 차원 문화예술교육 지원정책 본부로서 기능하도록 조직 환경이 조성될 때 수원시 부처, 관련 기관, 학교를 아우르는 보편적 문화예술교육의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여겨짐

● **세부 과제 5. 한정된 예산 내 시너지 확대를 위한 연계사업 개발**

- 수원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은 당장 예산을 끌어 올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반영, 다섯 번째 세부 과제로는 소액 예산에 대한 연계사업 개발을 통해 예산 시너지 확대를 제안함
- 본 연구를 통해 미술교육에 많은 예산과 인력을 가진 수원시미술관을 제외하면 평생학습관과 문화원 등은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험을 위한 예술가와의 매칭과 도전에 한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수원 관 내 유·초·중·고·대학교와 복지기관 등에서도 수원문화재단과 연계를 통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요구가 있어 소액 예산으로 다양한 기관, 다양한 대상층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을 공동 실험하고 확장하는 연계사업 개발이 필요함
- 특히 소액 예산으로 문화예술교육을 하고 싶으나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를 모르는 영유아보육기관, 학교, 복지기관, 중소형 기업과 판로가 필요한 지역 예술교육단체를 연계한 경기문화재단 '노는 예술' 사업의 경우 2022년 하반기 매칭으로만 외부 예산 약 8천만 원을 추가 확보하기도 함. 궁극적으로 문화예술교육의 자생력과 선순환을 위해 판로개척, 기관 매칭 등 수원시 문화예술교육 생태계 연계 작업이 하나의 주요 사업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음
- 궁극적으로 단순한 프로그램 운영과 네트워킹이 아닌, 수원문화재단의 문화예술교육 정책 속에 수원시의 더욱 넓은 문화, 교육 시스템을 수렴하고 통합하며 포함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임. 이는 모든 대상, 모든 교육 수준의 과정에 문화예술교육을 통합하는 것이자 기관 관계자, 학교 교사들로부터 시민, 학생에 이르기까지 예술을 기반으로 한 교육과 자원의 연계와 교류를 의미하는 것임

● **세부 과제 6. 수원형 문화예술교육 테스트베드(test bed)로서 공간적 거점을 활용**

- 본 연구를 통해 수원문화재단은 보유한 시설들 관리에 많은 자원을 쏟을 수밖에 없고, 예술교육팀이 시설 관리 업무를 함께 하거나, 분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시설 운영을 넘어 시설 활용은 갈수록 수원문화재단의 큰 과제가 될 것으로 분석됨. 이에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공간적 거점이자 다양한 담론을 문화예술로 실험해 볼 수 있는 수원형 문화예술교육 테스트베드(test bed)로서의 활용을 제안함
- 테스트베드는 지역 예술가와 마을 주민, 인근 학교 등 지역사회의 참여를 통한 공간 운영의

지속가능성과 함께 마을 현안과 도시문제 등을 창의적으로 포용하는 혁신적 문화예술교육 접근법을 만들어줄 수 있음. 또 실험과 학습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여러 공동체와 시민들이 공간을 인식하고 적용해 나갈 수 있는 문화도시의 모델적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음²⁹⁾

■ 수원시 문화예술교육 발전을 위한 마무리 제언

- 수원시는 세계 어느 도시와 비교해도 자랑할만한 많은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동시에 문화유산 관리와 보호 측면에서 막대한 행정지출과 책임감을 안고 있음. 이는 문화유산이 없는 타 지역에 비해 도시와 세대변화에 따른 유연한 문화예술 정책을 만들어가는데 보수성과 자원 사용의 한계성을 가지며, 장기적으로는 창의적 미래도시 상을 그려가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 포용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예술교육 정책은 다양한 문화예술의 실천을 마을공동체, 시민교육, 학교 교육 등에 통합하여 지역사회 간 협업을 촉진하고, 창의적인 표현과 혁신적 사고를 장려하며, 지속가능한 실천을 촉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과거의 문화유산과 현재의 도시 변화, 미래의 창의성을 하나로 모으는 데 기여함
- 그러므로 수원시는 '문화유산'뿐만 아니라 '창의적 유산'을 후대에게 함께 전수하기 위해 과거(역사와 유산)-현재(거대인구도시)-미래(도시 변화에 따른 창조적 대안) 세 가지를 요소를 모두 수원시 문화예술의 중요한 거대 담론으로 삼고 2023년 수원시정의 방향 : 변화, 전환, 공감 정책 실현에 문화예술교육을 본격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언함. 이 같은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수원시민과 아이들은 수원시의 공동체적 역사와 정체성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나아가 미래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영감을 가지게 될 것으로 기대함

29)일본의 아오모리 프로젝트(예술가, 건축가, 교사들이 재생 공간과 농업자원을 통해 예술과 환경, 지역사회 연결을 위한 방법을 탐구, 지역 활성화를 이뤄낸 프로젝트), 싱가포르의 크리에이티브 시티 테스트베드(Singapore creative city test bed : 예술가와 도시전문가, 시민들이 싱가포르 도시구성에 아이디어와 기술을 실험할 수 있게 테스트 플랫폼을 제공하는 정책) 등을 참고할 수 있음

참고문헌

- 김상원(2021). 지역문화예술교육 계획(2018-2022)이행상황 분석 연구보고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김신애, 송미숙 (2015). 지역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조사연구. 우리춤과 과학기술. vol.11, no.3, 통권 30호 pp. 49-66
- 소순창, 이진(2011).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간 조례의 중복성.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3-1
- 양현미 (2006).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의 제정취지와 구성. 법학논문집 vol.30, no.1, pp. 56-73
- 이수현(2021). '지역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안.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재구성
- 유영재 (2020). 지역문화예술교육 현황 및 정책 연구 : 창원시 문화예술교육을 중심으로. 사회융합연구 vol.4, no.3, 통권 15호 pp. 37-50
- 정연희 (2008). 한국과 오스트리아의 문화예술교육정책 비교연구. 미술과 교육 제9집 제2호 pp. 141-165
- 조성규(2013). 사회보장법제에 있어 조례의 역할과 한계.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황윤동, 오세곤(2020).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 주요법률 기본조례 제정 및 책무 이행 실태 분석.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39-2
- 인천문화재단 인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2011). 인천문화예술교육 자원 조사 및 분석 연구 보고서
- 제주문화예술재단(2012). 제주지역 문화예술교육 현황
- 충북문화재단 충북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2015). 2015 충북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문화예술교육 자원조사 및 활성화 방안연구
- 충남연구원(2018). 충남 문화예술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 부평구문화재단(2018). 2018 부평구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현황 연구 보고서

- 충북문화재단 충북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2019). 2019 충북문화예술교육 현황조사 및 정책제언 최종보고서
- 서울문화재단(2020). 2020 서울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현황분석을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
- 부천문화재단(2016). 부천시 지역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설계방안 연구보고서
- 성남문화재단(2018).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 운영 기본계획 수립 연구
- 성남문화재단(2018).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 공간조성 방안연구
- 고양시정연구원(2020). 고양시 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 보고서
- 경기도(2020). 경기도 시군별 장래인구 특별추계(2017~2037)
- 경기도(2014). 「경기도 문화발전계획 최종보고서」
- 경기문화재단(2022). 2022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현황조사
- 문화체육관광부(2018). 「문화비전 2030」
- 수원문화재단(2017). 「2017 수원문화향수 실태조사」
- 문화체육관광부(2021). 「2021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 수원시(2015). 수원시 문화특화지역 문화도시 조성 사업 컨설팅
- 수원시(2019). 203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0). 문화예술교육 개념정립을 위한 기초연구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5).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현황조사 및 정책 방향 연구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21). 광역기초단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개발을 위한 기초 비교연구
-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09). 조례입법권의 실효성 확대 방안

